

2014 제3권 제2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록

E 11-2014-02

2014 제3권 제2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 당

성명환 연구위원 mhsung@krei.re.kr

이동소 연구원 petit211@krei.re.kr

손은애 연구원 32sea@krei.re.kr

TEL 02-3299-4322

FAX 02-960-0164

contents

03 해외곡물시장 동향

-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5
- 곡물 선물 1월 동향과 2월 전망 / 27
-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 39
-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 48
-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 58

67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 아시아 지역의 쌀 정책 / 69
- 농업직접지불제 / 96

119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 FAO 곡물시장 뉴스 / 121
- 해외곡물시장 뉴스 / 135

149 세계 농업기상 정보

-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 151

161 부록

- 세계 곡물 통계 / 163
- 국가별 밀 통계 /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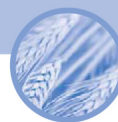


part

01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4 World Grain Market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5

곡물 선물 1월 동향과 2월 전망 / 27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 39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 48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 58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김민수(한국사료협회 과장)*

올해 1월과 2월을 지나면서 세계 곡물 시장의 흐름이 예상롭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 저점에서 유지되었던 주요 곡물 가격이 대내외적 요인으로 흔들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주요 곡물 가격이 예상외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주요 생산지 날씨 상황은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한파 지속, 브라질 주요 곡물 생산지역의 고온 건조 현상, 호주 동부지역의 가뭄 등으로 인하여 주요 곡물의 생산량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의 곡물 소비량 및 교역량 증가 추세로 인하여 기말 재고량(율) 또한 하락하고 있어 당분간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1월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영향으로 주요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일시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였으나,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주식 시장과 상품 시장으로의 투기적 매수세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추세 지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변동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변동 요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세계 곡물의 수급 상황과 전망이며, 미국 농무부의 월간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가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 밖에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 또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들 분석 자료간의 편차와 상이점이 존재할 경우 가격 방향성에 큰 혼선

* mskim@kofeed.org, 02-581-5730.

을 줄 뿐만 아니라 투기 시장으로 전락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곡물 선물시장에서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한 헷징 거래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곡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수급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위험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2014년 2월 주요 곡물에 대한 세계 수급 전망을 살펴본다.

1. 세계 곡물 수급 및 전망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및 잡곡 등을 합산한 세계 조곡의 생산량은 2012/13년 대비 11.2% 증가한 12억 6,00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소비량은 8.7% 증가한 12억 3,27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2012/13년 대비 19.6% 증가한 1억 4,6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9.7% 증가한 1억 4,051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012/13년 대비 16.7% 증가한 1억 9,10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생산량은 2012/13년 대비 0.4% 증가한 4억 7,15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소비량은 1.3% 증가한 4억 7,33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2012/13년 대비 4.5% 증가한 4,03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5.3% 증가한 3,811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012/13년 대비 1.7% 감소한 1억 50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밀 생산량은 2012/13년 대비 8.5% 증가한 7억 1,18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소비량은 3.6% 증가한 7억 39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2012/13년 대비 16.0% 증가한 1억 5,93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5.1% 증가한 1억 5,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012/13년 대비 4.5% 증가한 1억 8,37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2012/13년 대비 12.0% 증가한 9억 6,66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소비량은 9.5% 증가한 9억 4,33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2012/13년 대비 21.1% 증가한 1억 1,44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11.4% 증가한 1억 992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012/13년 대비 17.4% 증가한 1억 5,7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12/13년 대비 7.2% 증가한 2억 8,76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소비량은 4.2% 증가한 2억 6,93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2012/13년 대비 9.5% 증가한 1억 93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10.5% 증가한 1억 533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012/13년 대비 24.5% 증가한 7,30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구분		기초 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국내 소비량	수출량	재고량	재고비율
세계 조곡	13/14.2(A)	163.79	1260.01	140.51	1232.72	146.20	191.08	13.9
	13/14.1(B)	162.48	1259.20	136.91	1227.74	142.97	193.94	14.1
	12/13(C)	165.42	1132.67	128.07	1134.31	122.25	163.79	13.0
	증감율(A/B)	0.8	0.1	2.6	0.4	2.3	-1.5	
	증감율(A/C)	-1.0	11.2	9.7	8.7	19.6	16.7	
세계 쌀	13/14.2(A)	106.85	471.51	38.11	473.33	40.39	105.03	20.4
	13/14.1(B)	107.12	471.15	37.99	473.08	40.16	105.18	20.5
	12/13(C)	104.41	469.51	36.20	467.07	38.65	106.85	21.1
	증감율(A/B)	-0.3	0.1	0.3	0.1	0.6	-0.1	
	증감율(A/C)	2.3	0.4	5.3	1.3	4.5	-1.7	
세계 밀	13/14.2(A)	175.84	711.89	152.00	703.99	159.39	183.73	21.3
	13/14.1(B)	176.13	712.66	152.70	703.39	158.58	185.40	21.5
	12/13(C)	198.94	656.34	144.63	679.44	137.39	175.84	21.5
	증감율(A/B)	-0.2	-0.1	-0.5	0.1	0.5	-0.9	
	증감율(A/C)	-11.6	8.5	5.1	3.6	16.0	4.5	
세계 옥수수	13/14.2(A)	134.00	966.63	109.92	943.33	114.42	157.30	14.9
	13/14.1(B)	132.98	966.92	106.75	939.66	111.31	160.23	15.2
	12/13(C)	132.76	862.85	98.64	861.61	94.47	134.00	14.0
	증감율(A/B)	0.8	0.0	3.0	0.4	2.8	-1.8	
	증감율(A/C)	0.9	12.0	11.4	9.5	21.1	17.4	
세계 대두	13/14.2(A)	58.65	287.69	105.33	269.34	109.33	73.01	19.3
	13/14.1(B)	60.55	286.83	105.20	270.92	109.32	72.33	19.0
	12/13(C)	53.42	268.27	95.28	258.48	99.85	58.65	16.4
	증감율(A/B)	-3.1	0.3	0.1	-0.6	0.0	0.9	
	증감율(A/C)	9.8	7.2	10.5	4.2	9.5	24.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2. 쌀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세계 쌀 기초 재고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3% 감소한 1억 68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파키스탄, 일본 및 한국의 쌀 기초 재고량이 각각 33.3%, 0.4%, 1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주요국의 쌀 기초 재고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국의 쌀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04.41	107.12	106.85	2.3	-0.3
미국	1.30	1.16	1.16	-10.8	0.0
인도	25.10	25.10	25.10	0.0	0.0
파키스탄	0.55	0.60	0.40	-27.3	-33.3
태국	9.33	12.83	12.83	37.5	0.0
베트남	1.83	2.33	2.33	27.3	0.0
브라질	0.54	0.68	0.68	25.9	0.0
인도네시아	5.09	3.09	3.09	-39.3	0.0
필리핀	1.51	1.49	1.49	-1.3	0.0
미얀마	0.43	0.15	0.15	-65.1	0.0
중국	45.02	46.78	46.78	3.9	0.0
이집트	0.49	0.46	0.46	-6.1	0.0
일본	2.75	2.75	2.74	-0.4	-0.4
한국	0.73	0.72	0.63	-13.7	-12.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생산량

세계 쌀 생산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1% 증가한 4억 7,15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및 일본의 쌀 생산량이 각각 1.2%,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주요국의 쌀 생산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주요국의 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469.51	471.15	471.51	0.4	0.1
미국	6.34	6.05	6.12	-3.5	1.2
인도	104.40	103.00	103.00	-1.3	0.0
파키스탄	5.80	6.40	6.40	10.3	0.0
태국	20.20	20.50	20.50	1.5	0.0
베트남	27.70	27.70	27.70	0.0	0.0
브라질	7.99	8.30	8.30	3.9	0.0
인도네시아	36.55	37.70	37.70	3.1	0.0
필리핀	11.43	11.64	11.64	1.8	0.0
미얀마	10.67	11.00	11.00	3.1	0.0
중국	143.00	141.50	141.50	-1.0	0.0
이집트	4.68	4.85	4.85	3.6	0.0
일본	7.76	7.72	7.83	0.9	1.4
한국	4.01	4.23	4.23	5.5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소비량

세계 쌀 소비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1% 증가한 4억 7,33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및 일본의 쌀 소비량이 각각 0.5%,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주요국의 쌀 소비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주요국의 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467.07	473.08	473.33	1.3	0.1
미국	3.75	3.82	3.84	2.4	0.5
인도	93.50	95.00	95.00	1.6	0.0
파키스탄	2.50	2.60	2.60	4.0	0.0
태국	10.60	10.70	10.70	0.9	0.0
베트남	20.50	20.50	20.50	0.0	0.0
브라질	7.85	7.95	7.95	1.3	0.0
인도네시아	39.20	39.80	39.80	1.5	0.0
필리핀	12.85	12.85	12.85	0.0	0.0
미얀마	10.20	10.25	10.25	0.5	0.0
중국	144.00	146.00	146.00	1.4	0.0
이집트	3.90	4.00	4.00	2.6	0.0
일본	8.25	8.15	8.25	0.0	1.2
한국	4.61	4.50	4.50	-2.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교역량

세계 쌀 수출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6% 증가한 4,03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의 쌀 수출량이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주요국의 쌀 수출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주요국의 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38.65	40.16	40.39	4.5	0.6
미국	3.40	3.16	3.22	-5.3	1.9
인도	10.90	10.00	10.00	-8.3	0.0
파키스탄	3.50	3.40	3.40	-2.9	0.0
태국	6.70	8.50	8.50	26.9	0.0
베트남	6.80	7.50	7.50	10.3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세계 쌀 수입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3% 증가한 3,81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주요국의 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36.20	37.99	38.11	5.3	0.3
브라질	0.70	0.75	0.75	7.1	0.0
EU-27	1.39	1.35	1.35	-2.9	0.0
인도네시아	0.65	1.50	1.50	130.8	0.0
나이지리아	2.90	3.00	3.00	3.4	0.0
필리핀	1.40	1.40	1.40	0.0	0.0
서남아시아	4.58	4.30	4.30	-6.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세계 쌀 기말 재고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1% 감소한 1억 50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 재고율은 20.4%로 전월 전망치 대비 0.1%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0.7%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파키스탄 및 한국의 쌀 기말 재고량이 각각 2.2%, 20.0%, 1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주요국의 쌀 기말 재고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말 재고율은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파키스탄, 일본 및 한국의 경우 각각 0.4%p, 3.4%p, 0.4%p, 2.0%p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주요국의 쌀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06.85 (21.1%)	105.18 (20.5%)	105.03 (20.4%)	-1.8 (-0.7%p)	-0.1 (-0.1%p)
미국	1.16 (16.2%)	0.90 (12.9%)	0.88 (12.5%)	-24.1 (-3.7%p)	-2.2 (-0.4%p)
인도	25.10 (24.0%)	23.10 (22.0%)	23.10 (22.0%)	-8.0 (-2.0%p)	0.0 (0.0%p)
파키스탄	0.40 (6.7%)	1.00 (16.7%)	0.80 (13.3%)	100.0 (6.6%p)	-20.0 (-3.4%p)
태국	12.83 (74.2%)	14.73 (76.7%)	14.73 (76.7%)	14.8 (2.5%p)	0.0 (0.0%p)
베트남	2.33 (8.5%)	2.13 (7.6%)	2.13 (7.6%)	-8.6 (-0.9%p)	0.0 (0.0%p)
브라질	0.68 (8.0%)	0.83 (9.3%)	0.83 (9.3%)	22.1 (1.3%p)	0.0 (0.0%p)
인도네시아	3.09 (7.9%)	2.49 (6.3%)	2.49 (6.3%)	-19.4 (-1.6%p)	0.0 (0.0%p)
필리핀	1.49 (11.6%)	1.68 (13.1%)	1.68 (13.1%)	12.8 (1.5%p)	0.0 (0.0%p)
미얀마	0.15 (1.4%)	0.15 (1.4%)	0.15 (1.4%)	0.0 (0.0%p)	0.0 (0.0%p)
중국	46.78 (32.4%)	45.33 (31.0%)	45.33 (31.0%)	-3.1 (-1.4%p)	0.0 (0.0%p)
이집트	0.46 (9.7%)	0.49 (10.1%)	0.49 (10.1%)	6.5 (0.4%p)	0.0 (0.0%p)
일본	2.74 (32.4%)	2.82 (33.8%)	2.82 (33.4%)	2.9 (1.0%p)	0.0 (-0.4%p)
한국	0.63 (13.7%)	0.86 (19.1%)	0.77 (17.1%)	22.2 (3.4%p)	-10.5 (-2.0%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3. 밀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세계 밀 기초 재고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2% 감소한 1억 7,58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1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캐나다, 아르헨티나 및 러시아의 밀 기초 재고량이 각각 0.2%, 50.8%, 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카자흐스탄의 쌀 기초 재고량은 8.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주요국의 밀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98.94	176.13	175.84	-11.6	-0.2
미국	20.21	19.54	19.54	-3.3	0.0
캐나다	5.93	5.06	5.05	-14.8	-0.2
아르헨티나	0.74	0.59	0.29	-60.8	-50.8
브라질	1.75	1.00	1.00	-42.9	0.0
EU-27	13.56	10.08	10.08	-25.7	0.0
러시아	10.90	5.18	4.95	-54.6	-4.4
카자흐스탄	6.18	2.72	2.94	-52.4	8.1
우크라이나	5.36	2.18	2.18	-59.3	0.0
호주	7.05	4.24	4.24	-39.9	0.0
인도	19.95	24.20	24.20	21.3	0.0
중국	55.95	53.96	53.96	-3.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생산량

세계 밀 생산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1% 감소한 7억 1,18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이 각각 0.1%, 10.1% 감소한데 반해, 브라질 및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각각 11.6%, 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9. 주요국의 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656.34	712.66	711.89	8.5	-0.1
미국	61.67	57.96	57.96	-6.0	0.0
캐나다	27.21	37.50	37.50	37.8	0.0
아르헨티나	9.30	10.50	10.50	12.9	0.0
브라질	4.38	4.75	5.30	21.0	11.6
EU-27	133.88	142.90	142.87	6.7	0.0
러시아	37.72	52.10	52.07	38.0	-0.1
카자흐스탄	9.84	15.50	13.94	41.7	-10.1
우크라이나	15.76	22.00	22.28	41.4	1.3
호주	22.46	26.50	26.50	18.0	0.0
인도	94.88	92.46	92.46	-2.6	0.0
중국	121.02	122.00	122.00	0.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소비량

세계 밀 소비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1% 증가한 7억 39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의 밀 소비량이 0.8% 증가한데 반해, EU의 밀 소비량은 0.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밀 소비량의 19%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밀 소비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1.0% 감소한 1억 3,50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EU의 사료용 밀 소비량이 2.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주요국의 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679.44 (136.49)	703.39 (136.32)	703.99 (135.02)	3.6 (-1.1)	0.1 (-1.0)
미국	38.27 (10.57)	34.69 (6.80)	34.96 (6.80)	-8.6 (-35.7)	0.8 (0.0)
캐나다	9.59 (4.39)	10.20 (5.00)	10.20 (5.00)	6.4 (13.9)	0.0 (0.0)
아르헨티나	6.20 (0.30)	6.05 (0.10)	6.05 (0.10)	-2.4 (-66.7)	0.0 (0.0)
브라질	10.90 (0.20)	11.40 (0.60)	11.40 (0.60)	4.6 (200.0)	0.0 (0.0)
EU-27	120.00 (50.50)	119.75 (50.50)	118.75 (49.50)	-1.0 (-2.0)	-0.8 (-2.0)
러시아	33.55 (11.90)	35.00 (13.50)	35.00 (13.50)	4.3 (13.4)	0.0 (0.0)
카자흐스탄	6.80 (2.00)	7.30 (2.50)	7.30 (2.50)	7.4 (25.0)	0.0 (0.0)
우크라이나	11.80 (3.30)	11.50 (3.50)	11.50 (3.50)	-2.5 (6.1)	0.0 (0.0)
호주	6.74 (3.40)	6.55 (3.20)	6.55 (3.20)	-2.8 (-5.9)	0.0 (0.0)
인도	83.82 (3.40)	89.98 (3.50)	89.98 (3.50)	7.3 (2.9)	0.0 (0.0)
중국	125.00 (25.00)	125.50 (25.00)	125.50 (25.00)	0.4 (0.0)	0.0 (0.0)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교역량

세계 밀 수출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5% 증가한 1억 5,93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및 EU의 밀 수출량이 각각 4.4%, 5.8% 증가한데 반해, 아르헨티나 및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량은 각각 25.0%, 18.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주요국의 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37.39	158.58	159.39	16.0	0.5
미국	27.42	30.62	31.98	16.6	4.4
캐나다	18.98	23.00	23.00	21.2	0.0
아르헨티나	3.55	4.00	3.00	-15.5	-25.0
브라질	1.58	0.50	0.50	-68.4	0.0
EU-27	22.62	26.00	27.50	21.6	5.8
러시아	11.29	16.50	16.50	46.1	0.0
카자흐스탄	6.29	8.00	6.50	3.3	-18.8
우크라이나	7.19	10.00	10.00	39.1	0.0
호주	18.66	19.50	19.50	4.5	0.0
인도	6.82	6.50	6.50	-4.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세계 밀 수입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5% 감소한 1억 5,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브라질의 밀 수입량이 3.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주요국의 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44.63	152.70	152.00	5.1	-0.5
브라질	7.36	7.70	7.40	0.5	-3.9
중국	2.96	8.50	8.50	187.2	0.0
서남아시아	20.43	19.06	19.06	-6.7	0.0
북아프리카	22.16	22.90	22.90	3.3	0.0
동남아시아	15.76	15.90	15.90	0.9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세계 밀 기말 재고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9% 감소한 1억 8,37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 재고율은 21.3%로 전월 전망치 및 2012/13년 대비 0.2%p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캐나다, EU 및 러시아의 밀 기말 재고량이 각각 8.2%, 0.1%, 8.8%, 4.1% 감소한데 반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의 밀 기말 재고량은 66.7%, 16.1%, 5.5%,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 재고율은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캐나다, EU 및 러시아의 경우 각각 2.6%p, 0.1%p, 0.7%p, 0.5%p 감소한데 반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의 경우 각각 8.9%p, 2.1%p, 3.2%p, 1.3%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3. 주요국의 밀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75.84 (21.5%)	185.40 (21.5%)	183.73 (21.3%)	4.5 (-0.2%p)	-0.9 (-0.2%p)
미국	19.54 (29.7%)	16.55 (25.3%)	15.19 (22.7%)	-22.3 (-7.0%p)	-8.2 (-2.6%p)
캐나다	5.05 (17.7%)	9.85 (29.7%)	9.84 (29.6%)	94.9 (11.9%p)	-0.1 (-0.1%p)
아르헨티나	0.29 (3.0%)	1.05 (10.4%)	1.75 (19.3%)	503.4 (16.3%p)	66.7 (8.9%p)
브라질	1.00 (8.0%)	1.55 (13.0%)	1.80 (15.1%)	80.0 (7.1%p)	16.1 (2.1%p)
EU-27	10.08 (7.1%)	11.73 (8.0%)	10.70 (7.3%)	6.2 (0.2%p)	-8.8 (-0.7%p)
러시아	4.95 (11.0%)	6.28 (12.2%)	6.02 (11.7%)	21.6 (0.7%p)	-4.1 (-0.5%p)
카자흐스탄	2.94 (22.5%)	2.93 (19.2%)	3.09 (22.4%)	5.1 (-0.1%p)	5.5 (3.2%p)
우크라이나	2.18 (11.5%)	2.78 (12.9%)	3.06 (14.2%)	40.4 (2.7%p)	10.1 (1.3%p)
호주	4.24 (16.7%)	4.81 (18.5%)	4.81 (18.5%)	13.4 (1.8%p)	0.0 (0.0%p)
인도	24.20 (26.7%)	20.20 (20.9%)	20.20 (20.9%)	-16.5 (-5.8%p)	0.0 (0.0%p)
중국	53.96 (42.8%)	57.96 (45.8%)	57.96 (45.8%)	7.4 (3.0%p)	0.0 (0.0%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세계 옥수수의 기초 재고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8% 증가한 1억 3,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이 각각 55.6%, 0.7%,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밖에 주요국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14. 주요국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32.76	132.98	134.00	0.9	0.8
미국	25.12	20.86	20.86	-17.0	0.0
캐나다	1.37	1.55	1.55	13.1	0.0
아르헨티나	0.99	0.90	1.40	41.4	55.6
브라질	9.21	14.01	14.11	53.2	0.7
EU-27	6.67	5.38	5.38	-19.3	0.0
우크라이나	1.05	1.20	1.20	14.3	0.0
남아프리카	3.68	3.17	3.42	-7.1	7.9
중국	59.34	65.57	65.57	10.5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생산량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월 전망치와 거의 동일한 9억 6,66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1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4.0% 감소한데 반해,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5.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862.85	966.92	966.63	12.0	0.0
미국	273.83	353.72	353.72	29.2	0.0
캐나다	13.06	14.20	14.20	8.7	0.0
아르헨티나	26.50	25.00	24.00	-9.4	-4.0
브라질	81.00	70.00	70.00	-13.6	0.0
EU-27	58.86	64.69	64.69	9.9	0.0
우크라이나	20.92	30.00	30.90	47.7	3.0
남아프리카	12.37	13.00	13.00	5.1	0.0
중국	205.61	217.00	217.00	5.5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소비량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4% 증가한 9억 4,33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캐나다 및 EU의 옥수수 소비량이 각각 3.2%, 2.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옥수수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7% 증가한 5억 7,35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캐나다 및 EU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이 각각 7.1%, 3.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주요국의 옥수수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861.61 (515.71)	939.66 (569.50)	943.33 (573.53)	9.5 (11.2)	0.4 (0.7)
미국	263.64 (110.12)	297.19 (134.63)	297.19 (134.63)	12.7 (22.3)	0.0 (0.0)
캐나다	11.61 (6.28)	12.50 (7.00)	12.90 (7.50)	11.1 (19.4)	3.2 (7.1)
아르헨티나	7.60 (5.00)	8.00 (5.00)	8.00 (5.00)	5.3 (0.0)	0.0 (0.0)
브라질	52.00 (44.00)	55.00 (46.00)	55.00 (46.00)	5.8 (4.5)	0.0 (0.0)
EU-27	69.30 (53.00)	70.50 (53.50)	72.50 (55.50)	4.6 (4.7)	2.8 (3.7)
우크라이나	8.10 (6.80)	10.10 (8.50)	10.10 (8.50)	24.7 (25.0)	0.0 (0.0)
남아프리카	10.75 (4.95)	11.00 (5.10)	11.00 (5.10)	2.3 (3.0)	0.0 (0.0)
중국	202.00 (144.00)	216.00 (156.00)	216.00 (156.00)	6.9 (8.3)	0.0 (0.0)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교역량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2.8% 증가한 1억 1,44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2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및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이 각각 10.3%, 2.8% 증가한데 반해, 아르헨티나 및 EU의 옥수수 수출량은 각각 5.9%, 16.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7. 주요국의 옥수수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94.47	111.31	114.42	21.1	2.8
미국	18.58	36.83	40.64	118.7	10.3
캐나다	1.75	1.50	1.50	-14.3	0.0
아르헨티나	18.50	17.00	16.00	-13.5	-5.9
브라질	25.00	20.00	20.00	-20.0	0.0
EU-27	2.19	3.00	2.50	14.2	-16.7
우크라이나	12.73	18.00	18.50	45.3	2.8
남아프리카	1.90	2.00	2.00	5.3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세계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3.0% 증가한 1억 99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EU, 한국, 멕시코 및 이집트의 옥수수 수입량은 각각 16.7%, 5.6%, 4.5%, 8.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 주요국의 옥수수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98.64	106.75	109.92	11.4	3.0
EU-27	11.35	9.00	10.50	-7.5	16.7
중국	2.70	5.00	5.00	85.2	0.0
일본	14.41	15.50	15.50	7.6	0.0
한국	8.17	9.00	9.50	16.3	5.6
멕시코	5.68	11.00	11.50	102.5	4.5
이집트	5.06	5.70	6.20	22.5	8.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세계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1.8% 감소한 1억 5,7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1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 재고율은 14.9%로 전월 전망치 대비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

년 대비해서는 0.9%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및 캐나다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이 각각 9.2%, 17.8% 감소한데 반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및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각각 54.9%, 1.0%, 12.7%, 7.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말 재고율은 미국, 캐나다 및 EU의 경우 각각 1.3%p, 3.3%p, 0.2%p 감소한데 반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및 남아프리카의 경우 각각 2.3%p, 0.1%p, 1.2%p, 2.0%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9. 주요국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34.00 (14.0%)	160.23 (15.2%)	157.30 (14.9%)	17.4 (0.9%p)	-1.8 (-0.3%p)
미국	20.86 (7.4%)	41.44 (12.4%)	37.63 (11.1%)	80.4 (3.7%p)	-9.2 (-1.3%p)
캐나다	1.55 (11.6%)	2.25 (16.1%)	1.85 (12.8%)	19.4 (1.2%p)	-17.8 (-3.3%p)
아르헨티나	1.40 (5.4%)	0.91 (3.6%)	1.41 (5.9%)	0.7 (0.5%p)	54.9 (2.3%p)
브라질	14.11 (18.3%)	9.81 (13.1%)	9.91 (13.2%)	-29.8 (-5.1%p)	1.0 (0.1%p)
EU-27	5.38 (7.5%)	5.56 (7.6%)	5.56 (7.4%)	3.3 (-0.1%p)	0.0 (-0.2%p)
우크라이나	1.20 (5.8%)	3.15 (11.2%)	3.55 (12.4%)	195.8 (6.6%p)	12.7 (1.2%p)
남아프리카	3.42 (27.0%)	3.19 (24.5%)	3.44 (26.5%)	0.6 (-0.5%p)	7.8 (2.0%p)
중국	65.57 (32.4%)	71.47 (33.1%)	71.47 (33.1%)	9.0 (0.7%p)	0.0 (0.0%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세계 대두 기초 재고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3.1% 감소한 5,86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아르헨티나 및 중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이 각각 8.2%, 0.1% 감소한데 반해, EU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55.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 주요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53.42	60.55	58.65	9.8	-3.1
미국	4.61	3.83	3.83	-16.9	0.0
아르헨티나	16.39	24.40	22.40	36.7	-8.2
브라질	12.92	15.93	15.93	23.3	0.0
EU-27	0.54	0.20	0.31	-42.6	55.0
중국	15.91	12.39	12.38	-22.2	-0.1
일본	0.13	0.22	0.22	69.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생산량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3% 증가한 2억 8,76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1.1% 증가한데 반해,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주요국의 대두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268.27	286.83	287.69	7.2	0.3
미국	82.56	89.51	89.51	8.4	0.0
아르헨티나	49.30	54.50	54.00	9.5	-0.9
브라질	82.00	89.00	90.00	9.8	1.1
EU-27	1.00	1.13	1.13	13.0	0.0
중국	13.05	12.20	12.20	-6.5	0.0
일본	0.22	0.21	0.21	-4.5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소비량

세계 대두 소비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6% 감소한 2억 6,93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및 아르헨티나의 대두 소비량이 각각 0.6%,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주요국의 대두 소비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대두 소비량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7% 감소한 2억 3,87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아르헨티나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이 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주요국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22. 주요국의 대두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258.48 (228.94)	270.92 (240.36)	269.34 (238.75)	4.2 (4.3)	-0.6 (-0.7)
미국	48.42 (45.97)	49.24 (46.27)	48.96 (46.27)	1.1 (0.7)	-0.6 (0.0)
아르헨티나	35.55 (33.61)	40.00 (38.30)	38.60 (36.60)	8.6 (8.9)	-3.5 (-4.4)
브라질	37.48 (34.48)	40.38 (37.28)	40.38 (37.28)	7.7 (8.1)	0.0 (0.0)
EU-27	13.64 (12.74)	13.15 (12.23)	13.15 (12.23)	-3.6 (-4.0)	0.0 (0.0)
중국	76.18 (64.95)	79.65 (68.35)	79.65 (68.35)	4.6 (5.2)	0.0 (0.0)
일본	3.00 (1.92)	3.09 (2.02)	3.09 (2.02)	3.0 (5.2)	0.0 (0.0)

주: 괄호 안은 착유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교역량

세계 대두 수출량은 전월 전망치와 거의 동일한 1억 93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미국 및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이 각각 1.0%, 2.3% 증가함에 반해,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은 17.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주요국의 대두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99.85	109.32	109.33	9.5	0.0
미국	35.91	40.69	41.10	14.5	1.0
아르헨티나	7.74	9.70	8.00	3.4	-17.5
브라질	41.90	44.00	45.00	7.4	2.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세계 대두 수입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1% 증가한 1억 53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주요국의 대두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95.28	105.20	105.33	10.5	0.1
EU-27	12.51	12.30	12.30	-1.7	0.0
중국	59.87	69.00	69.00	15.2	0.0
일본	2.87	2.86	2.86	-0.3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세계 대두 기말 재고량은 전월 전망치 대비 0.9% 증가한 7,30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2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 재고율은 19.3%로 전월 전망치 대비 0.3%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 대비해서는 2.9%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전망치 대비 아르헨티나 및 EU의 대두 기말 재고량이 각각 2.1%, 28.2% 증가한데 반해, 중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 재고율은 아르헨티나 및 EU의 경우 각각 5.2%p, 0.9%p 증가한 반면, 브라질의 경우 0.3%p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25. 주요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1월 (B)	2013/14,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58.65 (16.4%)	72.33 (19.0%)	73.01 (19.3%)	24.5 (2.9%p)	0.9 (0.3%p)
미국	3.83 (4.5%)	4.09 (4.5%)	4.09 (4.5%)	6.8 (0.0%p)	0.0 (0.0%p)
아르헨티나	22.40 (51.7%)	29.20 (58.8%)	29.81 (64.0%)	33.1 (12.3%p)	2.1 (5.2%p)
브라질	15.93 (20.1%)	20.70 (24.5%)	20.70 (24.2%)	29.9 (4.1%p)	0.0 (-0.3%p)
EU-27	0.31 (2.3%)	0.39 (2.9%)	0.50 (3.8%)	61.3 (1.5%p)	28.2 (0.9%p)
중국	12.38 (16.2%)	13.71 (17.2%)	13.70 (17.2%)	10.7 (1.0%p)	-0.1 (0.0%p)
일본	0.22 (7.3%)	0.20 (6.5%)	0.20 (6.5%)	-9.1 (-0.8%p)	0.0 (0.0%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6 FEB. 2014.

곡물 선물 1월 동향과 2월 전망

임호상(삼성선물 책임연구원)*

2013년 1월 곡물선물 시장은 1월 10일 발표된 미 농무부 월간전망에서의 옥수수/대두 기말재고율 하향 수정 영향이 이어지며 월초의 하락 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개별 곡물 별로 보면, 옥수수는 10일 농무부 월간전망에서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12월의 13.7%에서 12.4%로 하향 수정된 영향으로 가격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두는 기말재고율 하향 수정에도 월 후반 아르헨티나의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한 작황에 대한 우려가 산발적 강우 예보 속에 완화되며 가격은 다시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맥은 마이너스 40도를 하회하는 흑한의 영향 속에 향후 작황에 대한 우려로 기말재고율의 하향 수정 가능성이 부각되며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월 농무부 보고서의 기말재고율이 12월의 23.6%에서 25.3%로 예상과 달리 상승하며 소맥 가격은 하락 마감했다.

2월 곡물 시장은 1) 미 농무부의 2월 수급보고에서 옥수수/소맥 기말재고율 하향 수정, 2) 여전히 4%대에 불과한 미국의 낮은 대두 기말재고율 전망, 3) 브라질의 강수량 부족 및 열악한 수송 인프라에 따른 수급 우려, 4) 미국의 흑한으로 인한 수송 차질 우려 등은 곡물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반면 시장 외적 요인인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테이퍼링 지속 결정에 따른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며 미국산 곡물 가격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요인이라는 점에서, 곡물 가격의 급등세를 제한할 요인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hosang.lim@samsung.com, 02-3707-3621.

또한 기본적으로 1) 미국산 옥수수 생산량의 증가 전망, 2) 남미산 곡물의 출하 시즌 접근, 3) 중국의 대두 수입선 남미로의 일부 전환 움직임 등은 가격의 급등세를 지속시키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가격 하단을 한 단계 높인 상황에서의 레인 지장 전개 가능성을 예상한다.

1. 곡물선물 1월 동향: 기말재고 축소 전망에도 가격 반등 제한

표 1. 1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31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원당	원면	원유
전년말비 (%)	+3.2%	-0.9%	-7.6%	-4.9%	+2.1%	-1.4%

1월 곡물선물 시장은 1월 10일 발표된 미 농무부 월간전망에서의 옥수수/대두 기말재고율 하향 수정 영향이 이어지며 월초의 하락 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개별 곡물 별로 보면, 옥수수는 10일 농무부 월간전망에서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12월의 13.7%에서 12.4%로 하향 수정된 영향으로 가격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 1) 중국의 미국산 유전자 배합 옥수수에 대한 수입 통관 거부 조치, 2) 기본적으로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대비 +29.2% 증가하며 기말재고율이 전 년도의 7.4% 에서 12.4%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부분에 변화가 없다는 인식 속 에 가격 급등세로 이어지기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이 이어졌다.

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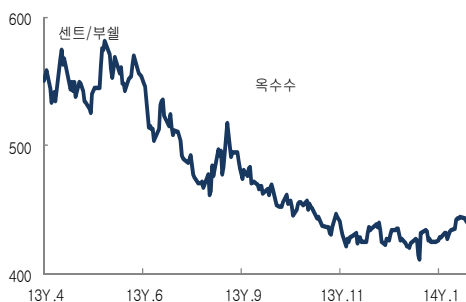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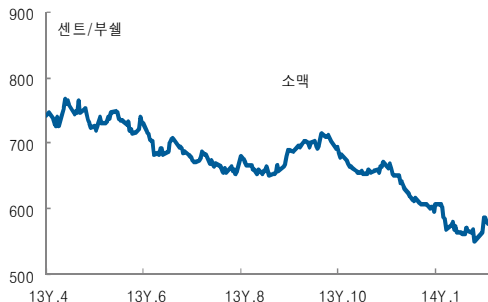


그림 2. 소맥 선물 가격 추이



대두는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1월 전망에서 기말재고율이 12월의 4.6%에서 4.5%로 하향 수정되며 미국내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며 발표 직후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월 후반으로 가면서 그 동안 시장 우려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아르헨티나의 고온건조한 기후에 대한 우려가 산발적 강우 예보 속에 완화되며 가격은 다시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 대두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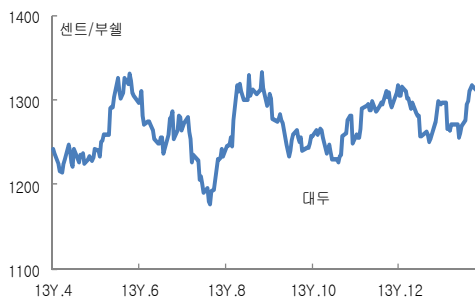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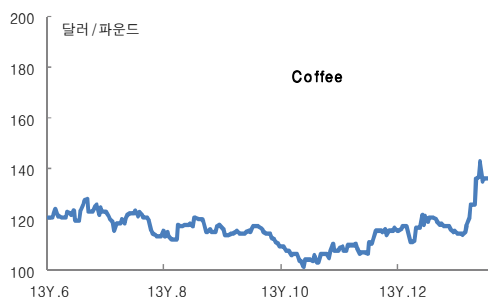


그림 4. 커피 선물 브라질 강우량부족 우려 속 급반등



소맥은 10일 미 농무부 월간전망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마이너스 40도를 하회하는 폭한의 영향 속에 향후 작황에 대한 우려로 기말재고율의 하향 수정 가능성이 부각되며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적설량이 충분했던 관계로 폭한에도 작황 우려는 제한되며 농무부 보고서의 기말재고율은 12월의 23.6%에서 25.3%로 예상과 달리 상승하며 소맥 가격의 급락 요인을 제공하였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미 농무부 1월 수급 보고서의 옥수수/대두 기말재고율 전망치 하향 수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생산량 증가 전망 속에 옥수수를 제외한 곡물 선물 가격은 조정 흐름이 이어졌다.

표 2. 주요 농산물 선물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추이

(2/12일 종가기준)

상품	현재	전주말	주간 변동	주간 변동률	전월말 대비 (%)	전년 대비 (%)	거래량	거래량 증감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 증감
옥수수	444.5	434.3	10.25	2.4%	2%	5.6%	880,256	171,553	462,818	-85,998
대 두	1,318	1,269.0	49	3.9%	4%	2.9%	291,644	84,586	180,422	36,860
소 맥	577.5	557.5	20	3.6%	4%	-4.2%	376,749	96,092	186,154	-55,144
대두유	38.57	37.7	0.9	2.4%	2%	-1.9%	308,840	80,467	151,621	-43,774
원 면	87.85	86.3	1.6	1.9%	2%	4.0%	46,707	6,331	58,691	12,232
원 당	15.96	15.8	0.17	1.1%	1%	-3.9%	271,531	82,174	230,707	51,181
커 피	137.8	127.4	10.45	8.2%	8%	22.0%	116,184	67,693	57,348	22,097
돈지육	94.725	94.8	-0.1	-0.1%	0%	4.4%	82,167	2,610	99,283	-3,036
생 우	140.425	140.6	-0.15	-0.1%	0%	3.8%	113,816	4,854	178,106	3,738

2. 곡물 선물 2월 전망

■ 곡물 선물 시장 외부 환경: 추가 테이퍼링과 남미 통화 약세 우려 남아

지난 1월 23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달러화 매입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이 6.9325에서 7.9010으로 급등하며 불거진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는, 한국 시간 1월 30일 새벽 4시로 예정된 FOMC에서의 추가적인 100억 달러 규모 테이퍼링 단행 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가져 오며, 달러화의 일방적인 강세 흐름을 둔화시켰다.

또한 미국의 12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가 전월대비 +7.4만 명을 기로한데 이어, 1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도 전월대비 +11.3만 명으로 시장 전망치 +18.5만 명을 크게 하회함에 따라, 이 같은 요인이 향후 FOMC의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달러화 강세 흐름 자체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요인이 일정 부분 미국산 곡물 가격의 남미산에 대한 상대적 우위성을 제공하며 미 곡물 선물 가격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 이번 1월 30일의 FOMC 회의에서 시장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추가적인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축소가 결정되고, 2) 2월 11일의 하원 증언에서

앨런 신임 FRB 의장이 자산매입 축소의 지속을 언급한 점, 3) 또한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언급 등은 큰 흐름의 달러화 강세를 지속시킬 요인이다.

따라서 시장 외적 요인인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며 미국산 곡물 가격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요인이라는 점에서, 곡물 가격의 급등세를 제한할 시장외적 요인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농무부 2월 수급 전망 요약 : 곡물 가격 추가 하락 제한

옥수수는 2월 10일 발표된 미 농무부의 월간수급전망에서 글로벌 옥수수 기말재고율이 16.7%로 전월의 17.1%를 하회하고, 미국의 기말재고율 또한 12.4%에서 11.1%로 하향 수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글로벌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톤)

항목	2011/12	2012/13 (추정)	2013/14 전망		변동율(%)	
			2014.1	2014.2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885.99	862.85	966.92	966.63	12.0%	0.0%
공급량	1015.29	995.61	1099.90	1100.63	10.5%	0.1%
소비량	882.52	861.61	939.66	943.33	9.5%	0.4%
교역량	116.97	94.47	111.31	114.42	21.1%	2.8%
기말재고량	132.76	134	160.23	157.30	17.4%	-1.8%
재고율(%)	15.0	15.6	17.1	16.7		

그림 5. 글로벌 옥수수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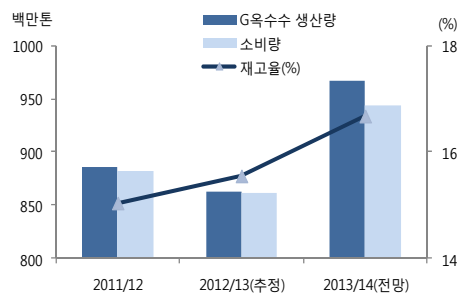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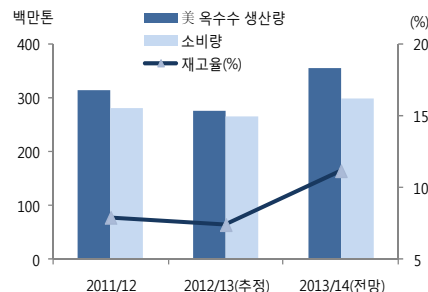


표 4. 미국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톤)

항목	2011/12	2012/13 (추정)	2013/14 전망		변동율(%)	
			2014.1	2014.2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313.95	273.83	353.72	353.72	29.2%	0.0%
공급량	342.59	298.95	374.58	374.58	25.3%	0.0%
소비량	279.03	263.64	297.19	297.19	12.7%	0.0%
교역량	39.18	18.58	36.83	40.64	118.7%	10.3%
기말재고량	25.12	20.86	41.44	37.63	80.4%	-9.2%
재고율(%)	7.9	7.4	12.4	11.1		

그림 6. 미국 옥수수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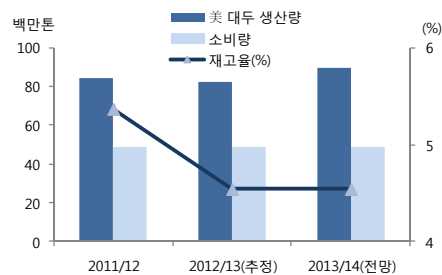


대두는 농무부 2월 전망에서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1월의 26.7%에서 27.1%로 증가하고, 미국의 기말재고율도 시장의 하락 전망과 달리 4.5%대를 유지함에 따라, 월간 전망 발표 직후에는 조정 흐름을 보인다. 다만 최근 미국산 대두에 대한 지속적인 10~15만 톤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은 대두 가격의 하락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표 5. 미국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톤)

항목	2011/12	2012/13 (추정)	2013/14 전망		변동율(%)	
			2014.1	2014.2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84.19	82.56	89.51	89.51	8.4%	0.0%
공급량	90.04	87.17	93.34	93.34	7.1%	0.0%
소비량	48.72	48.42	49.24	48.96	1.1%	-0.6%
교역량	37.15	35.91	40.69	41.10	14.5%	1.0%
기말재고량	4.61	3.83	4.09	4.09	6.8%	0.0%
재고율(%)	5.4	4.5	4.5	4.5		

그림 7. 미국 대두 생산량/기말재고율



소맥은 지난 1월 10일 농무부 월간전망 발표의 경우, 발표 직전까지는 마이너스 40도를 하회하는 흑한의 영향 속에 기말재고율 하향 수정 가능성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으나, 실제 기말재고율이 12월의 23.6%에서 25.3%로 예상과 달리 상승하며 소맥 가격의 급락 요인을 제공했었다.

하지만 이번 2월 전망에서는 추가적인 기말재고율 상승을 예상하던 시장 기대치와는 달리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26.4%에서 26.1%로 하락하고, 미국의 25.3%에서 22.7%로 하락하며 소맥 선물 가격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최근의 소맥 가격 하락 속에 미국산 소맥의 교역량이 1월에 비해 4.4%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흑한으로 인한 미국 및 캐나다 등지의 철도 수송의 차질로 인한 부분도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6. 글로벌 소맥 수급 전망 (단위: 백만톤)

항목	2011/12	2012/13 (추정)	2013/14 전망		변동율(%)	
			2014.1	2014.2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697.27	656.34	712.66	711.89	8.5%	-0.1%
공급량	896.25	855.28	888.79	887.73	3.8%	-0.1%
소비량	697.31	679.44	703.39	703.99	3.6%	0.1%
교역량	157.78	137.39	158.58	189.39	37.8%	19.4%
기말재고량	198.94	175.84	185.40	183.73	4.5%	-0.9%
재고율(%)	28.5	25.9	26.4	26.1		

그림 8. 글로벌 소맥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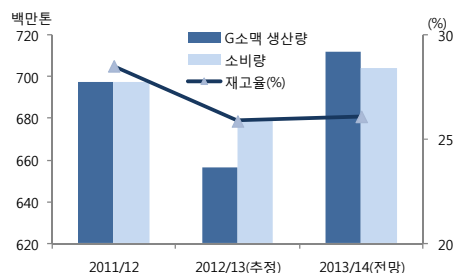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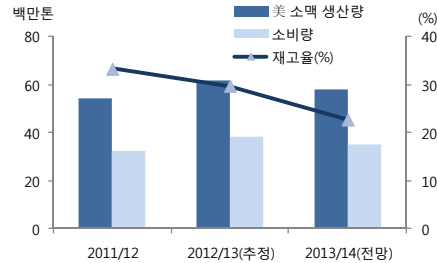


표 7. 미국 소맥 수급 전망 (단위: 백만톤)

항목	2011/12	2012/13 (추정)	2013/14 전망		변동율(%)	
			2014.1	2014.2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54.41	61.67	57.96	57.96	-6.0%	0.0%
공급량	80.93	85.22	81.85	82.13	-3.6%	0.3%
소비량	32.11	38.27	34.69	34.96	-8.6%	0.8%
교역량	28.61	27.42	30.62	31.98	16.6%	4.4%
기말재고량	20.21	19.54	16.55	15.19	-22.3%	-8.2%
재고율(%)	33.3	29.7	25.3	22.7		

그림 9. 미국 소맥 생산량/기말재고율



■ 곡물 2월 전망: 곡물 가격 하락 제한. 단 남미 출하 부담은 잔존

앞서 언급한 미국의 2월 수급전망을 통해 옥수수와 소맥의 기말재고율이 하향 수정된 부분, 그리고 미국의 폭한, 브라질의 고온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 등은 곡물 가격의 하락을 제한할 요인이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옥수수, 대두, 소맥 등의 글로벌한 생산량 증가 전망 속에서 가격 급등세는 제한되며, 가격 하단을 한 단계 높인 상황에서의 레인지장 전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생산량은 옥수수가 전년대비 +12.0%, 대두가 +7.2%, 소맥이 +8.5%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8. 미국 옥수수 수급 항목별 전망 변화 (2013/14년도, 백만톤)

항목	단위 (백만, %)	2013/14 (2014.2.10)	2013/14 (2014.1.10)
작부면적	에이커	87.7	87.7
단위면적당 수확량	부셸/에이커	158.8	158.8
기초재고	부셸	821	821
생산	부셸	13,925	13,925
공급 합계	부셸	14,781	14,781
사료	부셸	5,300	5,300
식품/종자/공업	부셸	6,400	6,400
에탄올	부셸	5,000	5,000
수출	부셸	1,600	1,450
수요 합계	부셸	13,300	13,150
기말재고	부셸	1,481	1,631
재고율	%	11.14%	12.40%

표 9. 미국 대두 수급 항목별 전망 변화 (2013/14년도, 백만톤)

항목	단위 (백만, %)	2013/14 (2014.2.10)	2013/14 (2014.1.10)
작부면적	에이커	75.9	75.9
단위면적당 수확량	부셸/에이커	43.3	43.3
기초재고	부셸	141	141
생산	부셸	3,289	3,289
공급 합계	부셸	3,459	3,454
Crushing	부셸	1,700	1,700
수출	부셸	1,510	1,495
종자	부셸	87	87
사료	부셸	12	22
수요 합계	부셸	3,309	3,304
기말재고	부셸	150	150
재고율	%	4.53%	4.54%

또한 2월부터 이미 남미산 대두 출하가 시작되었고, 옥수수도 앞으로 출하가 본격화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브라질의 고온건조한 기후에 대한 우려로 남미 지역의 기상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가격 급등 흐름을 이어갈 요인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옥수수는 이번 농무부 2월 전망에서 기말재고율이 사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점, 브라질의 최근 고온건조한 기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는 있으나, 아직 옥수수 및 대두 작황에 미칠 영향력은 추가적인 진척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브라질 옥수수 생산량/기말재고율
(단위: 백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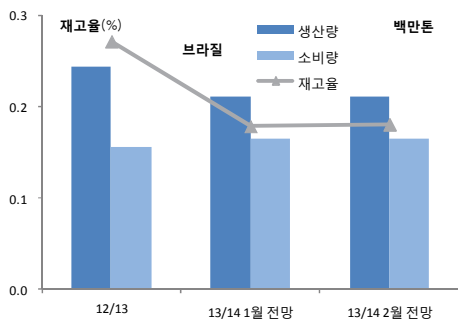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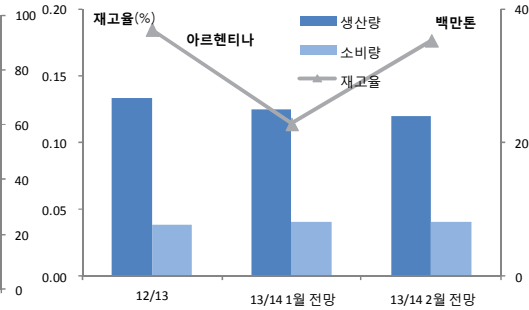


그림 11.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기말재고율
(단위: 백만톤)



따라서 지난 1월 전망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전히 옥수수의 생산량 자체가 전년대비 29% 증가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펀드멘탈 요인을 감안할 때, 이번 기말재고율 하향 수정만으로 옥수수 선물 가격의 급등세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수준의 레인지장의 전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1) 이번 미 농무부 2월 수급보고에서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 전망이 전월 대비 +2.8%를 기록하며, 기본적으로 사료용으로써의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유럽, 한국, 동남아시아 등의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점, 2)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전망치 하향 수정 등은 가격 하단을 지지할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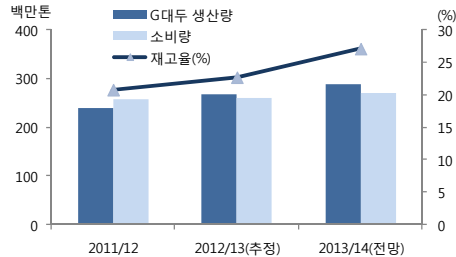
대두는 2월 미 농무부 월간전망 발표 전까지 남미 브라질의 작황 우려 속에 가격 반등 폭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미국의 기말재고율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고, 남미 브라질의 대두 작황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가격 급등세의 지속 여부는 아직 제한될 전망이다.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년대비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증가 전망 속에 글로벌 대두 기말 재고율은 12월의 26.1%에서 1월에는 26.7%로, 그리고 다시 2월에는 27.1%로 연속해서 상향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0. 글로벌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톤)

항목	2011/12	2012/13 (추정)	2013/14 전망		변동율(%)	
			2014.1	2014.2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239.16	268.27	286.83	287.69	7.2%	0.3%
공급량	309.47	321.69	347.38	346.34	7.7%	-0.3%
소비량	257.2	258.48	270.92	269.34	4.2%	-0.6%
교역량	92.27	99.85	109.32	109.33	9.5%	0.0%
기말재고량	53.42	58.65	72.33	73.01	24.5%	0.9%
재고율(%)	20.8	22.7	26.7	27.1		

그림 12. 글로벌 대두 생산량/기말재고율



따라서 미국산의 낮은 기말 재고율 부담이라는 우려 요인,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재배 초기의 고온건조한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우려 등은 남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남미산 대두의 출하가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남미산 작황에 따라 가격 조정 요인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레인지장의 전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1) 향후 브라질의 고온건조한 기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2) 브라질의 수송망의 정체 요인 등이 불거질 경우 미국의 4%대에 불과한 낮은 기말재고율은 가격의 급등세를 유발할 요인이란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13. 브라질 대두 생산량/기말재고율 (단위: 백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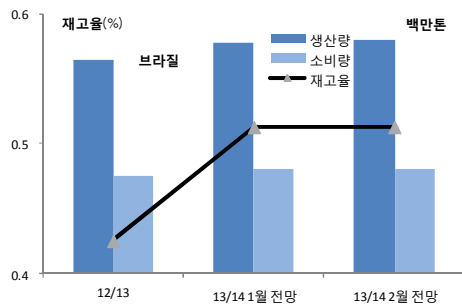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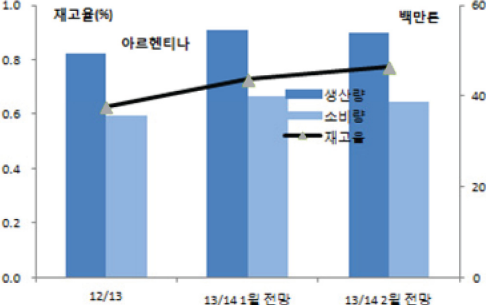


그림 14.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량/기말재고율 (단위: 백만톤)



특히 최근 일부 대형 수입 계약의 캔슬 등에서 보듯, 향후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서 남미산 대두로 수입선을 일부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맥은 이번 2월 농무부 전망에서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26.4%에서 26.1%로 하락하고, 미국의 25.3%에서 22.7%로 하락한 점은 단기적으로 소맥 선물의 가격 하락을 제한할 요인이다. 특히 옥수수와는 사료 곡물로서 대체재 관계에 있어 최근

의 옥수수 가격의 반등 흐름도 소맥 가격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EU 27개국의 생산량이 1억 3,388만 톤에서 1억 4,287만 톤으로 증가하는 등, 호주/舊소련방/캐나다 등 주요 생산국들의 소맥 생산량 증가 전망 자체는 가격 상승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15. EU 27개국 소맥 생산량/기말재고율
(단위: 백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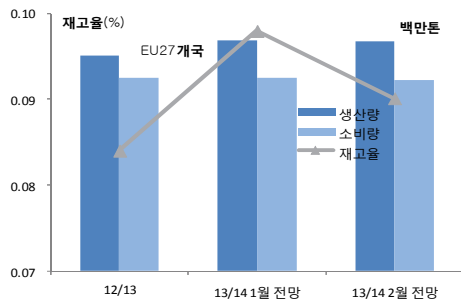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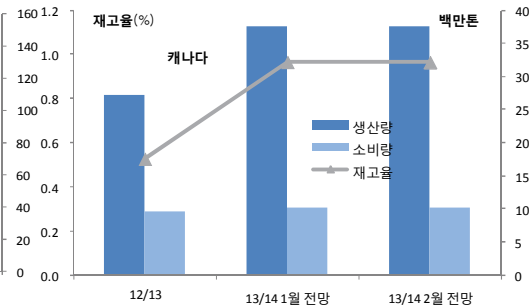


그림 16. 캐나다 소맥 생산량/기말재고율
(단위: 백만톤)



특히 지난 달 미 소맥 선물 가격의 급반등 요인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흑한 및 캐나다 철도 회사의 파업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3월 로 접근하며 흑한에 대한 우려가 개선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글로벌 생산량 증가 전망 자체는 가격 상승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소맥은 옥수수/대두 등 다른 작물 가격과의 가격 연동 움직임이 확대될 전망이다.

■ 선물 시장 포워드커브 및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현황 추이

한편 선물 시장의 포워드커브의 형태로 보게 되면 옥수수는 여전히 근월물 수급에 대한 불안 요인이 제한적이지만, 대두는 여전히 백위데이션이 유지되고 있어 미국산 대두의 근월물 수급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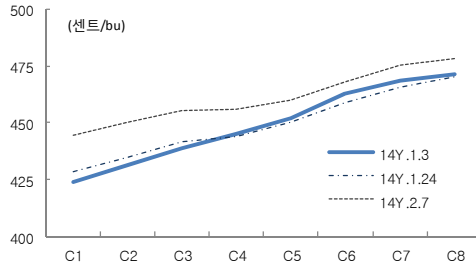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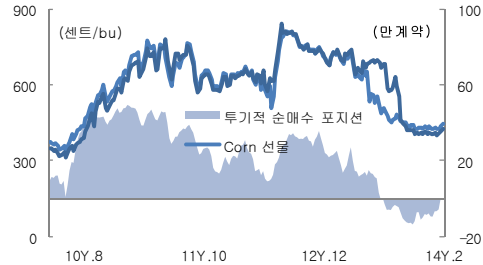


그림 18. 옥수수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다만 대두 선물의 경우 원월물을 기준으로 백워데이션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19.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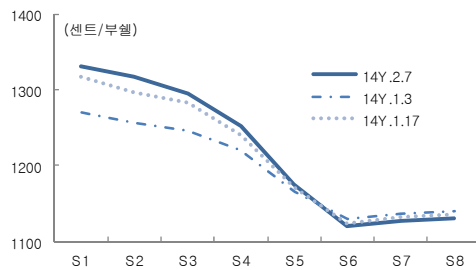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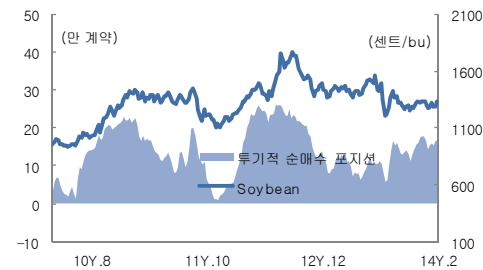


그림 20. 대두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다음으로 앞의 그림들을 통해 주요 곡물들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게 되면 대두는 과거치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 추가적인 투기적 매수세 유입을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림 21. 소맥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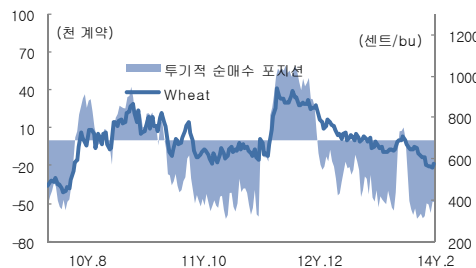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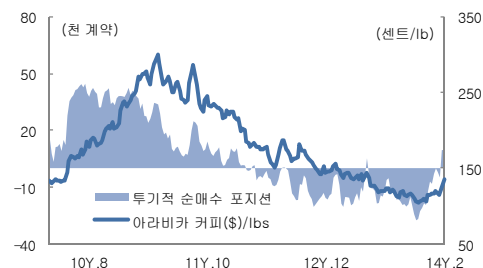


그림 22. 아라비카 커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반면 소맥의 경우는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최근 4년간의 저점 부근에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옥수수의 경우도 순매수 포지션이 플러스로 전환하려 하고 있는 부분 등은 이들 곡물들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높일 요인들이다.

한편 참고로 上記 우측 〈그림 22〉의 아라비카 커피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도 최근의 브라질의 강수량 부족 속의 향후 재고 축소 전망 부각과 함께 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장)*

1. 국제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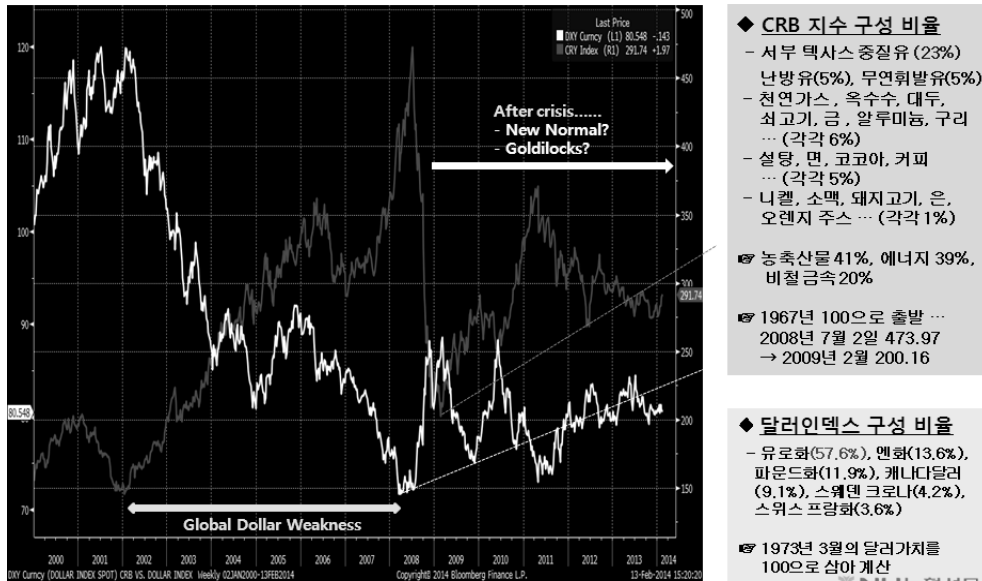
■ 꿈틀거리는 상품시장 & 달러약세 조짐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에 시장은 편안했다”..... 금융시장 종사자들이라면 이 명제(命題)에 대체로 동의한다. 아래 [그림 1]에서 글로벌 달러약세 기간으로 표시된 시절을 돌이켜보면, 미국은 경상적자와 재정적자가 쌓여가는 와중에 달러를 찍어내고, 세계는 그 달러를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가격이 형성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자고 나면 시세가 오르던 시절이다. 빚(debt)을 마구잡이로 끌어쓰던 이른바 ‘레버리지 시대’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은 심화되던 시절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데에다 돈 별만한 곳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몇 년을 보내다 보니 “응답하라 0000년!”이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향수(鄉愁)와 같은 감정마저 느껴지는 시절이다.

통상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강세는 美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때 시현된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비철금속, 귀금속, 곡물 부문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뽑아 살펴본 [그림 2]가 상품시장의 추가약세보다는 강세로의 반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는 ‘통계적 착시’에 힘입어 실물경기의 회복세와는 다소 무관하게 실업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지만 적절한 물가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에게도 반가운 현상일 수도 있겠다.

* jopok@nfutures.co.kr, 02-3787-8290.

그림 1. 달러인덱스(white) & CRB지수(red) 추이 [weekly]



인용: Bloomberg (2월 13일 현재), NH농협신문

그림 2. 고비에 이른 상품시장(commodity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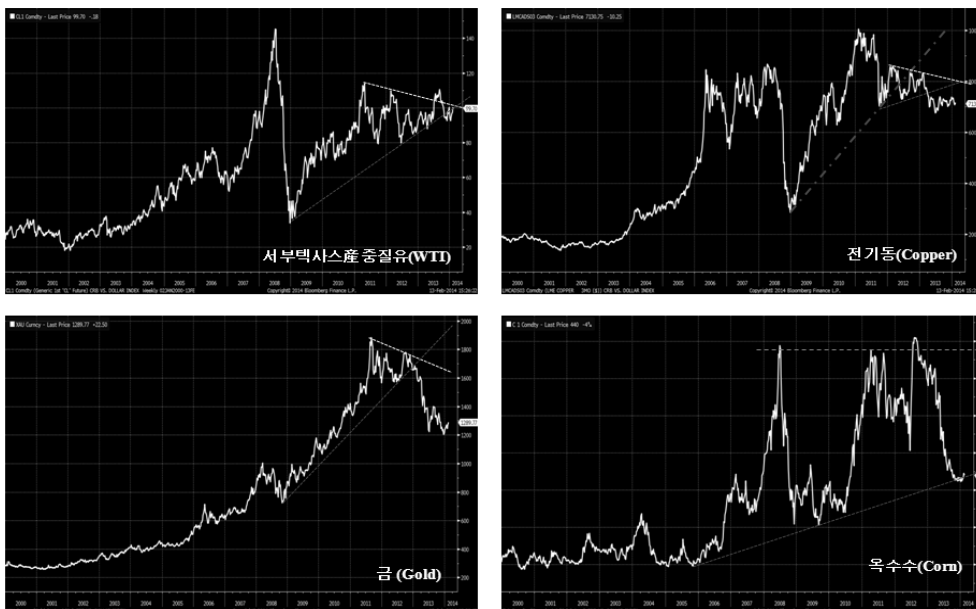


차트 인용: Bloomberg (2월 13일 현재)

■ 중앙은행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국제금융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에게 고정되어 있다. 중앙은행 총재 및 고위관계자들의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을 통해 통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나가지 않고서는 시장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시절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3] ~ [그림 5]에서는 유럽 중앙은행(ECB), 美 연준(Fed), 영란은행(BOE) 순으로 최근 그들의 행보와 시사점을 정리했다.

2012년 7월 “유로를 사수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ECB is ready to do 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the euro)”라는 말 한 마디로 국제금융시장의 유로존에 대한 공격을 무력화시킨 바 있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립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의 국채매입 요구를 무제한 수용하겠다는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는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지만 치솟던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수익률을 안정화시켰고, OMT의 위험

그림 3. 드라기의 ‘립 서비스’가 아직까지 통하는 유럽

이번 만큼은 드라기 ECB총재가 '세계 경제대통령'
드라기 총재의 노련한 시장 다루기에 글로벌 증시-환율도 감동

승인 2014.02.07 10:13:54

초이스경제

드라기가 시장에 던진 5가지 긍정적 신호 (월스트리트저널)

1. 유럽 경제에 대한 자신감 표출
2. 유로존이 여전히 디플레이 우려 속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
3. 이미징 마켓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언급
4. ECB가 국채를 추가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
5.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



국가대표지수	기간설정	2014/02/06	2014/02/14		
영국		6,457.89	6,663.62	▲	205.73
독일		9,116.32	9,662.40	▲	546.08
프랑스		4,117.79	4,340.14	▲	222.35
이탈리아		19,069.62	20,436.47	▲	1366.85
스페인		9,775.00	10,132.80	▲	357.80
그리스		1,240.11	1,280.46	▲	40.35
포르투갈		6,722.59	7,132.51	▲	409.92

인용: 초이스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인포맥스유럽 증시 추이)

獨 현재 "ECB 국채매입 반대하지만..."

최종결정은 유럽재판소에 미뤄

입력 2014-02-09 21:15:13 한국경제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7일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프로그램(OMT)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럽 사법재판소(ECJ)에 전달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위험으로 판결내리지 않고 최종 결정을 ECJ에 미룬 것이다. 독일 헌재가 직접 위험 결정을 내릴 경우 OMT가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OMT란 ECB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역내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2012년 9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뭐든 하겠다”며 OMT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유로존 붕괴설까지 나오던 유럽 재정위기는 안정세로 돌아섰다.

유로존 4분기 깜짝 성장...ECB 추가완화 가능성은 여전

기사입력 2014-02-16 13:48

파이낸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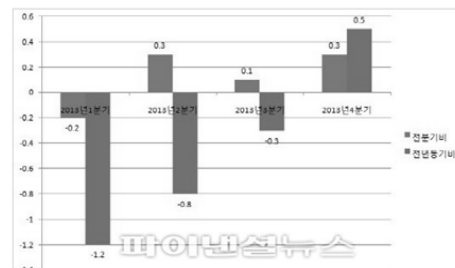


그림 4. 본격적으로 뉴스와 시황의 중심에 선 재닛 옐런(Janet Yellen)

[뉴스분석] 옐런 "초저금리 유지" ...
한국은 신흥국 중 가장 튼튼 평가

입력 2014.02.13 00:03 **① 중앙일보**

하원 청문회서 신고식
"경기 확장 지속 ... 양적완화 축소
신흥시장, 위험요인 되지 않는다"
시장 반응 긍정적 세계 주가 경침

What Does Jobs Report Mean for
Economy, Fed? Hilsenrath, Reddy Field
Your Ques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美 '한파'에 고용지표도 '공포'...테이퍼링 연기?

입력 2014.01.12 16:46:56

美 고용 실망에도 테이퍼링 지속 전망

[2014/02/08 05:55 17] 연합뉴스포토스

2014 FOMC Meetings			
Month	Dates	Statement	Rate
January	28-29	Statement	\$650억/월 !
March	18-19*		\$550억/월 ?
April	29-30		\$450억/월 ?
June	17-18*		\$350억/월 ?
July	29-30		\$250억/월 ?
September	16-17*		\$150억/월 ?
October	28-29		\$50억/월 ?
December	16-17*		QE 종료?

인용: 중앙일보,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스원, 연합뉴스포토스, NH농협신문

그림 5. 갈수록 모호해지는 '포워드 가이드런스(forward guidance)'

영란은행 "실업률 7% 넘는 한 금리인상 없다"

입력시간 | 2013.08.07 **이데일리**

카니 총재 첫 기자회견서 포워드 가이드런스 공개
"경제 탈출속도 못미쳐..7% 머물면 QE 확대할수도"

영란은행은 "실업률이 7%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0.5%인 현재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이 시점까지 그동안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실업률이 계속 7%를 웃돌면서 추가적인 통화부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산매입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란은행은 향후 3년간은 실업률이 7%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가이드언스를 통해 적어도 오는 2015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급락에 당황하셨어요?'..말 바꾼 마크 카니

입력시간 | 2014.02.13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실업률과 금리 인상 시기를 연계해 선제 안내(포워드가이드)를 했던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이를 포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카니 총재가 내년 총선 전까지 실업률과 상관없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선제 안내 원조격인 카니 총재가 말을 바꾸게 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지난해 금리 인상 검토 시기를 실업률 6.5%로 못박았다. 올 1월 미국의 실업률은 6.6%다.

인용: 이데일리, 서울경제

공지 물린 선진국 중앙은행

점점 커지는 포워드 가이드언스 회의론
기준금리 인상 전제조건... 실업률-인플레이션만 집중
"현실과 동떨어져" 비판 커져

입력시간 : 2014.02.13 17:34:49 **서울경제** 경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공지에 물리고 있다. 이들 중앙은행이 최근 수년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했던 포워드 가이드언스(선제 안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실업률은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목표치에 거의 도달한 상태다. 따라서 실업률만 본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일관되지만 경기확장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인플레이션도 잠잠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은행들은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초 스웨덴 피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부의장이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등이 주도한 장기간의 초저금리 정책 예고에 대해 "연준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너무 정확히 예측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누구나 모르는 일"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

대신 그는 기업 체감경기, 노동시간 등 앞으로 연준의 정책의 실효를 측정할 수 있는 18개 지표를 금리인상의 새 잣대로 제시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해 기준금리의 포워드 가이드언스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문제는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자주 고쳐치가는 시장과의 소통이 복잡해지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추락하면서 시장 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권 현실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1일 옐런 의장 청문회에서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계속 소신해 쓰면 금융시장에 불안감과 불확실성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부 판결을 오랫동안 미뤄왔던 독일 헌법재판소는 최근 OMT에는 반대하지만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그 몫을 떠넘기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또 시간을 벌어나가고 있다([그림 3] 참조).

지난 2월 1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연준(Fed) 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통해 ‘버냉키의 아바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즉, 미국 경제가 미미하나마 꾸준히 개선 중이라는 경기 판단을 내리면서 이미 결정된 ‘양적 완화 축소(QE tapering)’는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자산)시장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계적으로 매달 100억 달러씩 자산매입 규모 축소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드라기 총재가 신흥국 위기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립 서비스 차원의 언급이라도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옐런은 이머징 시장의 최근 동요가 위협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해 이머징 위기가 실제로 ‘찾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임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이머징 위기로 인해 미 국채수익률이 하향안정세를 구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의심도 자극하였다. 연준의 정책 스탠스에 매우 정통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존 힐센라스 기자의 전망이기도 하지만, 필자 또한 연준의 ‘QE tapering’은 금년 연말에 가면 종료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그림 4] 참조).

중앙은행 중의 중앙은행이라 할 영란은행(BOE)의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선제적 지침 정도로 풀이할 수 있는 ‘포워드 가이드스(forward guidance)’의 원조로 인식되는 마크 카니(Mark Carney) 총재가 요즘 곤경에 처했다. 그는 작년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제시한 포워드 가이드스를 통해 영국의 실업률이 7%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금리인상은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9~11월의 실업률이 이미 7.1%까지 떨어지고, 이코노미스트들은 해를 넘기는 와중에 이미 영국의 실업률이 7% 아래로 내려섰을 것으로 전망하는 지경에 이르자 그는 적어도 내년 총선 전까지는 실업률과 무관하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앞서 무려 18가지에 달하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사결정에 나설 것이라고 하였다. 포워드 가이드스의 무력화를 넘어 사망 선고라 할 수 있는 데에다 카니의 선언은 심하게 표현하면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지는 우리도 모르고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시장은 전망하여 들지 마라. 따라서 금리 오를까봐 주식 시장에서 빠져 나오는 행위도 자제해라”에 해당한다([그림 5] 참조). 바야흐로 중앙은행들이 시장을 개처럼 질질 끌고 가는지, 중앙은행들이 시장의 위협에 번번이 굴복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 환율 전망

■ 120일선이 이름값을 한 2월

美 연준이 마침내 'QE tapering'에 착수,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가기 시작한 데에 이머징 시장은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자본유출 조짐이 나타나며 주가 및 통화가치의 급락이 연출되는 등 2014년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 동안 익숙해져 있는 추세(trend)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아래 [그림 6]에서 보듯이 뉴욕증시의 대표 지수인 S&P500이 작년 이른바 'Taper on/off' 장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강력한 반등에 나서며 한 숨 돌리는 중이다. 달러/엔(USD/JPY) 환율이나 유로/엔(EUR/JPY) 환율에서도 120일선의 위력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아직은 단기 급락 이후의 기술적 반등(dead cat bounce)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림 6. 뉴욕증시 및 달러/엔, 유로/엔 일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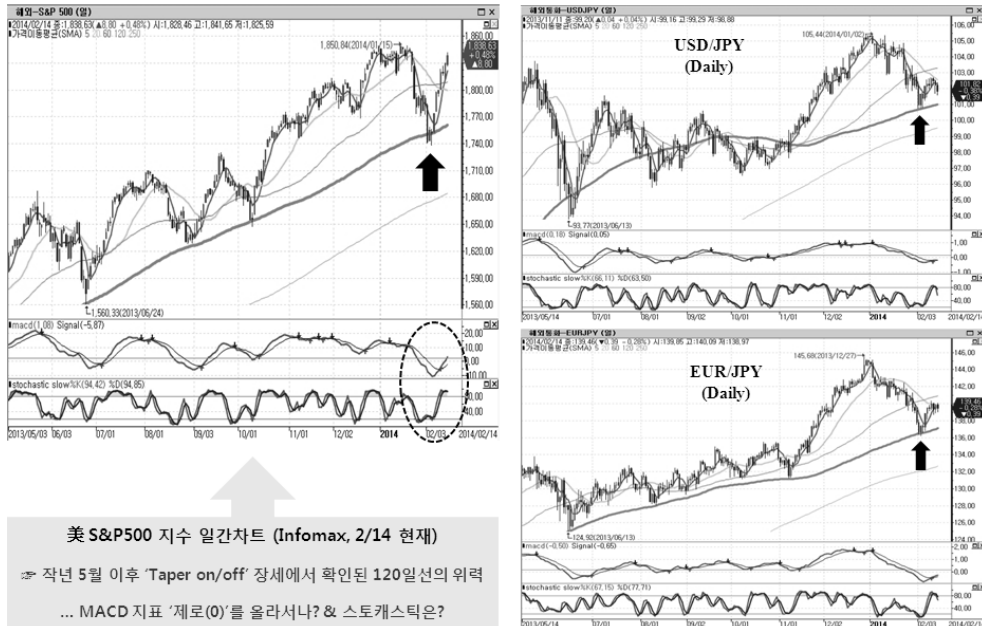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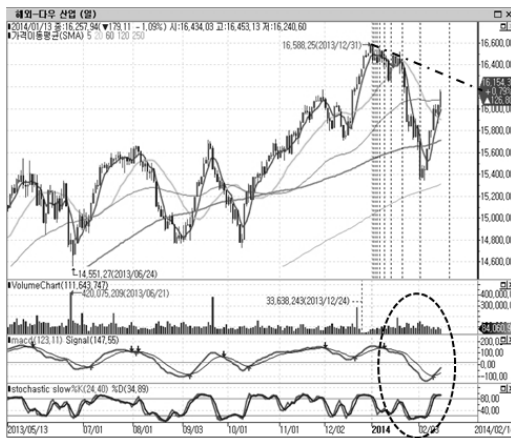
차트 인용: Infomax, 2월 14일 현재

■ 증시는 계속 달릴 수 있을 것인가?

국내외 증시는 연초 급락을 ‘기술적 조정’ 정도로 수습하고 다시 상승 랠리를 재개할 수 있을까? 이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빠지면 환율이 오른다는 경험칙에 비추어보더라도 환율 전망에 앞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미국의 금융시장 전문 매체 마켓워치(Market Watch)에서 인용한 [그림 7]의 오른쪽 그래프는 섬뜩하다. 1928~1929년 대공황 직전의 다우지수 움직임과 최근 2012년 하반기 이후의 다우지수 흐름이 너무나 흡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한 번 웃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 잔인할 정도로 역사가 반복된다면 2월 하순 국내외 증시는(그 이유는 무엇이든, 혹은 뚜렷한 시장 모멘텀 없이도) 자칫 피바다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저런 그림이 널리 회자됨으로써 시장이 미리 백신(vaccine) 주사를 맞는다고도 볼 수 있어 지나친 걱정엔 기초한 투자 의사결정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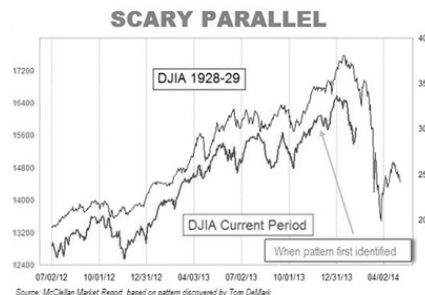
그림 7. 대공황 이전 랠리를 떠올리게 하는 최근 다우지수 추이



다우존스지수(DJIA) 일간 일목균형표 (Infomax, 2/14 현재)

2월 하순 번복점에 주목 ...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MARK HULBERT Archives | Email alerts
Feb. 11, 2014, 6:30 a.m. EST
Scary 1929 market chart gains traction
Opinion: If market follows the same script, trouble lies directly ahead



Industrial Production					
Released On 2/14/2014 9:15:00 AM For Dec, 2013					
	Prior	Prior Revised	Consensus	Consensus Range	Actual
Production - MM change	0.3 %		0.3 %	0.0 % to 0.6 %	-0.3 %
Capacity Utilization Rate - Level	79.2 %	78.9 %	79.3 %	79.1 % to 79.6 %	78.5 %
Manufacturing - MM	0.4 %	0.3 %	0.1 %	-0.2 % to 0.3 %	-0.8 %

Retail Sales					
Released On 2/13/2014 8:30:00 AM For Jan, 2014					
	Prior	Prior Revised	Consensus	Consensus Range	Actual
Retail Sales - MM change	0.2 %	0.1 %	0.1 %	-0.2 % to 0.4 %	-0.4 %
Retail Sales less autos - MM change	0.7 %	0.3 %	0.1 %	-0.2 % to 0.4 %	0.0 %
Less Autos & Gas - MM Change	0.6 %	0.1 %	0.2 %	0.0 % to 0.3 %	-0.2 %

인용: Infomax(다우지수 차트), 마켓워치, Econoday(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

그림 8. 코스피(KOSPI) 일간 추이 & 투자자별 매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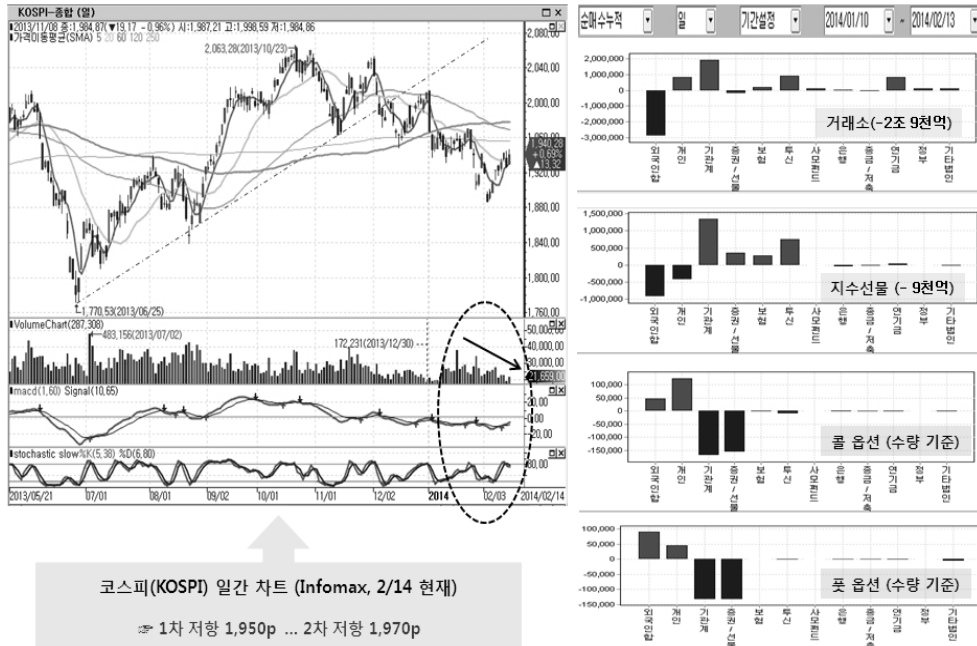


차트 및 그래픽 인용: Infomax, NH농협선물

국내 증시의 지지부진함은 여전하다. S&P500 지수는 120일선의 지지력이라도 기댈 수 있었지만 코스피(KOSPI)는 이제 120일선이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으로 자리 잡은 형국이다. 1월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 2월 만기일 사이의 투자자 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의 현·선물 순매도 공세는 여전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기에서 한국 증시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파생시장 인프라의 발달’이 오히려 주가상승에 족쇄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급등이나 급락을 전망하여 주가(지수) 변동성의 확대에 베풀한 개인투자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시장 내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여전한 ‘시장 변동성 죽이기’도 확인된다.

기술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향후 반등 시도도 1차적으로는 1,950p(주간 일평균 형표 상의 전환선 및 기준선 저항)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고, 이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2,000 포인트 회복에 앞서 다시 1,970p 근처의 매물대를 소화해 내야 한다. 앞서 살핀 뉴욕증시도 2월말~3월초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최근 경제지표들도 편안한 증시의 랠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염두에 뒀야 하겠다.

■ 환율하락을 추세 재개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해

앞서 달러인덱스로 표현되는 글로벌 달러시세는 다소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지만 아직 달러약세가 추세로 굳어졌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설령 선진국 통화로 구성된 달러인덱스가 하락세로 흐른다 하더라도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판국에 이머징 시장의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국내외 증시 공히 작년 말까지 보여준 도도한 상승추세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와중에 달러/원(USD/KRW) 환율의 최근 하락세에 압도되어 재차 1,050원 아래까지 내다보는 원화강세 베팅은 아직 성급해 보인다.

엔/원(JPY/KRW) 재정환율의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보다 더 하방경직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노믹스(Abenomics)’가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힘이 빠지는 분위기인 데에다 전통적으로 2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3월 결산을 앞둔 일본 기업들의 해외 영업 및 투자에 따른 과실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본국송금(repatriation)’ 수요’로 인해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1,050원, 엔/원 환율의 경우 (100엔 당) 1,020원이 무너지기 힘들어 보인다면 저점매수(Buy on dips)의 기회를 노려야 할 때라 판단된다.

그림 9. 달러/원(USD/KRW) & 엔/원(JPY/KRW) 일간 추이



차트 인용: Infomax (2월 14일 현재)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박환일(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014년 1월 원자재시장은 전월에 나타났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약세로 전환되었다.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변수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속도와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전반적으로 거시경제불안이 시장을 압박했지만, 선진국의 경기회복 기대로 하락압력을 어느정도 상쇄하고 있는 형국이다. 천연가스를 제외한 에너지와 곡물은 하향안정세, 비철금속 및 금은 강세를 나타냈다. 1월의 에탄올 시장은 미국에 몰아치고 있는 한파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다. 철도수송차질로 인한 재고량 감소 이슈와 강추위로 인한 가솔린 및 에탄올 소비감소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여 에탄올 가격은 약세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한파의 지속여부와 이로 인한 에탄올 재고량 증감 추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 원자재시장 동향

■ 원자재지수 월간 동향

2014년 1월 평균 원자재지수는 전월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CRB지수(CRB Index)는 278.7을 기록하여 전월 280.4에 비해 0.6%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6.7% 하락했다.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는 617.2로서 전월 631.1보다 2.2%, 전년 동기 658.1보다 6.2% 낮은 상태를 나타냈다.

* hwaniipark@gmail.com, 02-3780-8220

표 1. 원자재지수의 월간변화 비교

구분	2013.1	2013.12	2014.1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CRB Index	298.6	280.4	278.7	-6.7	-0.6
S&P GSCI	658.1	631.1	617.2	-6.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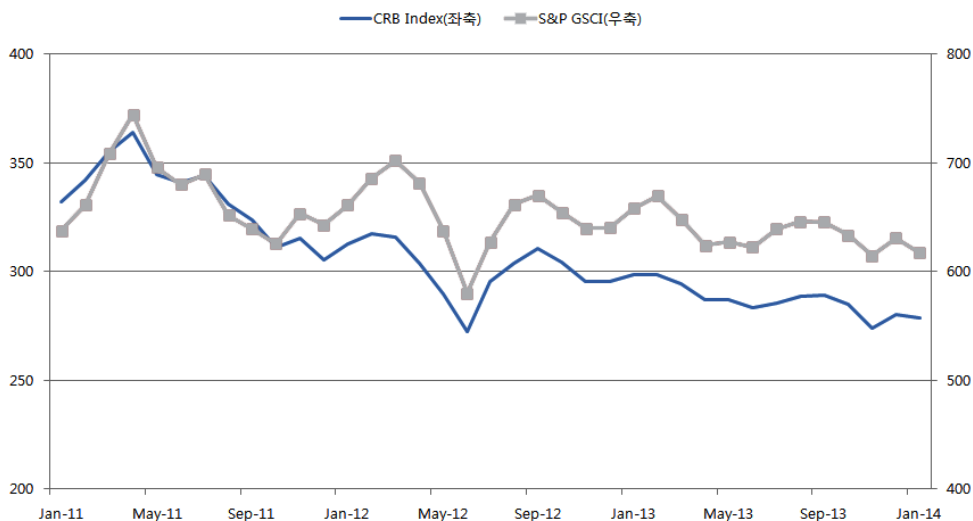
주: 변화율은 2014년 1월 평균지수의 전년동기(2013년 1월)와 전월(2013년 12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2013년 12월에는 전월대비 상승을 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흐름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했지만 2014년 들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하락추세가 2014년에도 지속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림1에서 보는바와 같이 CRB Index와 S&P GSCI 월간평균 모두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부근에 접근하고 있다. 2012년 6월에 CRB Index는 272.3, GSCI는 579.93을 기록하며 단기저점을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저점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최근 저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RB Index는 270 부근, GSCI는 600무렵이 지지가 되는 수준으로 보인다.

2014년 1월 원자재시장은 수급상에 주목할 만한 여건변화는 없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규모와 이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원자재시장에 불확실성을 나

그림 1. 원자재지수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신흥국에서의 자금이탈과 경제불안이 확대되면 원자재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한국 등 선진 신흥국의 펀더멘털이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어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자재시장의 강한 하락보다는 바닥다지기 또는 완만한 상승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

2013년 12월 크게 상승했던 WTI원유와 브렌트 등 원유는 2014년 1월에는 약세로 반전되었다. WTI원유는 1월 평균 94.9달러/배럴로 전월에 비해 3.1% 하락,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브렌트유는 107.1달러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3.4% 하락했다. 반면 천연가스는 2013년 12월에 전월대비 17%의 급등을 했는데 2014년 1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평균 4.55달러/백만BTU로 전월에 비해 6.3%, 전년 동기보다는 35.8%의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천연가스의 현 가격범위는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속상승여부가 주목된다.

2014년 1월 원유수급 측면에서는 리비아의 생산재개로 공급차질이 다소 해결되었고 동시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원유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미국의 원유재고는 전월보다 5.9% 감소하여 유가 상승요인이 되었지만 미국내 정제유 재고가 5.7% 증가하면서 오히려 원유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미국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이 개통되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병목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WTI원유의 수요는 증가하고, 두바이유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난방원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동북부 지역의 폭설과 한파가 계속되면서 재고가 급감하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최근 미국내 천연가스 재고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작아졌는데 추위로 인한 수요증가와 동시에 선물시장에 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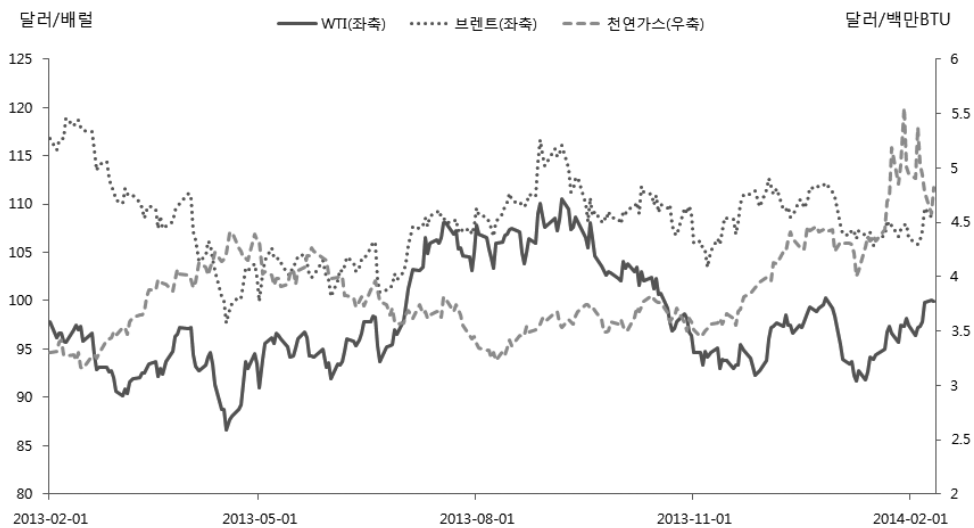
표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1	2013.12	2014.1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WTI원유	94.8	97.9	94.9	0.0	-3.1
브렌트유	112.3	110.8	107.1	-4.7	-3.4
천연가스	3.35	4.28	4.55	35.8	6.3

주: WTI원유, 브렌트유는 달러/배럴, 천연가스는 달러/백만BTU; 변화율은 2014년 1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월)와 전월(2013년 12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농축산물

곡물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1월 옥수수는 427.2센트/부셸을 기록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40%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대두는 1,293센트/부셸로 전월에 비해 2.8% 하락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8.9% 낮은 수준이다. 생육우는 139.3센트/파운드로 전월보다 4.3% 상승했고 지난달에 이어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표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1	2013.12	2014.1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옥수수	714.7	427.7	427.2	-40.2	-0.1
대두	1,419	1,330	1,293	-8.9	-2.8
생육우	131.1	133.5	139.3	6.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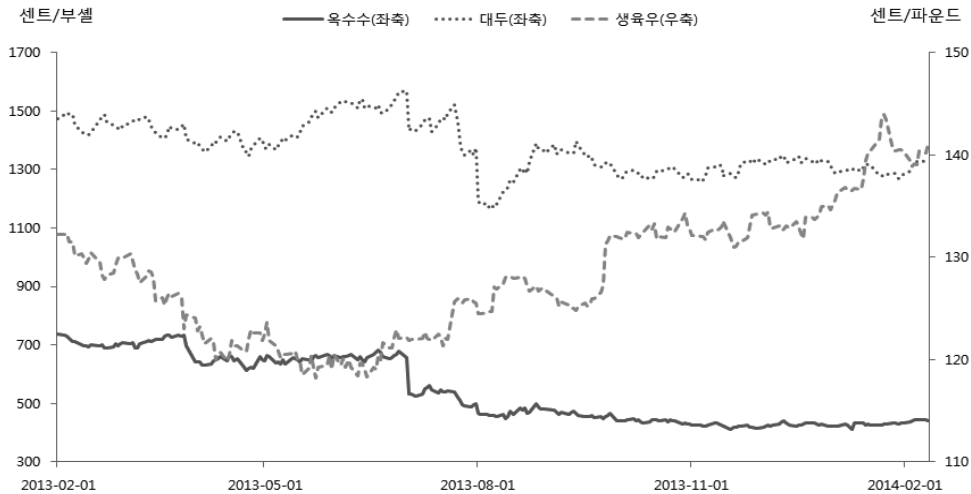
주: 옥수수, 대두는 센트/부셸, 생육우는 센트/파운드: 변화율은 2014년 1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월)와 전월(2013년 12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국제곡물시장은 수급 측면의 변수가 부재한 가운데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한파와 폭설, 남미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 유럽지역의 이상고온 등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므로 곡물수확기에 커다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2월 중국의 미국산 미인가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거부에 이어 1월에도 수입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이 2014년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 가격측면에서는 가격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곡물가격이 한계생산비 부근까지 근접하였고 추가적인 가격하락보다는 가격상승을 예상하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 투기매수포지션이 1월중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6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생육우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월 23일에는 종가 143.9센트/파운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 송아지 공급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한파가 지속되면서 쇠고기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 가격급등으로 과매수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으로 추가상승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비철금속 및 귀금속

약세를 보였던 에너지, 곡물과 달리 비철금속 및 귀금속시장은 강세를 나타냈다. 알루미늄은 2014년 1월 1,939달러/톤으로 전월에 비해 3.2% 상승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1.4% 낮은 수준이다. 구리 1월 가격은 7,198달러/톤으로 전월에 비해 약간 상승했으며 1년 전 보다 11.9% 하락했다. 금은 1,244달러/온스를 기록하여 전월보다 1.6% 상승했는데 이는 201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만에 월 평균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12일부터 니켈 및 보크사이트 등 광물 수출을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비철금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금년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중국 2013년 4분기 GDP 성장률 7.7%로 전 분기(7.8%) 대비 하락하였고 산업생산, 제조업 지수 모두 부진하게 나타났다. 향후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여부, 신흥국 불안확산 등 리스크의 추이에 따라 비철금속 시장의 하락압력이 증가될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수요부진, 거시경제 불안 등 요인은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시장을 압박하지만 공급측면에서는 공급량 정체 또는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알루미늄 감산, 구

리 투자정체 등으로 2013년에 나타났던 초과공급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 시장은 비록 약세에서 벗어났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적완화 축소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며 금시장 투자심리는 약화되고 있지만, 다만 신흥국 위기가 확산된다면 전 세계적인 금리상승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금 가격이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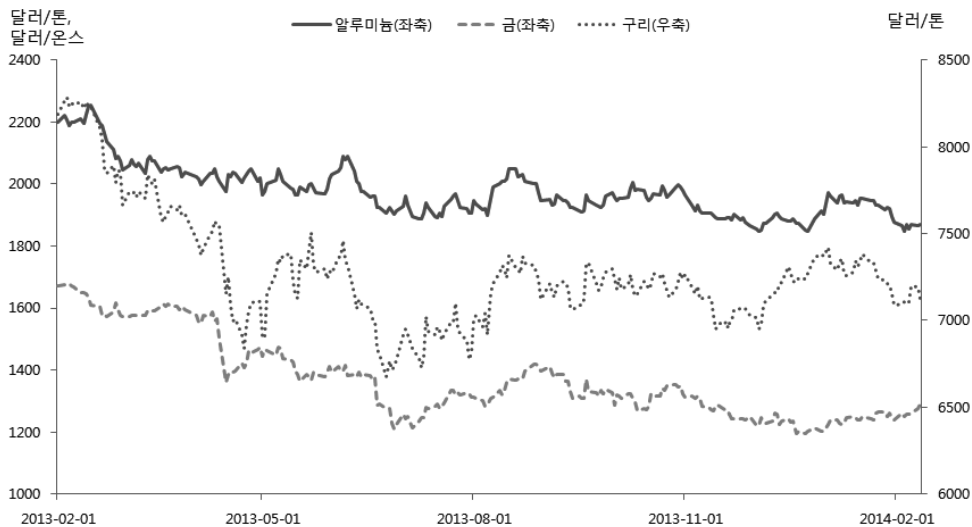
표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1	2013.12	2014.1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알루미늄	2,188	1,879	1,939	-11.4	3.2
구리	8,167	7,160	7,198	-11.9	0.5
금	1,671	1,224	1,244	-25.6	1.6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변화율은 2014년 1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월)와 전월(2013년 12월) 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자료: KoreaPDS

2. 에탄올시장 동향

■ 미국의 한파가 미치는 영향을 주목

미국 에탄올 시장은 2014년 들어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11월 급락한 이후 갤런당 180~200센트 범위에서 머물러있다. 2014년 2월 1주 기준 에탄올 가격은 189.7센트/갤런으로 1개월 전보다 1.9%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21.9% 하락했다.

표 5. 에탄올 주간 평균가격변화 비교

	2013.2.4	2014.1.6	2014.2.3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에탄올	243.0	193.4	189.7	-21.9	-1.9

주: 에탄올은 센트/갤런; 변화율은 2014년 2월1주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2월1주)와 전월(2014년 1월1주)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1월 초중반에 폴라 보텍스(Polar Votex)로 인해 미국전역에 강추위가 지속되자 철도수송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물류지연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 에탄올 공장의 89%가 중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은 철도를 이용한다. 이로 인해 에탄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1월 10일 기준 에탄올 생산량은 87만 배럴/일로서 1주전보다 5만 배럴이 감소했고, 이후 90만 배럴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2013년 12월까지 기록했던 91만 배럴에는 못 미치고 있다.

에탄올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강세로 돌아섰지만 그 추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있다. 1월 초중반 가격이 갤런당 190센트 이상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180센트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약세 전환은 강추위로 미국 소비자들의 외출과 운전량이 줄어들면서 가솔린 소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10일, 17일 기준 가솔린 소비량은 하루 800만 배럴을 겨우 넘는 수준까지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에탄올 소비량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2014년 1월 17일 기준 에탄올 재고량은 1,700만 배럴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1주 전 재고량 1,610만 배럴보다 90만 배럴이 증가한 수치이며 11월말에 비해서는 약 200만 배럴이 늘었다.

현재 미국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한파는 물류이슈로 인한 에탄올 가격 상승과 소비감소로 인한 에탄올 가격하락이라는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면 에탄올 수송차질이 발생하여 에탄올 생산 감소와 재고량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이 올지, 또는 가솔린 및 에탄올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이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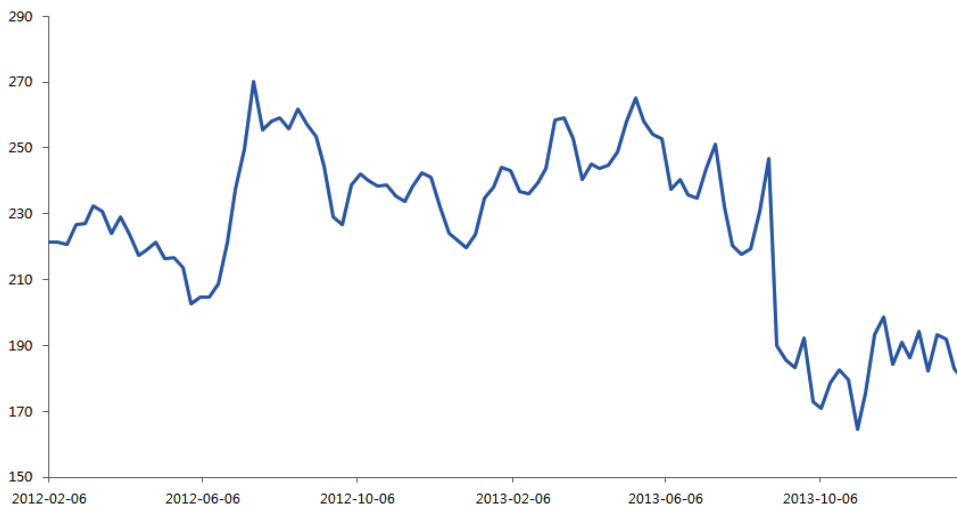
표 6.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주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에탄올 재고량 (백만 배럴)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옥수수 소비량 (백만 부셀)
2013/10/25	911	15.0	9,054	13.8
2013/11/29	913	15.1	8,873	13.8
2013/12/27	913	15.6	8,893	13.8
2014/1/3	919	16.1	8,274	13.9
2014/1/10	868	16.1	8,021	13.2
2014/1/17	905	17.0	8,059	13.7
2014/1/24	900	16.9	8,584	13.6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그림 5. 미국 CME 에탄올 주간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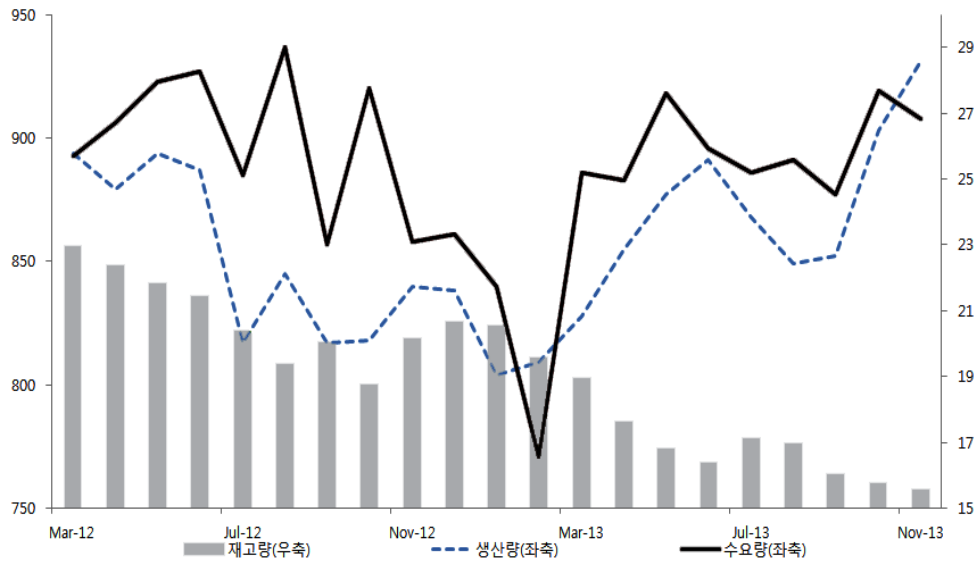
단위: 센트/갤런



자료: KoreaPDS

그림 6. 미국 월별 에탄올 수급 및 재고량 추이

단위: 생산량 및 수요량: 천 배럴/일, 재고량: 백만 배럴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정영두(캠코선박운용 차장)*

1.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개관)

표 1.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Wheat+Coarse Grain (a)	240	246	254	274	266	272
Soybean (b)	81	97	91	96	103	110
Total (a+b)	321	343	345	370	369	382
전년 대비 증감률(%)	0.6	6.4	0.6	6.8	-0.3	3.4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AN, 2014.

금년 1월 ‘Clarkson’에서 발간한 ‘Dry Bulk Trade Outlook’에 따르면 금년 대두(Soybean)를 포함한 곡물 물동량은 총 ‘382 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전체 건화물선 물동량인 약 4.4억 톤의 8.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다른 화물에 비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해운 시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Clarkson’은 2013/14 시즌 곡물 물동량 증가분이 곡물 55,000톤을 선적할 수 있는 Panamax 선박 49척의 증가분에 해당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 중 아시아 지역의 곡물 증가분이 45척에 해당하며 곡물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ydjung@kamcosimc.com, 02-2189-5512.

■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수입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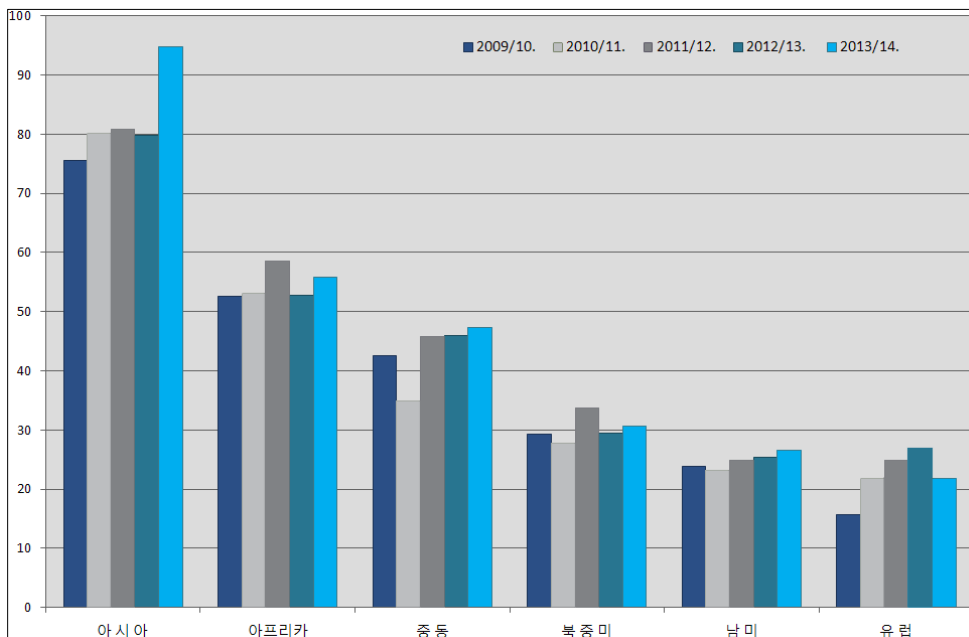
표 2.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전 기간 대비 증감률(%)
세 계	240	243	270	261	277	6.1
유 럽	15.7	21.8	24.8	26.9	21.8	-19.0
아 시 아	75.5	80.2	80.9	79.9	94.8	18.6
중 동	42.5	34.9	45.7	45.9	47.3	3.1
남 미	23.9	23.1	24.8	25.3	26.6	5.1
북 중 미	29.2	27.7	33.7	29.5	30.7	4.1
아프리카	52.6	53.1	58.6	52.8	55.8	5.7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AN, 2014.

그림 1.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AN, 2014.

대두를 제외한 대륙별 곡물 수입량 추이를 보면 2013년 7월~2014년 6월 기간 (이하 2013/14 시즌) 동안 유럽 지역의 곡물 수입량이 전 기간 대비 19% 가량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은 증가율이 18.6%에 이를 전

망이며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들은 3~5%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14 시즌 일본의 곡물 수입량이 '24.0 백만 톤'으로 세계 1위 수입국의 위치를 고수하는 가운데 중국의 수입량이 전 시즌 대비 111% 증가한 '19.2 백만 톤'으로 예상, 세계 2위의 곡물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향후 수 년 내에 세계 1위 곡물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와 알제리의 곡물 수입량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의 수입량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수출국 기준)

표 3. 주요 국가별 소맥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전 기간 대비 증감률 (%)
세 계	128.1	125.7	144.8	138.5	142.3	2.7
미 국	23.9	35.7	27.9	28.1	30.0	6.8
유 럽	20.8	22.1	15.6	21.0	23.5	11.9
캐 나 다	18.2	16.3	18.2	18.8	21.0	11.7
호 주	13.7	18.5	23.1	20.0	20.0	0.0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AN, 2014.

주요 국가별 소맥 수출량을 살펴보면 2013/14 시즌 전 세계 소맥 물동량은 전 기간 대비 2.7% 증가한 '142.3 백만 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국별로는 유럽과 캐나다의 증가율이 거의 1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6.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호주 지역의 수출량은 전 시즌과 동일한 '20.0 백만 톤'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주요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전 기간 대비 증감률 (%)
세 계	112.3	117.0	124.8	122.4	134.7	10.0
미 국	55.3	52.0	44.7	23.9	36.4	52.3
아르헨티나	14.9	18.5	20.2	24.4	24.4	0.0
우크라이나	11.7	7.9	16.1	15.1	19.5	29.1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AN, 2014.

주로 사료용 옥수수로 구성된 Coarse Grain 물동량은 2013/14년에 전 기간 대비 10% 가량 증가한 '134.7 백만 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수출량이 전 기간 대비 5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며 사출을 주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수출량 증가 폭도 거의 30%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 기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편 'Clarkson' 자료 기준 금년 대두(Soybean) 물동량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10 백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Panamax 선형에 의해 운송되는 옥수수(Corn)와 대두(Soybean)의 물동량 증가폭이 큰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선형 시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분기별)

표 5.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3년 3분기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Wheat	38.5	29.4	28.7	29.9	35.3	30.4
Coarse Grain	29.4	36.8	30.4	28.7	30.1	37.1
Soy(bean+Meal)	34.1	40.0	30.2	42.2	36.0	37.8
Total	102.0	106.2	89.3	100.8	101.4	1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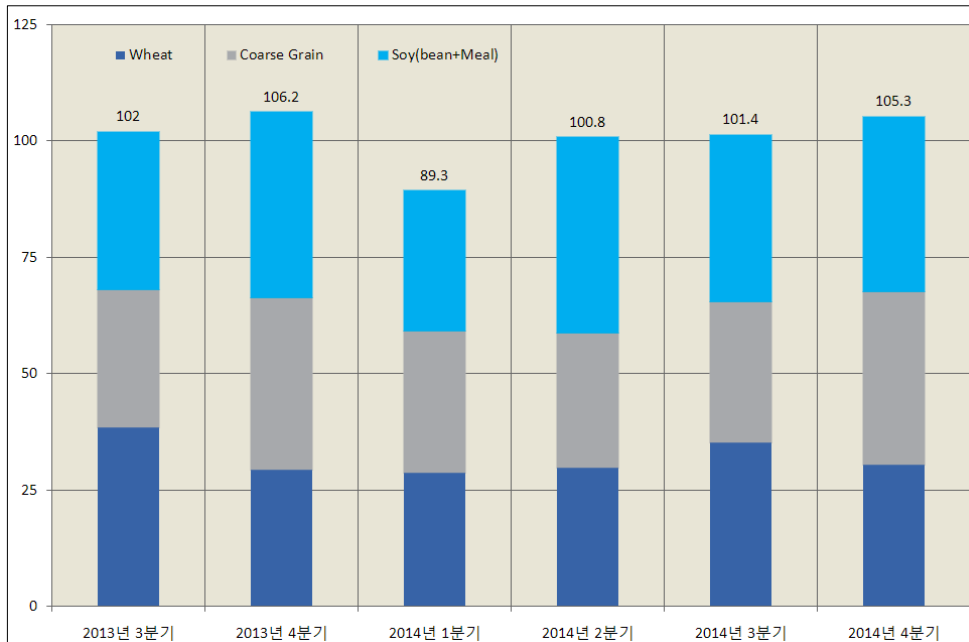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JAN, 2014.

한편 영국의 다른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SSY(Simpton Spence & Young)는 2014년 곡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4.6% 증가한 '238.6 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Clarkson 전망치인 2.2% 증가 대비 높은 수치이다.

분기별 전망치를 보면 금년 1분기 대두와 대두박을 포함한 곡물 물동량이 2013년 4분기 대비 16% 가량 크게 줄어든 '89.3 백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년 3분기부터 늘어나는 미국의 곡물 수출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한편 남미 곡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지 않으며 나타나는 일종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금년 2분기 이후 대두(Soybean)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곡물 물동량은 회복세를 보이며 분기별 수출량이 다시 1억 톤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후 안정적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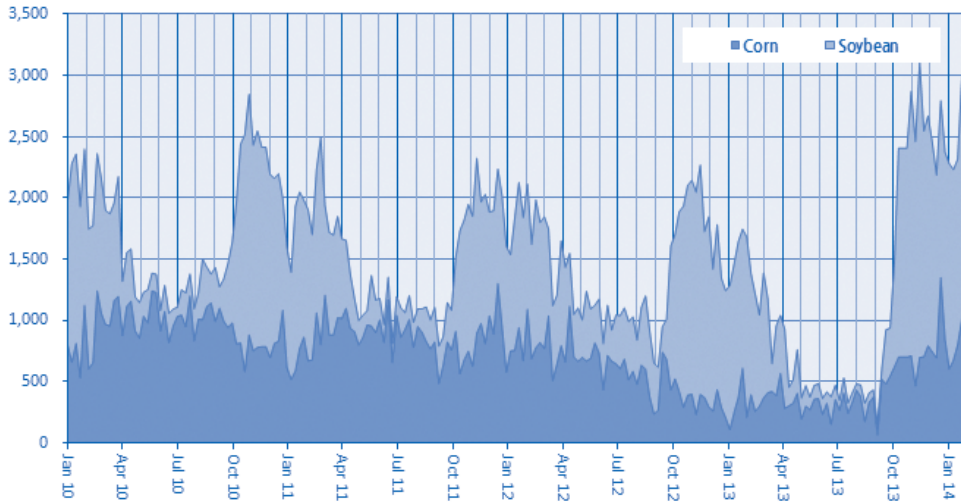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JAN, 2014.

■ 미국 곡물 수출 현황

지난 1월 주간 평균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765,675톤'으로 전월 대비 16% 가량 줄어들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50%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두 수출량의 경우 '1,647,676톤'으로 전월대비 7%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전반적으로 예년 대비 옥수수에 비해 대두 수출량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의 뚜렷한 곡물 수출 증가는 전년 대비 건화물선 시황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3. 미국 주간 대두·옥수수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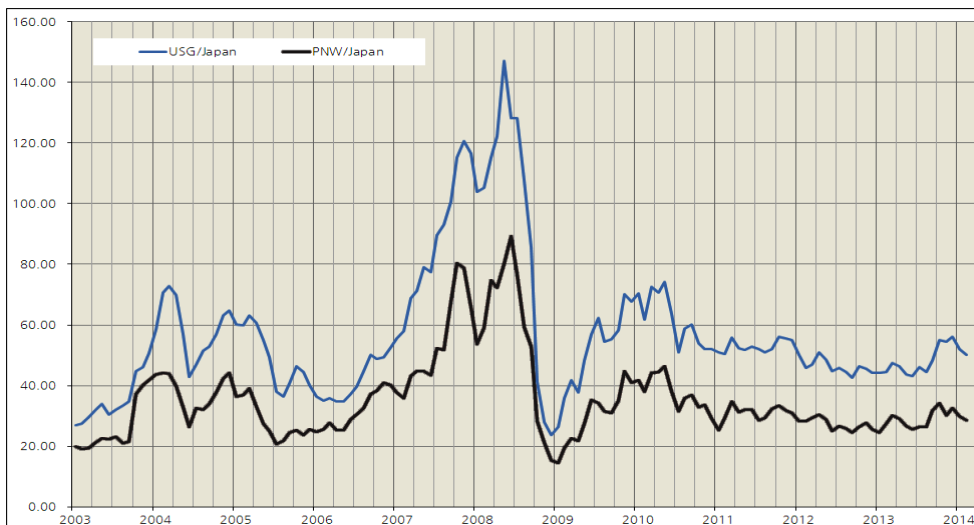


자료: 美 농무부 (USDA)

2.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 곡물 해상운임 추이

그림 4. 최근 10년간 곡물 운임 추이



자료: Tramp Data System

일본의 해운시황 분석 기관인 'TDS(Tramper Data System)' 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 현재 57,000톤 기준 USG/Japan 운임은 전월 대비 톤 당 \$1.90 가량 하락한 '\$50.13'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0 가량 높은 수치이다. 같은 화물 기준 PNW/Japan 운임의 경우 전월 대비 \$1.30 가량 하락한 반면 전년 동기 대비 \$1.10 가량 상승한 톤 당 '\$28.52' 선을 기록하고 있다.

F.F.A(Forward Freight Agreement)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운임의 경우 현재의 운임이 시황 저점에 근접해 있으며 금년 2분기 이후 남미 곡물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공감이 이루어지며 현물 대비 높은 운임이 형성되고 있는데 금년 2분기 USG 운임은 현물 대비 \$10 가량 높은 약 '\$60.84' 수준으로 계상되며 PNW 운임의 경우 \$4 가량 높은 '\$32.69'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표 6. 수역별 · 기간별 곡물 운임 현황

단위: US\$/DAY or US\$/MT

기 간		용선료	USG 운임	PNW 운임
2014년	3월	12,890	59.39	31.87
	4월	14,150	61.36	32.98
	2분기	13,818	60.84	32.69
	3분기	12,785	59.22	31.87
	4분기	14,835	62.42	33.58
2015년		13,800	60.81	32.67
2016년		12,880	59.37	31.86
2017년		11,895	57.84	30.99

자료: Baltic Exchange 'Baltic Forward Assessments' 2014년 2월 13일 종가 기준

대서양과 태평양 수역간의 운임 차이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화물 양하를 마친 많은 선박들이 호주 또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출하는 석탄 등의 화물을 싣지 않고 남미 지역을 향해 공선 항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에서 곡물을 선적하기 위해 접안 대기 중인 Panamax 선박의 수가 60척으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남미 화물이 늘어남에 따라 체선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최근 건화물선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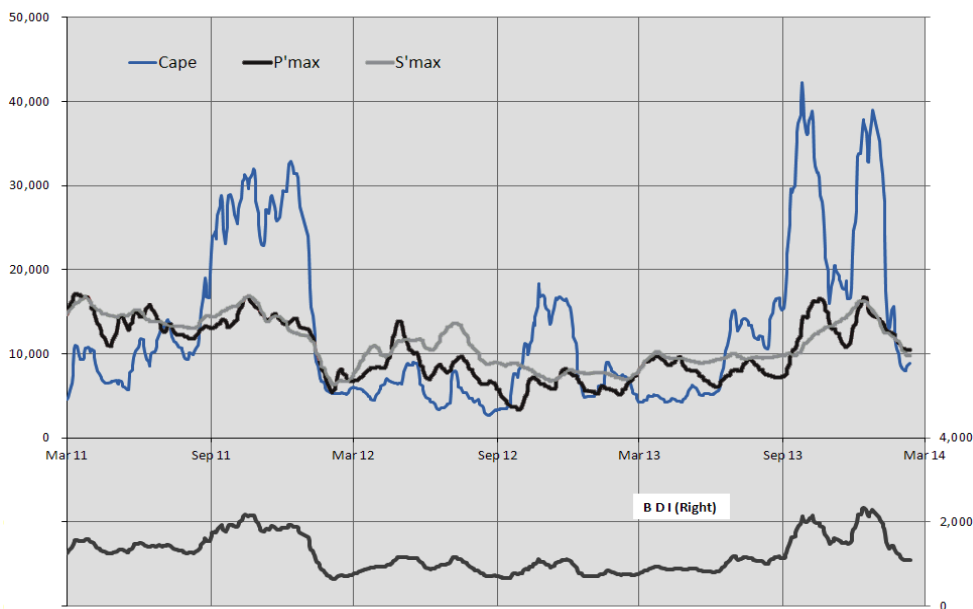
작년 4분기 건화물선 시황이 Cape 선형을 중심으로 두 차례 급등락세를 보인 뒤 금년 들어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하며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현재 약 1,000 포인트 선에 머물러 있다.

특히 Cape 시황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며 동 선형의 용선료가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여 만에 \$10,000 선 아래로 하락하였으며 Panamax 와 Supramax 시황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시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단 중국이 1월 말 춘절 휴일에 들어가며 선박 확보 움직임이 중단되었으며 또한 중국의 철광석 재고량이 거의 1억 톤에 달하며 수입 움직임이 제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Cape 시황이 거의 저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며 기간용선 확보 움직임이 증가하는 한편 선물 시장 또한 상승 움직임을 보이며 투기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 향후 시황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철광석 재고 소진 시 봄철 중국의 건설 경기 회복 등과 맞물리며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5. 최근 선형별 용선료 및 건화물선 운임 지수 변동 추이



자료: Baltic Exchange

■ 곡물 해상운임 전망

금년 건화물선 시황은 1분기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해운 시황 분석 기관들이 건화물선 공급에 비해 수요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시황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RS Platou'는 최근 발표한 시황 전망 보고서에서 금년 건화물선 수요가 8.1% 증가하는 한편 공급은 5.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초 시황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으나 중국의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자국 내 저품질 광물 사용을 줄이게 되면서 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 내 재고가 줄어들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시황이 작년 4분기처럼 다시 한 번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광물을 운송하는 Cape 시황의 상승 폭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곡물을 운송하는 Panamax 나 Supramax 시황은 비교적 상승 압력이 적게 나타나겠지만 Cape 시황이 크게 오를 경우 선형간의 시황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며 곡물 운임 또한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금년 곡물 운임은 현재 운임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범위인 USG 운임이 약 '\$60'과 PNW 운임이 '\$32'정도로 예상되며 분기별로는 2분기 남미 곡물 증가 등의 원인으로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년에는 대형선을 중심으로 시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 시황 저점으로 보이는 시점에 일정 화물의 COA(장기 운임 계약) 또는 선물 시장에서의 운임 헷징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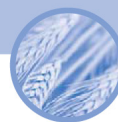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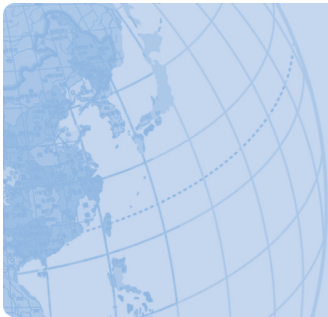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2014 World Grain Market



아시아 지역의 쌀 정책 / 69

농업직접지불제 / 96



아시아 지역의 쌀 정책

임송수(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GRiSP(2013)에 따르면 쌀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곡물이다.¹⁾ 세계 인구의 절반이 쌀을 소비하고 있으며, 쌀은 1인당 칼로리 공급량의 25%를 차지한다. 약 81개 국가에서 주로 1ha 미만인 1억 4,400만 농가가 재배하는 쌀은 단일 작목 기준으로 농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용과 소득원이다.

지형과 환경적 특성아래 쌀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로 이어져 왔다.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아시아 지역이 77kg으로 아메리카 20kg, 아프리카 21kg, 유럽 5kg에 견주어 단연 으뜸이다. 쌀이 아시아 사람들의 총 칼로리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 정도인데 반해 다른 대륙의 경우 그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한다. 2010년 기준의 쌀 재배면적도 아시아가 1억 4,232만 ha를 기록해 세계 전체 쌀 재배면적의 90% 가량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생산량 비중도 91%로 절대적으로 높다.

이처럼 쌀은 아시아 지역에서 농가와 농촌경제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가격 및 소득정책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이 글은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가 2012년에 발간한 “아시아의 쌀 정책 핸드북(Handbook on Rice Policy for Asia)”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하고 정리한

* songsooc@gmail.com, 02-3290-3033.

1) Global Rice Science Partnership. 2013. Rice Almanac, 4th edition, Los Banos (Philippines):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http://irri.org/resources/publications/books/item/rice-almanac>>

것이다.²⁾ 1960년도 설립된 IRRI는 기아와 빈곤 타파, 쌀 농가와 소비자의 건강 증진, 쌀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등을 목표로 농업연구와 지도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IRRI는 또한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빈곤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www.cgiar.org)이 지원하는 18개 비영리 국제 연구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IRRI의 연구 활동은 CGIAR 회원의 기부에 의해 지원된다. 예를 들면,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FAO, 세계은행(World Bank),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재단 및 단체 등로부터이다. 여러 국가 회원들도 기부하고 있는데, 한국은 연구소 예산의 1.8%를 기부하고 있다.

이 핸드북의 특징은 아시아 지역에서 쌀을 생산하는 지역의 쌀 정책에 관해 간결하고 국가 간 비교 가능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이 요약하고 있듯이,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쌀을 주곡으로 삼고 있으므로 쌀을 중심으로한 식량안보를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강조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의 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서로 비슷한 국내 및 무역정책을 시행해 왔다.

주요 지역 및 국가별로 이러한 쌀 정책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중엔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중단립종(Japonica) 쌀을 주로 수입한다. 이 지역에 속한 국가 중 중국만이 순수출국이다. 다만 최근에 한국이 정곡미를 호주와 미국에 수출한 적이 있다. 중국은 쌀을 수입하기도 한다. 특히 태국으로부터 홈말리(Hom Mali)라는 향미 품종을 수입한다. 이 쌀은 고급 호텔이나 부유한 해안 도시의 식당에서 소비된다. 일본과 홍콩 및 대만은 순수입국들이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곡기준으로 연간 68만 톤가량이다.

2) 이 책자는 IRRI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irri.org/resources/publications/books/item/handbook-on-rice-policy-for-asia>. 출처를 밝히면 자유롭게 인용 및 배포가 가능하다.

■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주로 품질이 낮은 쌀을 코트디부아르, 인도네시아, 쿠바, 러시아, 일본, 남한, 북한 등에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안정된 쌀 공급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 국내 수요의 급증으로 중국 정부는 가격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공급을 보장하려고 무역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2004년 이후 중국은 농가에 보조를 지급하고 농업 조세를 면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업 조세는 협동조합, 기업, 농민, 그리고 중국 내의 농업 생산에 종사하며 농업 소득을 받는 개인들에게 적용되었다. 2011년 현재 농업부문 예산은 9,880억 위엔(약 1억 5,500만 달러)이다. 이 가운데 15%는 곡물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과, 농자재, 종자, 농기계 등의 농자재 구입 보조로 배분된다.

중국의 주요 정책들과 이행된 쌀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고, 그 요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2015년까지 동북부 지역과 양쯔(Yangtze)강 중부와 남부 지역의 단작생산체계를 기계화하는 일이다. 기계화 작업의 목표는 모심기의 경우 45%이고 수확단계는 85%이다.
- 2015년까지 최소 5억 4,000만 톤의 연간 곡물 생산량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1억 2,100만 ha의 농지를 보존한다.
- 생산을 촉진하는 일환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 농기계 보조를 지급한다.
- 농가는 최대 7,720-30,879달러의 한도 안에서 보조와 농기계 값의 30% 할인을 제공 받는다.
- 우수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ha 당 22~33달러의 보조를 받는다. 농업협동조합부(Agriculture and Cooperatives Ministry)는 자본 비용에 기초하여 적당한 쌀 가격을 설정하고 적절한 농가 수익을 설정해 왔으며, 신속히 쌀 가격 보장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등록을 완료하였다.
- 조생종 장립종(Indica)과 중단립종(Japonica) 쌀에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조는

각각 톤당 311달러와 390달러이다. 이 가격 보조제도는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내몽골, 산둥성, 허베이성, 허난성, 안후이성, 강소성, 산시성, 후난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 13개 주요 곡물생산 지역에만 적용된다. 이 지역들은 중국의 총 곡물공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가격보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곡물 생산을 고무하기 위해 최저가격 조치를 설정하였다.

- 중생종과 만생종 인디카 품종에 대한 가격지지는 톤당 326 달러이다.
- 쌀 수출은 2개의 국영무역업체, 곧 곡물비축공사(China Grain Reserves Corporation: Sinograin)와 국립곡물유류식품수출입공사(China National Cereals, Oils, and Foodstuffs Import and Export Cooperation: COFCO)이 독점한다. Sinograin은 쌀과 콩을 수출하고, COFCO는 주요 곡물 무역을 담당한다. 중국은 주로 중하급 품질의 쌀을 수출한다. COFCO는 쌀 수출을 관리하고 수입에 대한 독점권도 행사한다. 이들은 쌀 수입권(permit)의 50%를 차지한다.
-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양허사항은 65%였던 쌀 수입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었다. 국내 쌀 생산자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96년에 쌀에 대한 곡물 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 제도를 이행하였다. 쌀 킬터 530톤은 민간기업과 공사에 50%씩 배분되었다.

표 1. 중국의 쌀 관련 정책: 2011년 기준

정책	주요 내용
생산 정책	
농기계 보조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 30%의 할인을 제공하되, 보조 상한은 7,720~30,879 달러임.
투입재 보조	우수한 쌀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ha 당 22~33 달러의 보조를 제공함.
가격보조	조생종 장립종(Indica)에 대해 kg 당 0.31 달러, 중생종과 만생 종은 0.33 달러, 중단립종(Japonica)은 0.39 달러의 보조를 제공함.
수출 정책	
국영무역	국영무역업체에 쌀 수입킬터의 50%를 배분함.
관세할당(TRQ)	연간 킬터 530만 톤에 대해 민간업체와 공사가 50%씩 차지, 킬터 내(in-quota) 관세율은 1%이고 킬터 밖(over-quota) 관세율은 65%임.

- TRQ는 쿼터와 관세 조치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경쟁력을 지닌 수입 농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TRQ 제도 아래 일정한 물량(in-quota)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때때로 0%)이 적용되는 한편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량(over-quota)은 훨씬 높은 관세율에 직면한다.

■ 일본

일본은 오래 전부터 쌀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 수십 년 간 일본은 생산쿼터제도, 소득 안정화 정책, 부족불(deficiency) 지급, 쌀 전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식량 자급을 추구했다. 생산쿼터 제도는 정부 혹은 해당 품목 생산조직에 의해 설정된 목표이고, 개별 노동자나, 회사, 산업, 혹은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쿼터는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거나 반대로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을 제한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일정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족불 제도 아래 지급률은 법률로 보장된 목표 가격과, 그보다 낮은 특정기간 전국 평균 시장가격의 차이에 기초한다. 총 지급액은 지급률에다 농가의 보조대상 면적(eligible payment area) 및 해당 농가에 설정된 프로그램 단수(program payment yield)를 곱해 계산된다.

일본은 농업부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통해 젊은 세대가 농업 활동을 맡도록 촉진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규모도 현재의 전국 평균 2ha에서 평야지의 경우 20~30ha와 경사지와 산지는 10~20ha로 증대시키고 있다.

일본은 현재 열량 기준으로 40%의 식량을 자급한다. 일본의 “식량, 농업, 농촌 분야 기본계획(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ic Plan)”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식량 생산 자급률을 50%까지 올리는 것이다.

일본이 이행하고 있는 주요 쌀 정책은 다음과 같으며, 그 요약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쌀 수입 관세율은 778%이다. 이는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257톤에 적용되었다.
- 새롭게 제정된 식량, 농업, 농촌(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FARA) 기본법은 식량자급률의 제고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쌀, 밀, 보리, 콩 재배농가

에 고정지불(fixed payment)과 변동지불(variable payment)이 조합된 소득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 FANP(Food Action Nippon Policy)을 통해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재배하는 작물 촉진과 인식 제고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 일본 정부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서 수출국들로부터 연간 68만 2,000톤의 쌀을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에 합의하였다. MMA는 국가가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농림성(MAFF)은 주기적인 정규 최소시장접근 입찰(periodic ordinary minimum access: OMA)과 업계간 자율거래(simultaneous buy-sell: SBS)를 통해 TRQ 내의 쌀 수입을 관리한다. OMA 입찰아래 미국 쌀의 수입은 오로지 정부재고를 위해 이뤄진다. 국영무역기업(STE)을 통해 정부는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가장 큰 입찰을 선택하여,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아래 그 수입요구량을 허용한다. STE는 그 가격격차를 마크업(markup)으로 확보한다. 일본 정부는 20만 톤의 쌀을 식량 원조용으로 비축한다. 농림성은 이와 같은 보유미를 산업 식품가공이나 사료용 및 식량원조로 재수출하는 용도로만 방출한다. 농림성이 비상용으로 비축하는 물량은 연간 100만 톤이다. 정부는 TRQ 내에서 쌀, 밀, 보리를 수입하는 독점권을 가진다.
- 정부는 MMA 쌀을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수입 한다: (1) 일반 입찰, (2) SBS 입찰. 일반 입찰아래 정부는 수입업자, 수입량, 쌀의 종류 등을 결정하고, 이의 대부분은 가공을 위한 장립종이다. SBS 입찰은 지정된 수입업자들과 등록된 도매업자들이 합동하여 이행하기 때문에 주식용 단립종에 중점을 두고,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수입 위주로 이뤄진다.
- 2010년 3월에 설정된 FARA 기본계획은 농업 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식품과 지역사회를 신속히 갱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련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공급 열량기준으로 50%, 생산 산출량 기준으로 70%의 식량 자급률을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계획은 농가 소득보상제도와 같은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정책은 쌀과 다른 곡물을 주로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 시, 지방 자치제에서 식

량 자급률 목표를 기준으로 결정한 일정한 생산 목표에 따라 보조를 제공한다. 이 보조는 전국 평균 생산비용과 전국 평균 소매가격의 차이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이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에 ha 당 100만 엔의 보조가 기본적으로 지급되었다.

표 2. 일본의 쌀 관련 정책: 2011년 기준

정책	주요 내용
생산정책 소득 직접지불	“농업인 소득보상제도(Income Compensation System for Farmers)”로 알려진 조치로, 쌀, 귀리, 콩을 생산하는 농가에 보조를 제공한다.
수입정책 TRQ	연간 최소허용물량(minimum market access: MMA)은 682,000톤임. 농림성(MAFF)은 주기적인 OMA 입찰과 SBS 입찰을 통해 쿼터 내 쌀의 수입을 관리함.
수입관세	수입쌀에 778% 관세를 부과함.
국영무역	일본 농림성은 TRQ 제도아래 수입된 쌀에 대해 독점권을 지님.

■ 대만

대만의 쌀 자급률은 90%를 능가하지만, 쌀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중 하나로 여겨진다. 대만은 높은 수준의 보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2002년에 WTO 회원이 된 이후 정책 개혁이 이루어졌다. 대만의 쌀 시장은 1995년에 처음으로 외국에 개방되었다. 아래 내용은 대만의 주요 쌀 관련 정책 조치들을 소개한 것이고, <표 3>은 그 요약이다.

- 대만 정부는 농가들이 연료나 비료와 같은 생산요소 관련 비용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쌀 가격보조 수준을 높였다. 보장수매제도(Guaranteed Purchase Program), 지도수매제도(Guidance Purchase Program), 잉여수매제도(Surplus Purchase Program) 등 3가지 정부 쌀 수매제도 아래 가격을 kg 당 20.6 대만달러에서 26 대만달러로 높였다. 그 결과 2011년 7월 현재 자포니카 정곡 가격이 33.09 대만달러에서 33.76 대만달러로 증가하였고, 소매가격은 33.75 대만달러에서 38.34 대만달러로 상승하였다.

- 이 세 가지 제도아래 판매량은 ha 당 특정 물량으로 제한된다. 농가가 보장수매제도와 지도수매제도아래 허용된 ha 당 최대 물량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판매량은 생산량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다. 수매대상 물량은 지도수매제도아래 ha 당 1,200kg, 보장수매제도의 경우 2,000kg, 잉여수매제도에서는 3,000kg이다.
- 예기치 않게 지역 가격(local price)이 상승한 경우 10,000 톤의 비축미가 방출된다.
- 과잉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휴경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상당한 농지가 휴경아래 있다. 쌀 생산농가는 작기마다 ha 당 41,000-45,000 대만달러를 지급받는다.
- 약 220,000 ha의 휴경 논에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휴경지에 지급하는 ha 당 최대 45,000 대만달러의 고정 직접지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인당 쌀 소비량을 2011년 48.5kg에서 2013년 50kg, 2014년 51kg으로 높이기 위해 쌀을 기반으로 한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WTO에 가입하자마자 논밭의 사용 조정(adjustment)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논 전환(diversion) 및 휴경제도를 확대한 조치이다. 1994-96년 기준연도에 쌀 가격 보장 수매제도에 참여하였던 모든 농가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이 주어진다. 승인을 받은 농가는 작기마다 ha 당 41,000-45,000 대만달러까지 직접지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휴경을 하고 녹비작물을 심는 것이다. 따라서 녹비작물 경작과 종자 구입에 드는 5,000 대만달러를 공제한 후 ha 당 순이익은 쌀 경작에 따른 순이익 30,000 대만달러 또는 사탕수수 재배에 따른 순이익 25,000 대만달러보다 높은 36,000 대만달러에 이른다.
- WTO 가입한 이후 2002년부터 대만은 가격지지, 직접 지불제, TRQ를 시행함으로써 처음으로 쌀 수입을 허용하였다. 최소시장접근 양허아래 대만은 총 소비량의 4%를 수입했다. 가격지지는 대만 정부가 설정한 한 최소가격이며, 이는 시장가격이 정해진 최소가격보다 낮을 때 생산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이행된

다. 직접지불은 중간 매개자나 제3의 참여자 없이 쌀 농가에 직접 지급된다. 다만 정부는 초과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논밭의 사용 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였다.

- 현미의 연간 수입량 94,068톤은 정부 비축량을 보충할 것이다. 국내가격에 대한 가격지지와 수입쌀의 조달체제아래 이 공공비축물량은 3개월 동안의 쌀 소비에 해당한다. 공공비축미는 군대, 교도소, 학교 및 양조와 소비 용도로 주기적으로 방출된다.
- 중앙 집권형 쌀 수입을 위한 국가별 쿼터는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 한국의 농식품부에 해당)의 농업식품청(Agriculture and Food Agency)이 구입한다.
- 쌀의 쿼터 내 관세는 0%이고 쿼터 밖 관세는 kg 당 45 대만달러이다. 쌀 가공품의 쿼터 밖 관세는 kg 당 49 대만달러이다. 쿼터 밖 관세는 양허수준 이상의 쌀 수입물량에 적용된다. 쌀에 관한 TRQ를 이행한 후 대만 정부는 논밭 사용 조정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1994-96년 기준으로 쌀가격 보장수매제도에 논의 포함된 모든 농가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이 주어진다.
- 이란 지방정부(Yilan County government)는 201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 비료보조에 386만 대만달러를 책정했다. 지역의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비료를 구매한 농가는 가격 인상분에 대해 전부 보전 받는다. 보조의 85% 정도는 농업위원회와 대만비료회사(Taiwan Fertilizer Co., Ltd)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한편 나머지 15%는 지방정부가 맡았다.
- 대만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0,000 톤의 쌀 수출 통제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쌀 가격변동에 대응하였다. 쌀 수출통제 수단은 가뭄, 홍수, 태풍 피해나 국제 식량가격 변동과 같은 악재뿐만 아니라 국내 쌀 가격이나 공공비축미의 변동 등에 대응하여 조정된다.
- 2007년 6월에 미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과 맺은 협정에 따라 대만은 현미 기준으로 144,720톤(정곡으로 126,000톤)의 연간 TRQ를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50,652톤은 민간이 수입하고 94,068톤은 대만 정부가 국가별 쿼터에 따라 미국에서 64,634톤, 호주 18,634톤, 태국 8,300톤, 이집트 2,500톤을 수입한다.

표 3. 대만의 쌀 관련 정책: 2011년 기준

정책	주요 내용
비축정책 공공비축	지역 가격의 예상치 못한 급등을 통제하기 위해 10,000톤의 쌀을 방출함.
생산정책 가격지지	지도수매제도: kg당 인디카 22 대만달러, 자포니카 23 대만달러 보장수매제도: kg당 인디카 25 대만달러, 자포니카 26 대만달러 잉여수매제도: kg당 인디카 20.60 대만달러, 자포니카 21.60 대만달러
휴경제도	쌀 재배농가는 작기마다 ha당 41,000~45,000 대만달러를 지급받음.
비료보조	농업협동조합에서 비료를 구매하는 이란(Yilan) 지방정부 농가는 비료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은 가격 차이를 보전 받음.
수출정책 수출금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0,000톤의 쌀 수출량 통제가 부과됨.
수입정책 최소시장접근	정부는 연간 현미 144,720톤만 수입함.
쿼터 내 관세	쿼터 내 관세는 0%임.
쿼터 밖 관세	쿼터 밖 관세는 쌀이 kg당 45 대만달러, 쌀 가공품이 49 대만달러임.
TRQ	TRQ는 연간 144,720톤이고 이 가운데 50,652톤은 민간기업이 수입하고, 94,068톤은 대만 정부가 국가별 쿼터에 따라 미국, 호주, 태국, 이집트 등에서 수입함.

3. 동남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에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이 속해 있다. 2010년에 태국은 세계 쌀 무역의 30%를 차지하였고 베트남은 22%를 차지하였다. 같은 해 태국은 1억 7,600만 달러에 이르는 903만 톤의 쌀을 수출하였다.

■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식량 자급률을 2015년까지 60%로 증대시키는 목표를 내세웠다.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다수확 품종의 채택, 새로운 경지 개척, 농업 기반시설 향상, 농업부와 지역 농업인의 훈련 등을 통해 2010년까지 단기 식량자급률 20%의 달성을 희망하였다. 중기 계획은 지역 쌀 생산을 2015년까지 60%까지 자급할 수 있도록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중기 행

동계획은 3가지 측면을 지닌다: ① 농업 기반시설 향상, ② 모든 농가에 고단수 품종(HYV)의 쌀의 이모작 체제 시행, ③ 기술과 인적 자원의 능력 향상 등이다.

브루나이의 쌀 수입에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정보기술과 (Information Technology and State Store Department: ITSSD)가 발행하는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 쌀 수입은 국내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된다. 브루나이에는 국영무역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ITSSD를 통해 정부가 직접 수입한다. ITSSD에 의한 수입은 브루나이와 태국 정부의 결합 벤처 기업인 브루시암 식품연합회(BruSiam Food Alliance)를 통해 이뤄진다.

■ 캄보디아

1960년대에 캄보디아는 쌀 수출국이었다. 20년 이상 지속된 내전 때문에 캄보디아의 쌀 생산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현재 캄보디아는 아시아의 “쌀 바구니(rice basket)”와 세계의 주요 백미 수출국이 되고자 한다. 캄보디아는 2015년까지 정곡 기준 100만 톤의 쌀 수출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에서 캄보디아는 중국, 뉴질랜드, 아프리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태국과 베트남에 20년 이상 현미와 백미를 수출해 왔다.

캄보디아는 1999년에 아세안(ASEAN)과 2004년에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계획경제였다. 캄보디아는 WTO 회원국이 되어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ASEAN 회원국들은 캄보디아로부터 수입한 쌀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캄보디아 쌀의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다. 다음은 캄보디아 정부의 주요 쌀 정책을 정리한 것이고, <표 4>은 그 요약이다.

- 2015년까지 쌀 수출을 100만 톤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쌀 농가에 상업은행 융자의 50% 보장(guarantee)을 제시하였다. 채무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정부가 채무 불이행자의 지급액 50%를 부담하다. 이 정책은 모든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쌀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용자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11개의 국영무역 기관들이 쌀 수출입 활동을 한다. 1988년에 설립된 녹색무역 회사(Green Trade Company: GTC)는 캄보디아 이전에 국가 소유였던 캄보디아 식품회사(Cambodian Food Company), 자재장비회사(Material and

Equipment Company), 농산물회사(Agricultural Product Company) 등 3개 회사의 합병기관이다. GTC는 시장가로 쌀을 매매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정부미 비축량을 관리한다. 2001년 7월 이래 GTC는 쌀 수출 활동을 중단하고 국내 쌀 거래와 분배에 집중해 왔다.

- 캄보디아는 쌀 가공과 수출에 특화된 결합 벤처에 관한 캄보디아-베트남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캄보디아-베트남 식품회사(Cambodia-Vietnam Foods Company: Cavifoods)는 캄보디아 개발투자회사(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of Cambodia: IDCC)와 베트남의 남부식품회사(Southern Food Corporation: Vinafood II) 및 GTC의 연합 벤처이다.

표 4. 캄보디아의 쌀 관련: 2011년 현재

정책	주요 내용
생산 정책 생산요소 보조	정부가 쌀 생산자들을 위해 상업은행 융자의 50%에 대해 보증함. 쌀 관개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3억 1,000만 달러를 배분함.
수입 정책 국영 무역 수입 관세	GTC는 국내 판매와 해외 조달을 통해 정부미 비축량을 관리함. 2011년 12월 31일까지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쌀에는 수입세(import tax)가 부과되지 않음. 캄보디아는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해 쌀의 무관세를 적용함.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도 다음으로 큰 쌀 생산 및 소비 국가이다. 생산이 늘어나는 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증가하지 못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수십 년 동안 쌀을 수입해왔다. 그러나 쌀 수입금지 조치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쌀 수입이 서서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이행된 정책 대부분은 쌀 생산 증대를 통한 자급률 달성이 목표였다. 인도네시아는 연간 80만 톤 정도를 수입한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쌀 정책을 소개한 것이고, 그 요약은 <표 5>와 같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에 연간 쌀 잉여물량 목표를 1,000만 톤으로 설정했다. 2011년에 정부의 쌀 수매량은 350만 톤으로 설정되었고 이중 200만 톤의 비축량은 인도네시아의 국영유통업체인 부로그(Bulog)가 보관한다.

- 인도네시아 농가는 비료 보조를 받으나 이는 0.5ha 미만의 경영규모에 한정된다. 이 농가들은 보조 총액의 40%를 지급받는다.
- 가격 안정을 위해 Bulog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정부 비축량을 팔고,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로부터 쌀을 구입함으로써 곡물비축량을 유지한다. 이와 유사하게 쌀 가격 인상을 보상하기 위해 15.3조 루피아(약 14억 달러)의 식량보조로 지급한다. Bulog는 국가 전체 쌀 생산량의 7%를 수매하고 이를 보조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 Bulog는 또한 쌀 kg당 0.59 달러와 \$0.39 달러의 가격으로 각각 쌀과 벼를 수매함으로써 가격보조를 책임지고 있다. Bulog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보조된 가격으로 쌀을 분배하며, 국가의 비축물량을 보유 및 관리한다.
- 정부미 비축량은 빈곤층(Raskin)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2011년에 Bulog는 315만 톤의 Raskin 쌀을 1,750 만호에 이르는 빈곤가정에 분배하였다. 이는 kg당 33.84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의 쌀 15kg을 가구마다 매달 지급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식량보조 총액은 14억 달러이다.
- 쌀의 수입관세는 kg당 0.05 달러이다.

표 5. 인도네시아의 쌀 관련 정책: 2011년 현재

정책	주요 내용
생산 정책	
비료보조	0.5ha 미만의 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보조의 40%만을 수취함. 유기비료 보조에 배당된 총량은 835,000톤임(약 5,845억 루피아).
가격 지지	쌀 kg당 0.59달러; 건조된 벼 kg당 0.39달러
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식량보조	Bulog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kg당 0.177 달러의 보조된 가격으로 판매함. 중립종 쌀의 시장가격은 kg당 0.813 달러임.
수입 정책	
국영무역	Bulog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을 수매매하고 Raskin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층에게 쌀을 배분하며 비축미를 관리함.
관세	쌀 수입 관세는 톤당 50 달러임.

■ 라오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쌀을 생산하는 또 하나의 주요 국가이다. 2000년에 라오스는 쌀 생산의 자급자족을 달성하였다. 오랫동안 충분한 쌀 생산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쌀 수입 요구량은 38,000톤으로 계측되었다. 다음은 라오스의 주요 쌀 정책이다.

- 세계 쌀 시장이 불안정해진 이후 라오스의 국영식량기업(State Food Enterprise: SFE)은 수확기에 쌀을 수매하고 단정기에 비축량을 방출함으로써 쌀 유통체제의 주요 주체로 활동해왔다. SFE는 20,000-25,000톤의 쌀을 해마다 수매하여 이익창출 기관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수매는 사전 지불, 종자와 비료 배분을 통해 농가로 하여금 계약영농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 찰쌀은 라오스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가장 유명한 품종이다. 찰쌀의 주요 시장은 태국이고 두 정부 간 상호협정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거래된다. 라오스는 찰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장립종 쌀을 특히 태국,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다.
-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외국의 과도한 수요로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쌀 수입국이다. 말레이시아는 약 63%의 쌀 자급률을 보이며, 국내 생산을 보완하기 위해 쌀을 수입한다. 쌀 생산성은 ha당 3톤 정도로 낮으며 국내 총 수요의 65%의 쌀을 생산한다. 말레이시아는 국민들의 쌀에 대한 이용가능성, 접근성, 구매력을 확실히 보장하는 새로운 식량안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70%의 쌀 자급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가농식품정책 2011-2020(National Agro-Food Policy 2011-2020)”으로 명명된 이 새로운 계획은, ① 국가의 식량 자급률 증진, ② 식량의 한계생산 향상, ③ 식량 공급망의 강화, ④ 기술역량을 증대 등 4대 장기 전략을 포함한다. 2012년에 농업 발전을 위해 총 11억 링깃(RM) 또는 3억 5,000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아래 내용은 말레이시아가 시행한 주요 쌀 정책조치들이며, <표 6>은 그 요약이다.

- SUBUR는 사바(Sabah) 주와 사라왁(Sarawak) 주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의 가난한 사람들과 가구들을 위한 쌀 보조제도이다. 이 제도아래 식량구매권(food vouchers)이 미리 정해진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들과 가구들에 제공된다. 각 가정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3장의 구매권을 받게 된다. SUBUR의 쌀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 거주 기준 월 소득이 5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농촌의 경우 333.56 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SUBUR 제도아래 인증된 가공 또는 건조시설에 벼를 제공하는 쌀 농가는 kg당 0.83달러의 보조를 받는다.
- 말레이시아에서 쌀은 AFTA(ASEAN Free Trade Area Agreement)아래 매우 민감한 품목(highly sensitive good)으로 인정받았고,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Agreement)에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1년 현재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쌀의 관세는 20%이며, 이 수준은 2015년에 관세가 완전히 폐지 될 때까지 유지된다.
- 말레이시아의 쌀 수입은 국영기업인 BERNAS(Padiberas Nasional)에 의해 운용된다. BERNAS는 지역 농가와 가공업자로부터 조곡을 구매하여 적당한 가격과 품질의 쌀의 안정된 공급을 보장한다. 이 기관은 지역 쌀의 구매와 가공, 외국 쌀의 수입, 보관, 분배 및 유통을 책임진다. BERNAS의 사회적 책무 가운데 하나는 식량 안보를 위해 45일 간의 지속적 소비에 필요한 물량인 비축미 29만 2,000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BERNAS는 10-15만 톤의 무역 물량을 항상 유지하고, 정부 보조를 필요한 농가에 지급하며, BERNAS에 의해 구매된 벼를 무료로 가공하는 조치(Bumiputra Miller scheme)를 운영한다.
- BERNAS는 수요가 없을 때, 품질이 좋지 않을 때, 가공업자들이 쌀을 구매하지 않을 때 최소 가격지지 수준인 톤당 249.52 달러에 쌀을 구매한다(2011년 8월 25일 현재).
- 쌀에 대한 가격지지는 2011년 4월 6일 기준으로 100kg 당 65 링깃(RM)이다.
- 2011년 4월 6일 기준으로 쌀 농가들은 인증된 가공시설 또는 건조시설에 벼를 제공할 경우 100kg 당 25 링깃(RM)의 보조를 받게 된다.

표 6. 말레이시아의 쌀 관련 정책: 2011년 현재

정책	주요 내용
생산 정책	
최소가격지지	BERNAS는 쌀을 톤당 246.42 달러의 최소가격지지로 구매함.
농기계 보조	쌀 농가는 인증된 가공시설 및 건조시설에 벼를 제공할 경우 100kg 당 25 링깃(RM)의 보조를 수령함.
소비자 정책	
쌀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 보조	무료식량 프로그램인 SUBUR아래 사전에 정해진 소득기준에 따라 빈곤 계층에 쌀이 지급됨.
수입 정책	
수입 관세	2015년에 관세가 폐지되기 전까지 수입쌀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함.
국영 무역	BERNAS는 지역의 쌀 구매, 가공, 수입, 보관, 분배 및 유통에 관여함.

■ 미얀마

미얀마는 2차 대전 전까지 주된 쌀 수출국이였으며 1960년대에는 “아시아의 쌀 그릇(Rice Bowl of Asia)”으로 불리었다. 전후에 생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곧이어 태국이 주된 세계 쌀 수출국으로 빠르게 대두되면서 쌀 수출국으로서 미얀마의 지위는 전반적인 국가 통제에 의해 차츰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쌀 수출국 중 하나이다.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미얀마는 총 57만 톤의 쌀을 수출하였다. 주 수입국은 서아프리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다. 다음은 미얀마의 주요 정책조치이며, <표 7>이 그 요약이다.

- 1989년에 미얀마가 WTO의 회원국이 되면서 쌀 수출을 제외한 다른 모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다. 쌀 유통은 국가의 통제아래 놓여 있었다. 쌀의 배급체계와 벼의 구매제도는 유지되었고, 쌀 수출은 미얀마 농산물무역회사(Myanmar Agricultural Produce Trading: MAPT)에 의해 정부 독점으로 이루어졌다.
- 2003년에 쌀 배급체계와 벼 구매제도가 폐지되었다. 정부는 쌀 수출의 전면 독점을 지속해서 국내 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쌀 시장의 민간부문에 개입하였다. 민간에 의한 쌀 유통부문은 자기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11년에 국영기업과 민간 무역회사들은 모두 쌀을 수출하였다. 미얀마는 해마다 평균 1,000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50-100만 톤의 쌀을 수출한다. 민간 수출업체들은 정부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미얀마는 국내 쌀 공급을 증가시키고 국내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쌀 수출을 중단하였다. 쌀 수출은 2011년 2월 말부터 시작하여 4월 30일에 종료되었다.
- 2010년에 미얀마 정부는 쌀무역업자연합(Rice and Paddy Traders' Association), 쌀가공업자연합(Rice Millers' Association), 쌀생산자연합(Paddy Producers' Association)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쌀산업협회(Myanmar Rice Industry Association: MRIA)를 설립하였다. MRIA는 미얀마의 쌀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창설되었다.
- 미얀마의 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서는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135,908 차트(MMK)를 제공하는 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8개월의 만기에 월 이자율은 2.5%이다.

표 7. 미얀마의 쌀 관련 정책: 2011년 현재

정책	주요 내용
생산 정책	
투입재 보조	민간업체는 쌀 재배 농가에 종자나 농업 생산요소 구입에 필요한 소자금(microfinance)을 제공하도록 권장됨.
신용 보조	이 프로그램은 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 ha당 135,908 차트(MMK)를 제공한다.
수출 정책	
수출 금지	쌀 수출은 국내 공급을 조절하고 지역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일시적으로 제한됨.
수출 허가제	미얀마의 쌀 수출업체들은 상무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수출세	쌀 수출세는 8%에서 5%로 감소되었으나 이후 6개월 동안 상승하였고 2%의 소득세는 여전히 적용됨.
수입 정책	
수입 관세	미얀마로부터 인도로 수입되는 쌀에는 무관세를 적용함.

■ 필리핀

필리핀은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다. 쌀은 필리핀의 주식이지만 정치재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의 쌀은 언제나 정부의 농업정책에서 중심에 서 있었다. 정책의 요점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농가에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쌀 농업은 태국과 견주어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다.

필리핀은 1970년대에 쌀을 자급자족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 중국, 버마(미얀마)와 같은 인근 국가로 쌀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급속히 늘고 필요한 쌀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자원이 부족하여 필리핀은 서서히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최대 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필리핀은 주로 베트남과 태국에서 쌀을 수입하였는데, 2010년에는 180만 톤에 이르는 쌀을 수입하였다. 2011-2016 식량 자급 로드맵의 일환으로 필리핀 정부는 2016년까지 쌀을 2,250만 톤까지 생산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려 하였다. 다음은 필리핀의 주요 쌀 정책조치들이며, <표 8>은 해당 정책들의 개요이다.

- 국립식량청(National Food Authority: NFA)은 함수율 14%의 벼를 kg당 17페소(약 0.36 달러)에 구매하나, 24%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함수율이 높은 벼에 대해서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 정부의 식량자급 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대부분의 이행된 정책들은 하이브리드(hybrid) 품종을 사용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쌀 종자 보조조치는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얻기 위해 시행되었다. 농가들이 하이브리드 쌀 품종을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kg당 60페소로 고정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까지 지속된다.
- 천수답과 관개지에서 벼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신속 종자공급 지원 프로그램(Rapid Seed Supply Financing Program: RaSSFiP)”의 2단계 아래 인증된 종자는 보조된 비용으로 농가에 보급된다. 이러한 종자들은 2010년 9월 16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첫 작기에 액상비료와 함께 분배되었다.
-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은 RaSSFiP을 확대하여 우수 품종을 공급함으로써 특히 가뭄, 홍수, 해충 피해를 입은 쌀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인증된 종자를 50:50 보조를 통해 제공하여 V지역(Bicol), VI지역(Western Visayas), VIII지역(Eastern Visayas) 및 X지역(Northern Mindanao)의 천수답과 관개지에 위치한 한계 농가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저지대 천수답과 관개지의 농가 중 농업 시공무원과 농업전문가에 의해 ha당 3.8톤 미만의 단수에 직면한 농가들이 보조 대상이 된다.

- 2016년까지 기계화 영농과 건조 및 가공능력 제고를 위해 쌀 기계화 프로그램(Rice Mechanization Program)에 160억 페소(약 3억 6,900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농업부는 2011년에 4,000개의 다양한 수확 후 처리 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10억 페소를 사용했다. 2016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7,000개의 수확 후 처리용 기계와 9만개의 농기계를 구입,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부가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자금조달 계획을 통해 농민협회와 단체, 농업 협동조합도 자체 농기계를 소유할 기회가 주어진다.
-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SWD)는 I지역부터 XII지역에 걸쳐 총 67만 8,621호의 소규모 농어가에 쌀 보조를 지급하였다.
- DSWD는 또한 농어민을 정부 프로젝트에 고용하여 일하도록 하는 단기 직업계획을 시행하였다. 농업인들은 NFA 쌀을 수확하거나 일시적으로 한 달에 14일 동안 정부의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일시적 직업계획의 수혜자는 농업용 도로나 관개시설과 같은 농업 프로젝트에 관한 일을 수행하였다.
- 쌀 보조 프로그램아래 수혜자들은 가구와 지역사회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해관리에 관한 CFT(Cash-for-Training)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운하 청소, 배수, 도로 및 기타 시설수리와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등 CFW(Cash-for-Work)를 7일 간 수행한 후 4일 동안 실행되었다. 수혜자들은 그들의 CFT와 CFW 활동을 마친 후 그들이 각각 해당된 지역의 임금에 기초하여 보조를 받았다.
- 국영기관인 NFA는 면세 수입 할당량의 35%를, 민간 기업은 65%를 수입한다.

NFA의 수입 할당 총량은 쌀 86만 인데 66만 톤이 민간부문에 분배되었다. 민간 무역업체는 최저가격 수준인 kg당 2페소(PhP)의 이른바 “서비스 부과금(service charge)”을 위해 입찰한다. 각 수입업체는 최대 2만 톤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필리핀은 쌀에 관한 최소시장접근(MMA) 확대 및 일부 농산물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조건아래 1994부터 2012까지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QR)을 유지하기로 협상하였다. 수량제한은 특정 기간에 수출입할 수 있는 특정상품의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인데 주로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되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다. 이 쿼터는 특정 국가별로 다양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전체 쿼터 총량만을 규정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수출국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글로벌 기준(global basis) 등 선택적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표 8. 필리핀의 쌀 관련 정책: 2011년 현재

정책	주요 내용
생산 정책 가격 지지 투입재 보조	국립식량청(NFA)은 kg당 0.36 달러에 농가로부터 쌀을 구매함. 정부는 kg당 60페소(PhP)에 고정된 다수확 종자비용의 절반을 부담함. 이 프로그램은 2013년까지 유효함. 특히 가뭄, 홍수 및 해충 피해를 입은 쌀 농가는 RaSSFIP를 통해 고품질 종자를 제공받게 됨. 보조의 목적은 인증된 종자를 50:50 보조아래 제공함으로써 V, VI, VIII 및 X 지역에 위치한 천수답과 관개지의 한계 농가의 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임.
소비자 정책 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식량보조	DSWD는 소규모 농어민에게 쌀 보조를 제공하되, 그 수혜자들은 CFT(Cash-for-Training)와 CFW(Cash-for-Work)에 참여해야 함. DSWD는 농어민을 정부 프로젝트에 고용하여 일하도록 하는 단기 직업계획을 시행함. 농가는 NFA 쌀을 수확하거나, 일시적으로 한 달에 14일 동안 정부의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음.
수입 정책 국영무역 수입 관세 수량 제한 최소시장접근	NFA는 수입 할당량의 35%, 민간은 65%를 수입함. 무관세 수입 쿼터는 50kg 포장단위 당 최소 100페소(톤당 46달러)의 부과금아래 민간부문에 할당됨. 쌀 수입에 40% 관세가 적용되고, 양허된 무관세 수입은 35만 톤임. MMA는 연간 35만 톤에 관세 40%임.

- 2005년 6월 이후 필리핀은 40% 관세아래 35만 톤의 MMA를 수입하였다. 이 MMA는 2015년까지 이행될 예정이다. MMA란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협정아래 필리핀이 WTO에 양허한 특정 농산물의 수량을 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로 수입된다.
- 수량제한은 NFA가 이행한다. 이는 높은 농가 판매가격 덕분에 더 많은 농가들이 쌀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게 하는, 이른바 “높은 가격에 구매, 낮은 가격으로 판매(buy high, sell low)” 정책에 기초하여 이행된다. 또한, 재해지역에 쌀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소매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수량제한은 NFA로 하여금 15일 소비량에 상응하는 식량안보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WTO 양허아래 민간 기업들은 최대 2만 톤까지 입찰이 허용된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통제된 상품으로서 쌀을 취급한다. 쌀의 수입, 수출, 또는 도매거래를 위해서는 무역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로부터 자격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자격증은 MTI 감독아래 있는 법정 위원회인 국제기업(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IE)에서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싱가포르 정부의 쌀 관련 주요 정책이며, <표 9>은 그 요약이다.

- 싱가포르에는 쌀 관련 5개 자격증이 존재하는데, ① 비축, ② 미비축(nonstockpile), ③ 재수출을 위한 수입, ④ 가공, ⑤ 대량거래 자격증이다. 비축 자격증은 백미, 향미(basmati rice), 찰쌀, 폰니(ponni) 쌀을 수입하는데 필요하다. 비축 자격증 소지자들은 쌀비축계획(Rice Stockpile Scheme)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미비축 자격증은 찹쌀, 현미, 앵미(red cargo rice), 흑미 수입과 관련된다. 비축 자격증은 수입업체에 특정 종류의 쌀에 대해 최소 50톤을 비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반 자격증들은 다른 품종들을 위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발행된다. 재수출 자격증은 재수출만을 목적으로 쌀을 수입하기 위함이다. 가공 자격증은 가공용으로 찌라기(broken rice) 100% 백미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된다. 도매 자격증 소지자들은 쌀을 수입할 수 없다. 이 자격사항은 상인들이 싱가포르 안에 모든 품종의 쌀에 대한 도매거래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쌀 수입은 IE가 비자동적으로 발행하는 자격증에 의해 이뤄진다.
- 모든 쌀 품종은 가격관리법(Price Control Act) 아래 통제된다. 쌀 수입은 식량안보와 가격 안정 목적으로 규제된다.
- 비축된 쌀은 시장에서 쌀이 부족할 때 방출된다. 쌀 방출 여부는 IE, MTI, 농식품수역국(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통계국(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등과 같은 관련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르되, 가능할 경우 시장요건을 평가하기 위해 쌀 수입업체와 협의를 거친다. 모든 백미는 비축에 적합한 등급으로 분류되고, 비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현재 비축규모는 연간 총 쌀 수입량의 10-15% 수준이다.

표 9. 싱가포르의 쌀 관련 정책: 2011년 현재

정책	주요 내용
수입 정책	
수입자격 부여	쌀 수입은 IE가 비자동적으로 발행하는 자격증아래 이뤄짐. 모든 쌀 품종은 가격관리법(Price Control Act)에 따라 통제됨. 쌀 수입은 식량안보와 가격안정의 목적아래 규제됨.
공공비축	비축된 쌀은 시장에서 부족현상이 발생할 시 방출됨.

■ 태국

태국은 오늘날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다. 쌀 생산에 이용되는 총 경지면적은 세계 5위이지만, 태국은 수출량과 수출액 측면에서 최고의 쌀 수출국이며 주로 장립종과 향미(jasmine rice)를 수출한다. 태국의 쌀 정책은 항상 국내생산과 무역을 위한 생산증진에 맞게 조정되어 왔다. 다수확 품종의 집약적 추진은 현재 태국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이다. 다음은 태국의 주요 쌀 정책에 대한 사항이고, 그 요약은 <표 10>과 같다.

- 쌀 부족 시 10만 톤의 정부 비축미를 방출한다.
- 가격보증제도(price pledging scheme)는 4,350억 바트(THB, 약 140억 달러)의 예산으로 재도입되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운영되는 이 제

도에 따라 농가는 2011-12년산 벼를 무제한 위탁할 수 있다. 태국의 다른 지역,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이 조치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운영된다. 이 새로운 정책은 기존 가격보조제도와 다르다. 기본적으로 가격보증아래 농가는 스스로 거래를 하되, 실제 판매가격과 정부가 고정한 가격인 톤당 10,000바트 간 차액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급을 받게 된다. 농가는 15,000 바트의 가격으로 정부에 쌀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정부는 수매한 쌀을 사일로에 저장하고 아무 때나 이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정부에 판매한 쌀의 수익을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신용카드는 비료, 살충제, 농기계, 농기구 등의 생산요소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가격보조제도 아래 카드 발급자로서 정부는 농가가 정부로부터 받는 수익으로부터 이러한 투입재 구입에 따른 비용만큼 상환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3월에 수확하는 2011-12년산 제2기(secondary) 벼까지 적용된다.

- 가격보증제도는 가격 하락 시 제조자나 공급자가 중개인이나 딜러에게 가격차액 상환을 보장하는 한편 중개인이나 딜러는 이전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농산물을 여전히 보유하도록 하는 일종의 합의이다. 이 합의는 중개인이나 딜러로 하여금 이후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걱정하지 않고 대량으로 농산물을 주문하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 가격보증제도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백미 톤당 13,800-15,000 바트(약 446-484 달러), 찰쌀이나 빠툼타니(Pathum Thani) 쌀 15,000-16,000 바트(약 484-517 달러), 지역의 향미 18,000 바트(약 581 달러), 홈 말리(Hom Mali) 쌀 20,000 바트(약 646 달러)의 가격아래 운용되었다.
- 가격보증이나 보조의 수혜 자격은 남부지방의 경우 2010년 9월과 2011년 6월 사이, 다른 지방은 2010년 8월과 2011년 5월 사이에 수확한 농가이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확 시기에 국내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 또한, 정부의 작물가격 보험제도아래 쌀 농가는 비료에 대해 톤당 49.97 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농협은행(Bank fo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BAAC)에 등록해야 한다. 농가는 현금으로 또는 BAAC에서 연간 7% 이자율로 융자받아 비료를 구입할 수 있다.

- 2011년 4월에 태국 정부는 쌀 재배를 연간 이모작으로 제한하였다.
- 가격보증 물량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톤 이상을 보유한 거래자와 가공업자는 정부에 그 비축량을 보고해야 한다.
- 최저수출가격은 향미(jasmine rice)의 경우 톤당 1,060 달러, 5% 쇤미는 550-560 달러, 25% 쇤미는 535-545 달러, 찰쌀은 555-565 달러이다.

표 10. 태국의 쌀 관련 정책: 2011년 현재

정책	주요 내용
비축 정책	
공공비축	홍수로 인한 쌀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약 10만 톤의 정부 비축미가 시장 가격으로 방출됨. 15톤 이상의 쌀을 소유한 거래자와 가공업자는 불법 수량보증을 방지하기 위해 그 비축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함.
생산 정책	
가격보증	백미 톤당 13,800-15,000바트(약 446-484달러), 찰쌀 15,000-16,000바트(약 484-517달러), 장립종 찰쌀이나 빠툼타니(Pathum Thani) 쌀 16,000바트(약 517달러), 지역의 향미 18,000바트(약 581달러), 홈 말리(Hom Mali) 쌀 20,000바트(약 646달러)
비료보증	쌀 농가는 비료에 대해 톤당 49.97달러의 직접보조를 받을 수 있음.
경작 제한	쌀 경작을 연간 이모작으로 제한함.
수출 정책	
최저수출가격	최저수출가격은 향미(jasmine rice)의 경우 톤당 1,060달러, 5% 쇤미가 550-560달러, 25% 쇤미가 535-545달러, 찰쌀이 555-565달러임.

■ 베트남

25년 전에 식량안보는 베트남의 중대한 문제였다. 도이모이(Doi moi)라고 불리는 경제 개혁안의 채택된 이후 베트남은 최대 쌀 수출국의 하나로 서서히 대두되었다. 오늘날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으로 베트남 역사상 최고치인 673만 톤, 곧 32억 3,000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경제개혁 후에 베트남은 단수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집약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이후인 1997년에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베트남의 쌀 정책은 국내 식량안보를 유지하는 것과 쌀 수출 증진 사이에 균형

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으로부터 쌀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이다. 쌀 수출은 주로 태국보다 낮은 수출 가격을 요구하는 중간 품질의 중립종과 장립종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베트남 정부의 주요 쌀 정책을 소개한 것이고 그 요약을 <표 11>에 담았다.

- 정부의 시장개입은 제한되고 쌀 수출량의 50% 가량은 국영무역기업, 특히 베트남식품연합(Vietnam Food Associ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 2011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최소수출가격은 5% 쉐미가 톤당 465-475 달러이고, 25% 쉐미가 425-435 달러이다.
- 대부분의 베트남 쌀 생산은 순전히 수출을 위한 것이므로 지역의 쌀 소비는 주로 수입으로부터 충당된다. 베트남 농가는 추가적인 쌀 생산을 위해 캄보디아에 투자하였는데, 이 추가 생산 분은 대부분 베트남 지역의 소비용으로 사용된다.
- 국내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 베트남 수출업자들은 정부 지원 없이 저금리 융자의 형태로 100만 톤의 정곡을 비축하였다.
- 2011년 2월에 VFA는 100만 톤의 쌀을 구매하여 가격을 안정시켰으며, 수확기에 쌀 수입업자들이 너무 낮은 가격으로 흥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11년 5월 6일 기준으로 쌀의 최저구매가격은 kg당 0.24 달러(약 5,000 VND)이었다.
- 라오스에서 들어오는 모든 품종의 쌀에 대한 수입 쿼터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표 11. 베트남의 쌀 관련 정책: 2011년 현재

정책	설명
소비 정책	
가격보조	쌀 가격보조는 kg당 0.24 달러(5,000동)임.
생산 정책	
공공비축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VFA는 수확기에 쌀 수입업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흥정하지 못하도록 농가로부터 100만 톤을 구매함.
수출 정책	
최저수출가격	5% 쉐미는 톤당 465-475 달러, 25% 쉐미는 425-435 달러임.
국영무역	VFA는 국영무역기업으로서 특히 쌀 등 농산물의 가공과 무역을 전담함.

4.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아시아 주요국의 쌀 정책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쌀 정책 측면에서 아시아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량안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식량안보 확충을 기반으로 생산농가에 대한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정책조치들이 주류를 이룬다.

표 12. 아시아 주요국의 쌀 관련 정책의 비교

정책조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가	홍콩	일본	대만	부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무역 정책															
	최저수출가격													✓	✓
	최소시장접근			✓	✓							✓			
	수량제한											✓			
	수입관세	✓		✓			✓	✓		✓		✓			✓
	TRQ	✓		✓	✓										
	수출금지/허가				✓				✓		✓				
	수출세										✓				
	수입자격증		✓			✓						✓			
국영무역	✓		✓			✓	✓	✓	✓			✓		✓	
공공비축					✓						✓		✓	✓	
생산 정책					✓										
	경작제한													✓	
	휴경				x										
	가격보조 (\$/kg)	0.31			0.91			0.39		0.25			0.39	0.48	0.24
	투입재보조	✓					✓	✓		✓	✓		✓	✓	
	기계	x								x			x		
	종자	x									x		x		
	관개						x								
	연료														
	비료							x						x	
직접소득보조				✓	✓										
소비 정책								✓		✓			✓		
	Food-for-Work												x		
	식량보조							x		x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의 역할도 두드러진다. 특히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SOE는 국내가격 안정을 위한 수매와 국제무역을 통제하고 있다.

가격보조의 경우 대만이 조곡 기준으로 kg당 0.91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은 태국으로 0.48 달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0.39 달러를 지원한다.

2000년대 후반 식량위기 이후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들은 최저수출가격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유는, ① 자유로운 무역을 견제하고, ② 국내시장에 충분한 쌀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태국은 톤당 555 달러로 최저수출가격을 설정하였고, 베트남은 430 달러로 운용하였다. 쌀 무역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주요 쌀 수출국끼리도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 쌀을 수출하며, 미얀마는 북한과 미국시장의 최대 수출국이다. 태국과 베트남은 상당량의 향미(basmati rice)를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010년에 아시아 개도국들에 의한 쌀 교역량은 3,100만 톤에 이른다. 태국, 베트남, 중국 및 인도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다. 이들은 세계 쌀 무역의 3/4을 차지한다. 주식으로서 쌀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쌀에 관한 통제와 시장개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영무역이나 무역제한과 같이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자국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출제한이나 국영무역체제를 유지하기도 한다.

국내정책 수단으로는 가격 보조와 투입재 보조를 통해 생산증대를 꾀하고, 순수입국의 경우 생산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수준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소비자들에 의한 식량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저가격 설정, 용자보조, 휴경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정책 조치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쌀 자급률의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농가로 하여금 공정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들에겐 적절한 가격으로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및 다자간 공조체제의 구축도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농업직접지불제

김승규(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최근 미국은 농업법 개정을 통해 농업 부문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보험 등과 같이 농민과 기업, 정부가 참여한 형태의 소득안정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직접지불제 도입의 역사적 배경, 주요 국가의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농업 정책의 도입 및 운영 현황, 우리나라 직불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소개한다. 끝으로 미국의 직접지불제에 대한 최근의 학술적 연구 결과의 소개를 통해 직불제의 정책적 유효성과 농업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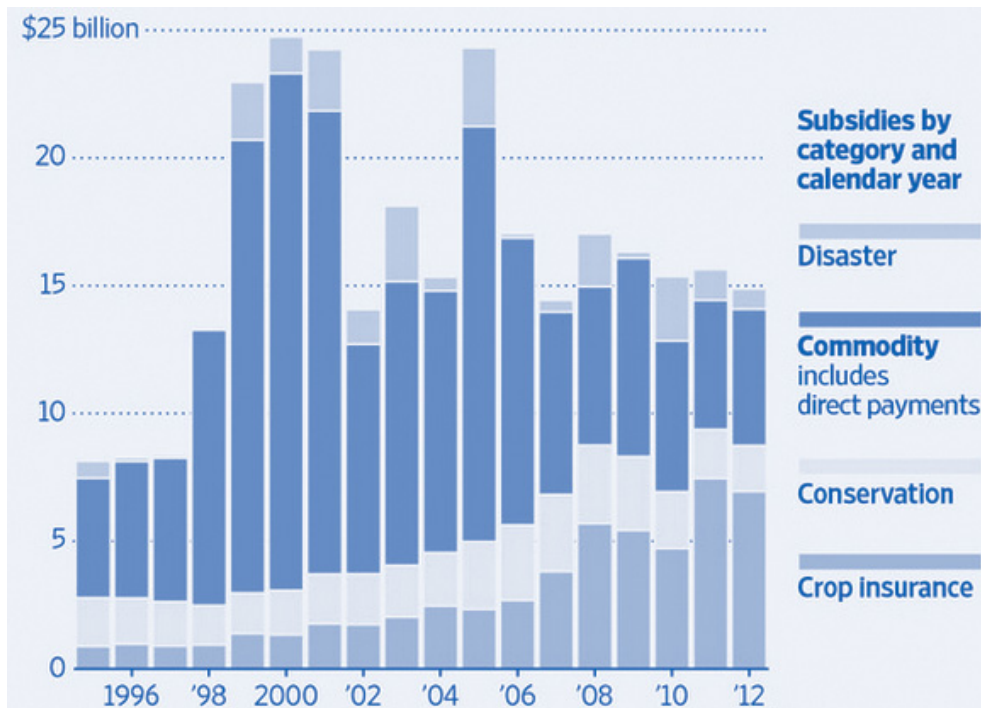
1. 미국 농업법 개정과 농업직접지불제

약 5년을 주기로 개정되는 미국의 농업법(Farm Bill)은 여러 가지 미국 내 정치적·재정적 현안과 맞물려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최근 초당적 타협을 통해 합의된 법안을 이끌어냈고 대통령의 싸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되었다(Agriculture Act of 2014 또는 2014 U.S. Farm Bill). 이와 관련된 미국 내의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은 식품보조지원제도(Food stamp)였으나 농업 및 농민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품목별 농가소득지원정책(Commodity programs)의 방향이었다. 1996년 농업법을 모태로 2002년 농업법의 근간이었던 고정직불제(Direct Payment)는 농산물의 가격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목화, 쌀, 콩, 땅콩 등 주요 품목 생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매년 50억불에 이르는 보조금이 농산물의 가격변화나 40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

* sgkimwin@knu.ac.kr, 053-950-5769.

농업소득과 관계없이 지불되는 터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혜자인 농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작물보험과 수입보장지원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표 1). 최근 월스트리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이 수십억 불의 재정을 절약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장의 가격, 날씨, 농민의 참여율과 농업법의 다른 정책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직접지불제 폐지로 인한 비용절감은 예측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비용증가는 추정하기 어렵다는 코넬 농업경제학과 노바코빅(Dr. Novakovic) 교수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직접지불제의 도입, 주요 국가의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농업 정책의 도입 및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직불제 현황 및 개선 방안, 직접지불제에 대한 최근의 학술적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미국내 직불제 감소와 농업보험 증가 추이



자료: 미국 환경연구그룹(Environmental Working Group),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췌

2. 직접지불제 도입의 역사적 배경

20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고 대공황을 겪은 패권국들은 원활한 식량공급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는 지속된 각국의 농업보호정책으로 국가 재정의 부담과 농산물 공급의 과잉에 대한 문제는 점점 커졌다(박성재 외, 20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진국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 직접지불제이다(박용배, 2006).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지나친 가격지지는 농산물 공급과잉과 재정적자의 누적요인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재고의 누적과 수출보조로 인해 하락한 세계농산물가격, 그에 따른 수출침체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개시의 배경이 된다(박용배, 2006).

직접지불이란 특정 농가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의미하고, 이는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처럼 지원의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집단적이지 않은 소득보조정책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 2에 포함된 직접지불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허용대상정책인 그린박스(Green box)이며, 생산과 무역에 대한 왜곡효과가 적은 보조이고, UR 농업협정문 본문 6조 5항의 생산제한조건부 직접지불은 블루박스(blue box)에 해당하며 미국의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¹⁾와 EU의 보상지불제도 등을 포함한다(서종혁 외, 1996).

3.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현황과 규모

농업 국가뿐만 아니라 농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비농업 국가에서도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농민에 대한 소득지지차원의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직불제 현황은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1) 정부가 정하는 적정 농가수취가격과 실제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세수를 통한 공공재정 또는 소비자의 높은 가격부담 등의 형태로 보전하는 것

표 1. 주요국가의 직불제 실시동향

	구조개선	경영안정 소득보전	다원적기능 발휘	조건불리보전
EU		단일직불	환경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미국		고정직불(DP) 가격보전직불(CCP) 수입보전직불(ACRE)	보전유보계획(CRP) 환경증진계획(EQIP) 보전보증계획(CSP)	
캐나다		소득안정계정(AgriSta.) 농업투자계정(AgriInv.)		
일본	논활용소득보상직불	논밭작물소득보상직불 논활용소득보상직불	농지물환경보전직불 환경보전형농업직불	중산간직불
한국	경영이양직불	쌀소득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직불	조건불리밭직불

자료: 김태곤 외(2009)

■ 유럽연합(EU)

EU의 직접지불제도는 공동농업정책(CAP)의 중심 정책수단이다(이명현, 2013). CAP 태동당시인 1950년대에 농업은 EEC(유럽경제공동체)의 핵심 산업이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안보의 가치가 널리 인식되었다(송주호, 2013). EU의 직접지불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을 띤다(이명현, 2013). EU의 현행 직접지불제 체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왔으며, 단일직불제도 중심이고 동유럽의 신규 회원국들에서는 단일면적지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단일직불제도란 작물의 선택과 무관하게 농지면적에 대응하여 일정한 단가를 농업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응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제도이다. EU의 직접지불제는 유럽농업보증기금(EAGF)에 의해 재원이 마련된다. 직접지불제의 지불규모는 2010년 결산기준으로 약 397억 유로이며, 이는 EU의 농업총생산액의 11%, 부가가치액의 28%에 달한다. 농림수산고용인구 1인당 직접지불액은 EU-27 개국 기준 3,800유로이며, 1인당 GDP의 약 16% 수준이다.

표 2. EU의 직불제 예산 규모 (2010년 기준)

구분	직불총액	농림수산 고용인구 1인당 직불(A)	A/1인당 GDP	직불/ 산출	직불/ 부가가치
단위	백만유로	유로/인	%	%	%
EU-27	39,676	3,793	15.5	11.2	27.6
EU-15	34,803	6,457	24.0	11.6	28.3

자료: 이명현(2013)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2011년에 구체적인 법안으로 제시되었고, 2014년부터 발효시킬 계획이다. 이 중에서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분배상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정책의 녹색화를 통한 목적 지향성을 개선하며, 단순화가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EU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으로, 식량안보 문제, 환경과 기후변화, 지역적 균형 유지 세 가지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체계가 국가 간, 농가 간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있고, 정책의 존재이유가 불분명하며,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에 영향을 받았다(이명현, 2013).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시한 직불제 개혁안의 핵심은 직불제를 기본 지불, 녹색 지불, 단순지불로 삼원화 하는 것이다. 기본 지불(Basic Payment Scheme)은 현행 단일지불제도보다 완화된 대응 의무하에서 지급되는 지불이다.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로는 지역적, 국가적 편차가 큰 단위면적당 지불단가를 균등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절이다. 현재 직불단가는 2003년 이전 각 농지의 지급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농가단위나 지역별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국가 간에도 평균치의 차이가 크다. 개혁안은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한 번에 모든 편차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완화하는데 그친다. 개혁안은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면적당 지불단가를 단일화 하면서 현재 EU 평균 지불단가의 90%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격차의 1/3 만큼의 단가를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로는 지급단가를 완전히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적관리의무와 우수농업환경 조건을 현행 18개, 15개에서 각각 13개, 8개로 줄임으로써 기본지불에 대한 대응의무를 단순화하고 있다. 단순지불(Simplified scheme)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무관하게 정해진 지불금을 단순화된 대응의무 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액수는 500~1,000 유로 범위 안에서 결정되고, 국가별로 지급대상자의 평균 수급액 또는 ha 당 평균지급액의 3배에 연계된다.

표 3. EU 직불금 감액안

직불금 규모 구간(유로)	감액율(%)
15만~20만	20
20만~25만	40
25만~30만	70
30만 이상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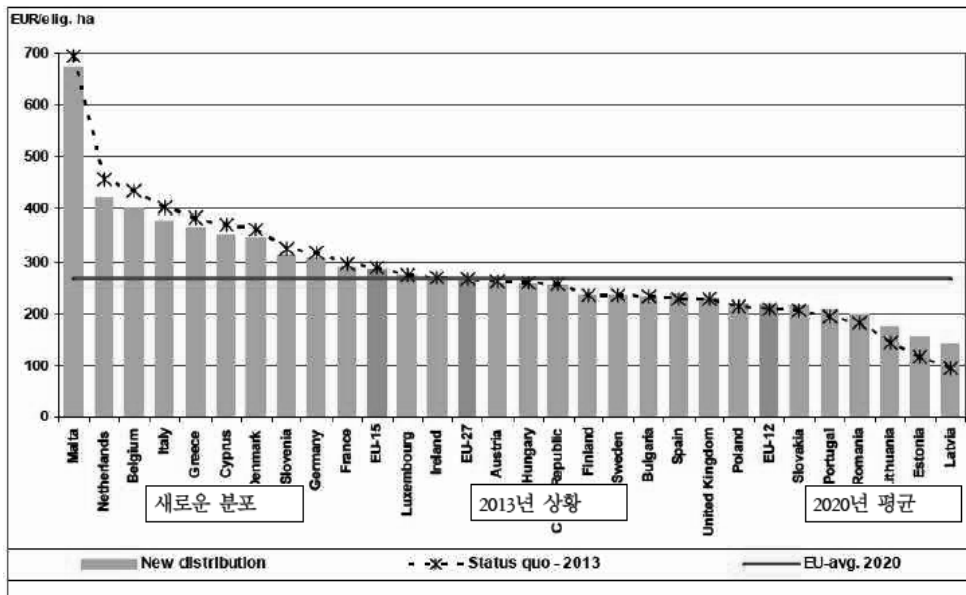
주: 녹색지불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이명현(2013)

이러한 변화 외에도 현 체계에서 제시된 대규모 생산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감액제도를 도입하였다. EU의 현행 직불체계에서는 상위 20%가 직불금의 80%를, 상위 10%가 직불금의 65%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감액제도를 통해 누진적인 감액을 도입하였다.

그림 2. EU 직불의 국가별 지급단가 평균의 분포

단위 : 유로/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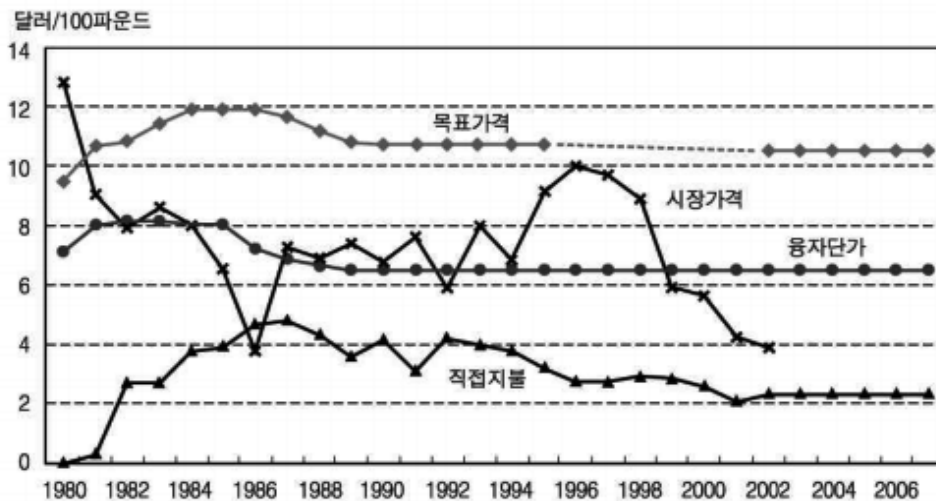
자료: 이명현, 2013

■ 미국

미국 소득정책의 핵심은 품목별 생산비 기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다중 안전장치로 이를 보장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융자제도(Loan Rate)를 기본으로 하여, 과거 생산에 기초하여 지불하는 고정직불(Direct Payment; DP),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CCP를 중심으로 시장가격이 최저지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마케팅론(MAL)과 융자부족불(Loan Deficiency Payment; LDP)로서 시장에서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거나 재고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김태곤 외, 2011).

목표가격(target price)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이를 고정직불(Fixed direct payment)과 변동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로 소득을 보전하는데 2006년까지 쌀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았으나, 2004년 이후 쌀 생산비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2008년 이후 쌀 생산비는 목표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박동규 외, 2013). 생산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은 1980년대 중반의 가격지지 정책의 목표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목표가격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농업인에 대한 과잉지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박동규 외, 2013).

그림 3. 미국 쌀의 시장가격과 융자단가 추이(198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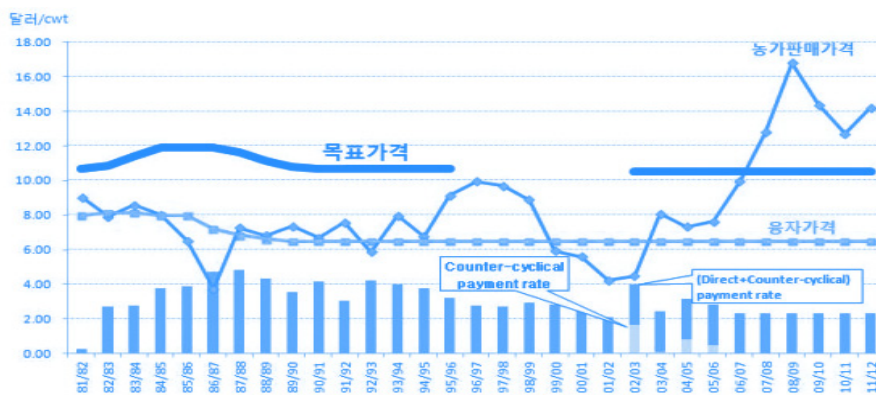
자료: KREI 농정연구 속보, USDA 자료 가공, 김윤중(2013)

WTO 체제 정착 이후 미국은 소득 안전망을 중요시하면서, 부족불제도에서 고정형 직불로 전환하거나, 2008년 농업법에서 수입보전 직불제(ACRE)도입, 2012년 농업법에서 수입손실 보상제(RLC)나 농업위험 보상제(ARC) 도입을 제안하는 등 소비자 부담 보다는 재정 부담으로 전환하였으나, 2010년을 전후하여 바이오에탄올 수요 확대와 국제 곡물가격 호조 등으로 농가 경제여건이 좋아지면서,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김윤중, 2013).

고정직불은 재배 작물의 면적, 생산량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WTO 생산중립 요건을 지향하였으며, 종전의 생산자율 계약제도에 비하여 지급 단가가 인상되고, 대체 작물이 추가되어 농가의 선택 폭이 넓어졌지만, 국제 곡물가가 지속적으로 높아 미국 농가경제 상황이 좋은데도 직불금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고, 또한 경기대응 소득보조(CCP)는 고정된 생산량에 기초하고 가격과 역관계에 있으므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 농가의 소득도 줄어들지만,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폐지가 논의되었다(김윤중, 2013)

이처럼 최근 지속된 높은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이 유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불제(DP)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가격보전직불제(CCP)와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가 발동되지 않는 실효성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대안으로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송주호 외, 2012).

그림 4. 미국 쌀의 목표가격, 용자가격, 시장가격, 직불금 추이



자료: KREI 정책토론자료(2013), 박동규 외(2013)

■ 캐나다

캐나다는 협동조합운동의 영향을 받아 협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 유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산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었다. 마케팅보드는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부여받은 생산자중심의 법정 조직을 말하며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조절 및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Battett and Mutambatsere, 2005). 품목 내 모든 생산자는 강제 가입되며, 해당 품목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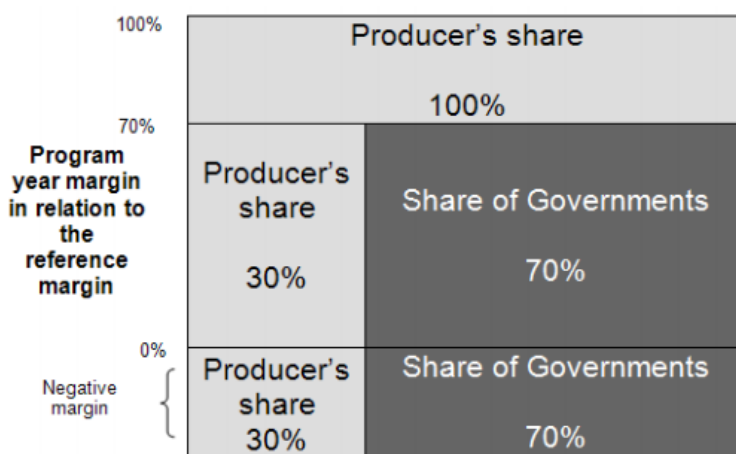
마케팅보드 가운데 가금류 및 낙농부문에 대한 주요정책에는 공급관리정책(Supply Management)이 있다. 축산부문은 다른 마케팅보드에 비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Findlay, 2012). 가금류 및 낙농부문에서 진입제한과 생산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생산쿼터는 연방마케팅보드 담당, 가격결정은 각 주의 마케팅보드가 담당한다. 협동조합은 마케팅보드와는 달리 생산농가의 강제적 가입을 규제하는 법적 조치가 없다. 최근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서비스, 협동조합의 사회기여에 대한 연구지원, 협동조합의 혁신적 사업지원 등 3대 분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허주녕 외, 2013).

최근의 농업정책(Growing Forward)은 2008~2013년까지 추진되었으며,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농업소득안정 프로그램(AgriScability), 농업보험, 재해지원(AgriRecovery), 선지급금 프로그램(Advance Payments Program, APP) 등 경영안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Ant n 외, 2011). 농업투자계정(agriInvest)은 일종의 저축예금으로 농가의 소규모 소득감소에 대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업인은 기금 1에 예치하고, 정부는 기금 2에 농업인의 예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농업인과 정부의 예치금비율 = 1:1, 정부예치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6:4로 부담)한다. 만약 소득이 하락할 경우 농업인은 기금 2에서 먼저 인출하고 기금 2가 고갈된 후 기금1에서 추가적으로 인출하는 구조이다. 기금 1에서의 인출금은 비과세이나 기금2에서 인출은 과세대상이다. 농업인의 예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부가 예치금으로 적립해 주는 구조이나, 실제로 농업인 입장에서는 예금이자율이 100%가 넘는 초고금리 저축상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CAIS(농업소득안정 프로그램)에 종래 NISA(순소득안정계정)제도가 재도입됨으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 프

로그래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소득안정 프로그램(AgriStability)은 기준소득의 70%이하로 소득감소 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해의 이윤이 기izon이윤보다 70%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종의 종합소득보험으로서 소득감소가 많은 구간일수록 보조금 지급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단기적인 소득변동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소득감소추세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림 5. 보조금의 분담 방식



자료: AgriStability, 2014

농업보험(AgriInsurance)은 생산량변동 또는 가격변동에 대응한 품목별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생산량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가격변동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수량보험이 일반적이거나 일부 주에서 가격보험(앨버타 가축보험, 퀘벡 소득안정보험 및 온타리오 위험관리프로그램), 기타 유기농보험(유기농산물 대상), 날씨파생보험 등 특이보험도 존재한다.

재해지원(AgriRecovery)은 악천후, 질병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보충적인 지원제도로 농업보험, 농업소득안정 프로그램, 농업투자계정 등으로 보장되지 않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보완적, 추가적 지원프로그램이다. 재해의 영향에서 벗어나 신속히 비즈니스 운영을 재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선지급금 프로그램(Advance Payments Program, APP)은 생산중 겪게 되는 농가의 현금흐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농업인은 수확 후 시장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 수확물의 판매를 유보하였다가 시장가격이 호전되면 판매하여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

■ 일본

일본의 경영안정형 직불제는 미국이나 EU 등 농산물 수출국과는 달리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생산과 연계한 직불제를 통하여 농가경영안정을 기본으로 하여 식량자급률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현행 직불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의 7개 제도가 있다. 경영안정형 직불제로는 호별소득보상제도(쌀 소득보상직불제, 논 활용 소득보상직불제, 밭작물 소득보상직불제)를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종전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중 기준판매수입과 당년도 판매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수입보전 직불제가 존속하고 있다(김태곤, 2013).

표 4. 일본의 직접지불제

유 형	제 도	비 고
경영안정형 직불제	호별소득보상제도 -쌀, 논활용, 밭작물 소득보상직불제 수입보전 직불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중 일부는 존속
공익형 직불제	환경보전형 직불제 농지물보전관리 직불제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전분가격조정제도 사탕가격조정제도	고구마, 감자 사탕무, 사탕수수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김태곤(2013)

호별소득보상제도의 특징은 논에서 쌀을 감산하는 한편, 논과 밭에서 전략작물 증산을 통해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략작물은 수요가 늘어나고 일본 국내에서 증산이 가능한 작물로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신규수요미(사료용 쌀), 메밀, 유채, 사탕무 등이다(김태곤 외, 2011). 호별소득보상제도는 쌀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쌀소득보상직불제’, 논을 대상으로 전략작물(쌀 대체작물)의

증산을 도모하는 ‘논활용소득보상직불제’, 마지막으로 논, 밭 모두를 대상으로 밭작물 증산을 도모하는 ‘밭작물소득보상직불제’가 있다.

쌀소득보상직불제는 총인구 감소와 1인당 수요 감소에 의해 총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적자경영을 하는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항상적인 적자분을 고정지불로 보전한 후, 당년도 판매가격이 표준판매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변동지불로 보전하는 일종의 부족불제도이다. 논활용소득보상직불제는 논농업에서 쌀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논에서 쌀 대신에 판매가격이 항상적으로 생산비를 하회하며,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하고, 다른 작물과 조합이 가능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작물의 증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태곤 외, 2011)

밭작물 소득보상직불제의 목적은 밭작물 중에서 전략작물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자급률을 향상하는데 있다. 주식용 쌀과의 소득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의 단가를 설정하고 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량단위의 단가를 지불하는 수량지불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단수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생산면적으로 기준으로 지불하는 면적지불을 병행하여 보전한다(김태곤, 2013).

호별소득보상제도의 2011년도 예산으로 8003억 엔을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농업자원 보전이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산간지역직불제, 농지물보전관리직불제, 환경보전형농업직불제 등과 같은 공익형 직불제와 사탕수수 등 특정품목에 대한 직불금을 별도로 1182억 엔을 확보하였다. 직불제 예산의 총액은 9185억 엔으로 농림수산예산의 40.4%에 달한다(김태곤 외, 2011).

4.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현황 및 문제점

한국 농업은 UR농업협상의 타결로 인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한국정부는 WTO농업협상과 다양한 FTA교섭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김태곤, 2012). 우리나라에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1997년의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999년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2007년까지 7종류의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직접지불제 관련 농업예산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의 0.8%에서

2005년에 12.3%로 확대되었다(김태곤, 2012). 현행 직접지불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발농업직불제 등이 있다(황재현, 2007).

표 5. UR 농업협정문의 국내보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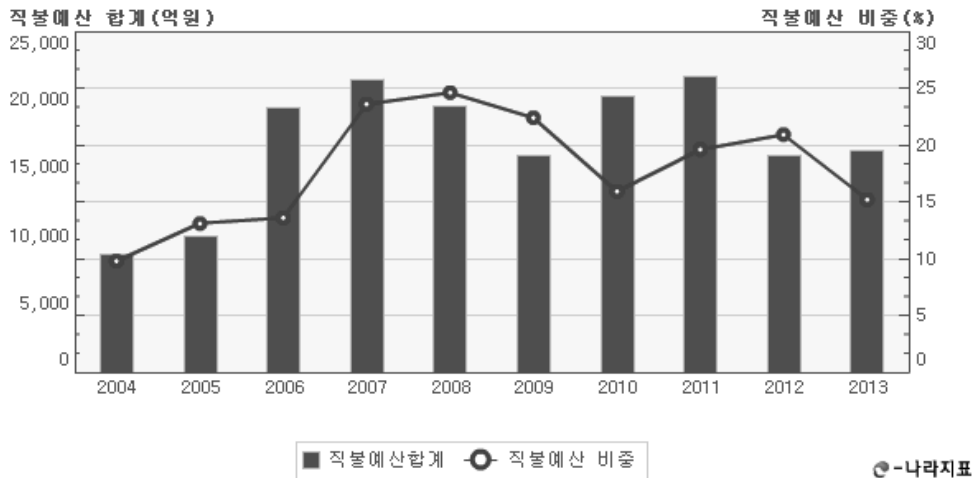
보조 형태	분류	관련규정	관련정책	비고
광의의 직접 지불	허용대상 (협의의 직접지불)	부속서 2의 5~13항 (green box)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재해보상지원 -이탈농지원 -조건불리지역지원 -환경농업지원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디커플링 된 지불)
		6조 5항(blue box)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 -개도국의 농업투자	EU의 보상직불제 농업 및 농촌개발투자
	감축대상	6조1항(amber box)	-투입재보조 등 일반적 소득보조	최소허용보조비율 내에서 보조는 허용(협정문 6조 4항)
간접 보조	감축대상	6조1항	-가격지지 등	
	허용대상	부속서 2의 2~3항	-연구, 지도 등 일반서비스 정책 -식량안보 비축제도	

자료: 서종혁 외(1996)

직불제를 유형화하면, 소득을 지지하거나 안정화하는 경영안정형,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공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안정형 직불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변동직불),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이 있으며, 공익형 직불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이 해당된다.

2013년 순 직불제 예산은 1조 511억 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경영이양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및 경관보전직불금, 발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직불금도 포함되어 있다(김윤중, 2013).

그림 6. 국내 직접지불금 현황



자료: 나라지표, 2013

쌀직불제는 2008년 3월에 기존의 목표가격 17만 83원/80kg을 유지하면서 5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2005년 수확기 쌀 가격이 80kg 당 14만 28원(전년대비 13.4% 하락)이었으나 농가수취액은 16만 5,574원으로 목표가격의 97.3%수준으로 안정화되었으며 2012년산 농가수취액은 목표가격대비 108.9%에 달했다(박동규, 2013).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가격 기준으로 쌀 농가의 소득 지지와 안정화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고정지불은 소득을 지지하고, 변동지불은 소득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시장가격과 농가수취가격을 분리하여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동시에 생산자에게는 직불금을 통해 목표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하여 수매제와 같은 가격지지제도와는 다른 효과를 낸다(김태곤, 2012).

FTA피해보전 직불제는 FTA를 통한 인위적인 시장개방에 의해 수입이 증가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일정 수준으로 보전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농업보조금정책 중 가장핵심적인 정책인 직접지불제는 당초 UR협상 등의 결과 시장 및 무역왜곡적인 농업보조정책들(가령 수매제도 등)을 감축하는 대체수단으로서 도입되었고,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시장으로의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소득을 일정정도 지지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게 되었다(김재경, 2012). 그러나 한편으로 비록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직접지불제이지만, 2011년 기준으로 총 직접지불금 예산의 87%(약 14,188억 원, 2012년 기준으로 72%)가 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고정형, 변동형 포함)라 할 수 있다(김재경, 2012).

밭은 전체 경지면적 중 약 43.5%를 차지하고 있어 밭을 중심으로 한 농업활동 역시 중요한 소득 창출원의 역할을 해왔다. 지속적으로 입법화 노력과 병행되어 오다 지난 2012년 1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해당법률에 따라 공부 상 지목이 밭인 토지에 대해서 규정된 밭작물 품목을 재배할 경우, 1ha 당 40만원(=40원/ m^2)의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었고, 2012~13년 시범적인 운영과정을 마치고, 2014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에 있다(김재경, 2012).

우리나라도 직접지불 보조금의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첫째, 직접지불제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체계화가 부족하다. 이는 직불 보조금이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전체적으로 불균형하고, 일관적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직불제 도입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가단위로 종합적 소득안정을 제고하는 장치가 부재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이나 농업인 소득감소에 대응한 안정화 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직접지불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제도인 만큼 농가소득안정 기여정도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검증은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약 100만호에 달하는 농가를 점검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럽처럼 농가인구가 3%정도로 감소했을 때, 시행효과가 극대화된다(김윤중, 2013).

각 직불제의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논의되고 있다.

■ 경양이양 직접지불제

경양이양 직접지불제는 농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은 대부분이 영세농과 고령농가로써 미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경양이양 직접지불제의 보조금 지급단가가 낮아 소득보전을 위한 고령농가의 영농 은퇴수단이 되지 못한다. 또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와 다른 종류의 직접지불제는 서로 추진기관이 달라 수혜대상자 관리에 대한 정보공

유가 어렵다. 따라서 현행 보조금지급단가보다 높은 직접지불금으로 영세농가, 고령농가의 적정수준의 소득보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지불제의 추진체계를 재 정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권두만, 2005).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외부효과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환경친화적 농업 부문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시장기구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지급기간이 다소 짧고, 수혜대상이 단편적인 농가에 그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경우 관행농업에 비해 초기 생산비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김창길 외, 2004). 관행농업에 비해 친환경농업의 소득이 낮은 기간이 약 4년인 것에 비하면, 현행 3년의 지불기간은 짧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이 파급되려면 직접지불금이 비교적 집화된 농지 등에 지급되어야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농지별 지원으로 그 효과가 미비하다(권두만, 2005).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우 영농장부를 작성하고 관련된 정보를 DB화하여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며, 준수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상응하는 벌칙이 필요하다(박동규, 2004).

■ 밭농업 직접지불제

2012년부터 밭농업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밭에 19개 정책품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정책품목의 재배면적이 늘어나 자급률이 향상될 것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책품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의 불만도 많다.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이행점검을 위한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이다.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밀이나 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밭농업직불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겨울철 논에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경관보전 직불제 지급조건을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박동규, 2013).

■ FTA 직접지불제

FTA 피해보전 직불제가 선행하여 실시됨에 따라 당초의 소득안정 직불제 간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안정 직불제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대상품목을 분리하는 경우,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품목을 사후 결정하나 소득안정 직불제는 사전에 지정해야하기 때문에 양자간 품목을 달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대상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격하락의 요인을 FTA 요인, WTO요인, 기타 용인 등으로 구분하여 보전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발동기준을 차등화하면 효과적인 소득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김태곤 외, 2011)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연간 28조 3,700억 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어 농업 GDP의 1.4배, 재배업 GDP의 1.7배에 달하여 농업의 경제외적 효과가 경제적 효과보다 크다(오세익, 2004). 정부는 유희 농경지의 증가에 따른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질 저하를 막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여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다. 농촌경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어 그 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선정된 대상지역의 대부분이 경관작물(유채, 메밀, 해바라기, 목화 등)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한정하여 직접지불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경관의 광의적 의미는 자연적 환경과 더불어 사람들의 농업생산과 관련한 가치관, 관습, 주거형태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한다. 이에 경관작물로 한정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보다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자원의 유형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구단위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권두만, 2005).

표 6. 직접지불제 실시현황, 2010년

	대상농가 (천호)	실시면적 (천ha)	단가 (천원/ha)	지불금액 (억 원)	비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지불 837 변동지불 781	고정지불 883 변동지불 789	고정지불* 700 변동지불**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	고정지불 6,223 변동지불 7,501	-하한면적 10a -지급상한면적 개인 30ha 법인 50ha
친환경 직불제	116	논 49 밭 44 계 93	논(유기) 392 밭(유기) 794	계 376	-지급한도 호당0.1~5.0ha
경관보전 직불제	18 (795지구)	논 15 밭 10 기타 2 계 17	경관작물 1,700 준경관작물 1,000	국비 156 지방비 67 계 222	-대상지역 경관작물 2ha이상 단지 준경관작물 10ha이상단지
경영이양 직불제	3.9	계 3.4	매도·임대 월 250	계 533	-지급상한 2ha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98	논 37 계 37	논 3,000	계 1,110	-2011~13년간 한시적 실시 -하한면적 10a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51	논 2 밭 81 과 18 초지 3 계 103	논·밭·과수원 500 초지 250	국비 355 지방비 152 계 507	-하한면적 10a
FTA피해보전 직불제	-	-	발동기준**** 90% 미만 하락 보전비율 차액의 90%	-	-지급한도 개인3,500만원 법인5,000만원

*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지불 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안 746천원, 농업진흥지역밖 597천원이다.

** 변동지불단가는 [목표가격(170,083원/80kg-당해연도수확기(10월~익년1월평균 쌀가격)×85%)-고정지불금으로 계산한다. 1ha당 수량은 61가마로 고정되어 있다.

***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은 쌀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논에서 콩, 사료용 옥수수, 총채벌, 채소류, 고추, 감자, 특용작물, 잔디, 약용작물 등을 식부하는 농가에 지불하며, 사업실적은 2011년 기준이다.

**** 품목별 기준가격은 직전 5개년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이다.

※ 상기 직불제 외에 발농업 직불제가 2012년부터 실시된다(대상농가 681천호, 면적 143천ha, 예산 624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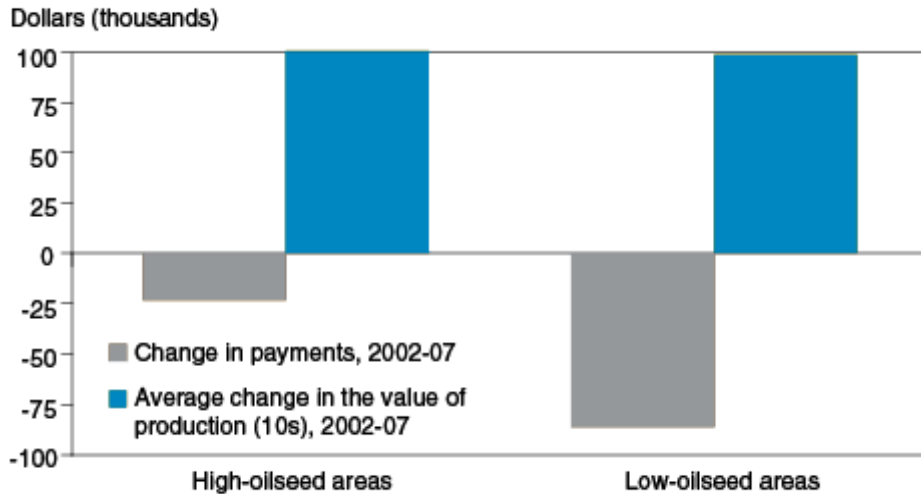
자료: 김태곤(2012)

5. 직접지불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미국은 1996년 농업법이 발효된 이후 연방 농업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면적이나 옥수수, 밀과 같은 작물의 과거 수확량을 토대로 직불금을 보조해왔다. 2002년과 2008년 농업법에 의한 직불제는 현재의 생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비연계적(decoupled)인 정책보조금으로 간주되었다. 직불금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세계 무역기구(WTO)의 분쟁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ERS)는 직불제가 생산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농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ERS의 분석은 직불제가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는 계량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직불제는 해당 작물의 과거 생산성에 연결되어 있고,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계속하여 생산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높은 생산성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직불금을 받는 정(+)의 상관관계는 관측된다. 그러나 직불금과 생산성의 통계적 관계가 유의하다 하더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유도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2002년 농업법은 대두 등의 지방종자 작물(oilseed crop)에 대해 처음으로 직불금 보조를 시작했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높은 평균 생산성 지역의 급격한 직불금 증가가 발생되었다. 2002년 농업법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된 직불금을 살펴보면, 평균 이상과 평균 이하의 대두 생산성 지역의 직불금액이 생산성과 관계없이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높은 생산성 지역의 삭감액(약 23,000불)은 낮은 생산성 지역의 삭감액(약 86,000불)을 비교하여 생산성이 높은 지역의 직불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생산 증대에 있어서는 과거의 생산성이나 직불금액에 상관없이 각각 약 백만 불 가량 증가하였다. 이것은 직불제가 생산 의사 결정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농업경제학회지에 발간된 연구논문 “직불제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도구변수 접근방법을 참고하면 된다(Weber and Key, 2012).

그림 7. 미국의 지방종자 작물에 대한 직불금액과 생산량 변화(2002-2007년)



자료: Amber Wavers, USDA ERS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농업보조금으로써 직불제가 고안될 때 직불금이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직불제의 농업보조금으로써의 충실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악화, 이해관계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시, 학술적 연구를 통한 유효한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대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해를 통한 정책적 지지기반을 넓히지 않고서는 장기적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참고 문헌

- 권두만, 2005,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중, 2013, “농가소득 안정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재경, 2012,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공간 형평성 평가”, 한국정책학회보
- 김창길, 김태영, 2004,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업의 생산비 비교”, KREI 농정연구속보, 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2009,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채광석, 허주녕, 2011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의 쟁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2012, “농가소득 안정과 직접지불제 개편”, 『농업전망 2012 :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 1-2』, 133-164.
- 김태곤, 2013, “일본의 직접지불제(1):호별소득보상제도의 성과와 특징”, 『세계농업 제14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42
-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김배성, 박경철, 2004, “중장기 직접 지불제확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동규, 2013,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동규, 승준호, 2013, “쌀 직불제 합리적 운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동규, 2013, “직접지불제 오남용 우려”, KERInon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 박준기, 송주호, 채광석, 문한필, 2011,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쟁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용배, 2006, “농업직접지불제”,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 국립산림과학원, 125-131.
- 서종혁, 김명환, 오내원, 이규천, 박진도, 황연수, 김학중, 김기주, 1996, “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주호, 임정빈, 이현옥, 다니엘 썸너, 박한울, 2012,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제정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주호, 임송수, 정다운, 김수지, 2013, “WTO 농업보조금 분쟁사례 분석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김동원, 박혜진,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명현, 2013, “EU 직접지불제: 현황과 개혁을 둘러싼 논쟁들”, 『세계농업』, 제 1권, 제 149호, 43-56
- 허주녕, 조백희, 2013, “캐나다의 농가소득 안정정책”, 『세계농업 제149호』

황재현, 2007, “시장개방하 직접지불제 도입과 개편방향”, 『기획논문 I : 세계화와 시장개방』

Ant n, J. S. Kimura, and R. Martini, 2011,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in Canada”, OECD, France.

Christopher B. B. and E. Mutambatsere, 2005, Marketing Boards, Cornell University.

Martha, H. F. 2012, Supply Management: Problems, Politics and Possibilities, Th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Calgary.

Weber, J. and N. Key, 2012 “How Much Do Decoupled Payments Affect Production? An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With Panel Data”,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4(1): 52-66.

나라지표, 2013, www.index.go.kr/

캐나다 농식품부,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http://www.agr.gc.ca/eng/?id=1291828779399#11>

<http://www.agr.gc.ca/eng/?id=1290176119212>

<http://www.agr.gc.ca/eng/about-us/key-departmental-initiatives/growing-forward-2/business-risk-management-programs/agrirecovery/?id=1200689505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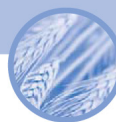


part

0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2014 World Grain Market



FAO 곡물시장 뉴스 / 121

해외곡물시장뉴스 / 135



FAO 곡물시장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미국 농업법, 직접 고정 직불제 철폐

미국 의회는 작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부들에게 지급한 직접 고정 직불제를 폐지하는 농업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연간 5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농업법은 농작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홍수와 서리 또는 가뭄 등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보다 호혜적인 작물재해보험을 생산농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호주 곡물 생산자 협회의 회장인 Andrew Weidemann씨는 호주 농업인들에게 종합재해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주정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생산자들이 매년 비가 올 것이라 믿고 수백만 달러들을 투자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감소가 늘어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전체적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는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종류의 제도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농업경제학자인 Vincent Smith 교수는 미국 농업법이 곡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관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가 원래 계획한 것과 같이 10년간 230억 달러를 절약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Smith 교수는 수익 보호 프로그램이 밀 가격과 옥수수 가격을 너무 높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의회예산국은 향후에도 높은 옥수수와 밀의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많은 이들은 옥수수 한 상품에 대한 수입보전 지출이 40~50억 달러로 예상한다.”

하지만 미국 농사 개량 동맹(US Farm Bureau Federation)은 농업법의 의회통과를 환영했다. 미국 농사 개량 동맹의 수석 경제학자인 John Anderson은 곡물 가격이 낮게 지속되지 않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의회 예산국은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10년간 230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말한다. 절약하지 못하고 더욱 큰 지출이 들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앞으로 10년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강한 추정을 하고 있다.”

■ 이집트가 프랑스에게: 당신들 밀은 너무 습하다

프랑스 밀은 파리에서 바게트를 만들기에는 흡족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카이로의 발라디빵 제빵사들의 검열을 통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프랑스 농부 협회를 분노하게 한 이번 결정은 이집트의 정부 곡물 기관에서 비공개적으로 수입되는 밀의 수분 함유량 허용 수치를 변경한 것이다. 즉 프랑스산 밀이 너무 습하다는 것이다.

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 또는 GASC로 알려진 이집트 기관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관의 이러한 입찰 과정에 익숙한 상인들은 더 이상 평균 수분 13%를 초과하는 것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산 밀은 평균 수분 13.5%의 수분 함유량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조짐은 GASC가 그들의 최근 매입 내용을 공지한 화요일 날에 밝혀졌다. 이들은 24만 톤의 밀을 구매했으며, 이 중 18만 톤은 러시아에서 그리고 6만 톤은 미국의 적색 연질의 겨울밀을 구매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는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목요일에 GASC 대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을 구할 수 없었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주로 GASC를 통해 밀을 수입하며, 정부 보조 빵은 그들의 8천만 이상의 인구를 위한 주요 식품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결정으로 프랑스 주요 수출품이라는 긍지를 지닌 업계를 좌절시키고 있다. 프랑스 농부들은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1백만 톤의 밀을 이집트로 수출했다.

유럽 농업 조합인 Copa-Cogeca의 대변인은 이집트의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 밀 생산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목요일 파리의 제분용 밀 선물을 4개월 반 만에 가장 낮은 레벨로 떨어뜨려, 하루만에 1톤당 186유로(254달러)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이집트의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적 밀 시장에 대한 다른 현실을 반영해준다. 밀의 과잉 생산으로 재정난에 처한 이집트마저도 까다롭게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수분은 밀에서 분쇄될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을 감소시킨다. 프랑스는 그들의 밀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는 올해 초, 비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겪어왔다.”고 정부 농업 기관인 France Agrimer의 대변인 Virginie Nicolet이 말했다.

밀 가격은 2013년에 22% 하락했고, 이로 인해 곡물 중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 되었다. 호주, 캐나다 그리고 구소련과 같은 주요 생산국들이 풍작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염가로 팔게 된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집트는 기존 보다 낮은 수량을 구매했다.

프랑스 곡물 단체인 France Export Cereales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재배 시즌에 밀 품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루마니아와 함께 프랑스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수익성 좋은 중동과 북미 지역시장에서 팽팽한 경쟁을 펼쳐왔다. 몇몇의 상인들은 만약 다른 지역의 수입국들이 이집트의 선두를 따른다면 이제 남은 시즌간 프랑스의 수출은 끝난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럽연합집행기관에 따르면 2013년에 프랑스 농부 1인당 수입은 16.4% 떨어졌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2년에는 프랑스 농부들이 31억 유로의 밀을 해외로 수출했다. France Export Cereales는 그들이 이집트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며, 이집트의 국제 밀 대외구매에 프랑스산 밀 수량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문서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집트의 움직임이 그들이 곡물 대외구매 출처가 평균 보다 적을 때, 미국산 밀이 이따금씩 이용될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에 몇몇 흑해 항구들이 얼어붙어, 이집트와 같은 바이어들이 프랑스와 호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게 만들며, 미국산 밀은 일반적으로 12% 또는 이하의 수분 함유량을 나타낸다.

“보통 매년 이맘 때쯤이면 프랑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지만, 이집트가 그들을 명단에서 제외시켜 버렸다.”라고 오하이오주 Beavercreek에 위치한 브로커 업체인 Spectrum Commodities의 사장 Louis Gartner이 말했다. “이는 분명 더 많은 수요 가능성을 우리쪽으로 유도해 준다.”

그러나 목요일 미국 밀 선물 시장에서 이집트의 변화는 미미한 영향만을 주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3월 밀 운송은 2센트 또는 0.4%올라 부셸당 \$5.53½가 되었으며, 이는 주간 정부 보고서에 큰 수출 판매와 수요일에 3½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떨어진 이후 밀이 값싸졌다는 심리로 인해 초래되었다.

■ 부실 정부 정책들로 인한 인도의 방대한 작물 증가

최근 전망에 따르면 현재 인도 들판에 있는 밀 수확량이 1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직 중국만이 그런 연간 생산량을 단 한번 넘어선 적이 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생산량에는 어떻게 인도 정부의 최소 가격 보증 정책이 작물량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인도 관리들은 밀 보조 가격을 2005/06부터 꾸준히 올려와, 가장 최근에는 13,500루피 또는 톤당 228 달러까지 올렸다. 이것은 농부들에게 밀을 더 심으라는 신호로 작용했다. 이제, 인도의 대부분 창고 수용량은 이월 재고량 약 2천만 톤으로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

시장 보조 가격은 이야기 전말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 창고 보관 가격 그리고 밀을 국내에서 인도의 수출 시설들로 옮기는 운송비들을 포함하면 비용이 1톤당 80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월14일에 마감되는 수출 매입에 따르면 인도의 정부 무역 기업체들이 3개의 화물들을 1톤당 279.52달러에서 283.60달러로 판매했다. 밀을 항구로 이동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확연히 인도 정부 내의 세력자 누군가가의 잘못된 영향력 행세로 인해 상당한 수출 보조금이 없이는 세계 밀 시장에서 겨룰 수 없게 되었다.

공평하게 따지자면, 미국 정부도 그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밀 농부들에게 구조망을 제공한다. 한 프로그램은 목표 가격을 정해, 만약 현금가격이 목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이 가격을 농부들에게 지불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인도의 1톤당 228 달러의 최저 가격 보조에 비해 미국 정부의 목표 가격은 1톤당 153달러로 미국 농산물 직거래 가격(farm gate prices)과 농부들의 생산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미국은 세계 무역 기구(WTO)의 회원국으로써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995년 인도가 WTO에 가입했을 때, 그들은 농산물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동의했지만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열린 WTO 각료급 회의에서 인도측 교섭자들은 그들의 식량 보유 프로그램을 위해 보조금 규정으로부터 인도를 면제해주지 않는 결과는 모두 거부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가입 시 합의 사항을 저버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도는 밀이 넘쳐난다.

세계 두 번째 밀 생산국이며, 이제는 불규칙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출국으

로써 인도의 밀 정책들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덕스럽고 가끔은 모순되는 가격 보조와 수출 정책들이 그들 국경을 넘어 쏟아져 나와 세계 밀 무역에 유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에는 세계 시장의 실체를 반영하는 정책들이 밀 농부들과 그들 소비자들에게는 더 이로울 것이다.

■ 유전자 조작 상품 수입 금지가 지속되며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옥수수를 제한하다

중국은 허용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종을 포함한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 제한을 최소 3월 말까지 유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Syngenta가 개발한 종자를 신속히 허용해 달라는 워싱턴의 압력을 떨쳐버릴수 있게 되었다.

중국 법률하에 유전자가 변형된 MIR 162 종류의 허용은 빨라야 늦은 3월이며, 이는 농무부의 생물학적 안정성 위원회가 그들의 연간 회의를 여는 시점이다. 만약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다음 심의는 6월이 될 것이다. 하지만 관리들은 연간 재고저장이 끝나는 4월말까지 수입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상인들은 말했다.

중국은 시장 가격을 보조하고 농부들의 이익 보장을 위해 목화부터 곡물까지 넓은 범위의 농업 상품을 저장하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의 세계 세 번째 수입국인 중국이 MIR 162의 존재를 감지한 이후, 작년 말까지 60만 톤 이상을 돌려보냈고, 이는 중국의 2013년 총 수입량 중 약 1/5에 해당된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Syngenta가 개발한 Agrisure Viptera라고 알려진 이 종자를 속히 허용하도록 재촉해왔다. 베이징은 중국이 2011년부터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로 MIR162가 다른 종자와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부터 선적물들에 대한 엄중단속을 시작했다. 유전자 변형 종은 작물 유해 해충들을 상대로 한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고,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허용했다.

얼마나 더 많은 미국산 옥수수가 수입을 제한 당할지 물었을 때, 중국의 검역부서는 팩스를 통해 엄중한 검사로 수입 금지되는 수량이 이미 영향받은 수량을 넘어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세한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들의 수입 제한으로 인해 세계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격은 이미 작년에 약 40% 하락하였다. 수출업자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화물들을 되팔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수입을 위해 15가지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허용했고, MIR162는 허용을 기다리고 있다. 두 미국 곡물 단체들은 중국과 다른 미국 수출 시장들이 승인을 할 때까지 Viptera와 다른 유전자 변형 옥수수 종인 Duracade의 미국내 산업 이용을 유예해 달라고 Syngenta에게 요청했다. Syngenta는 미국 마케팅 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것은 제도 내의 곡물 자체에나 중국이 옥수수 수입을 허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중국 부 농무부 장관인 Niu Dun은 이 종자가 기관으로부터 수입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지난달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입 금지가 물량이 충분한 시장에 값싼 수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추측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중국의 검역부서는 그들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 검사와 법률 적용이 일관되게 행해져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다렌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가격이 국내 수확이 9월에 시작된 이래로 14% 하락함과 함께 수입 제한이 시작되었다. 이미 중국 바이어들이 계약한 약 2백만 톤의 미국산 옥수수가 적재되지 않았고 취소될 수 있다고 익명을 요청한 싱크탱크의 관리가 말했다.

이 종자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옥수수가 주 성분인 사료용 곡물인 미국산 주모(DDGs)의 수입 제한도 초래했다. 몇몇 대형 사료 분쇄업체들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검역부서와 만나 DDG는 사료 성분이기 때문에 면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관리들은 그들의 요청에 냉랭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충분한 옥수수 재고량과 함께, 작년에 조류독감 발생과 식품 스캔들로 인해 육류 소비가 떨어져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사료용 수요가 떨어진 이후, 중국 또한 부진한 수요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 농무부(USDA)은 회계 년도가 끝나는 2014년 8월까지 중국의 예상 수입 수량을 7백만 톤에서 5백만 톤으로 감소시켰다. 중국은 대부분의 옥수수 수입을 미국에서 한다.

■ 철도 결함이 기록적 캐나다 수확을 세운 농부들의 즐거움을 앗아가다

올해 기록적인 수확량을 기록한 캐나다 보리 재배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운송 지체로 인하여 날려버릴지 모른다.

보리 재배농가들은 낮은 국제 곡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작년 보리 생산량이 1/3 증가한 헥타르당 3.86톤을 생산하여 괜찮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의 운송에 어려움을 겪어 약 90%를 책임지는 캐나다의 농업 심장부인 대평지에 대략 3백만 톤의 곡물이 남겨져 운송되기만을 기다리며 농부들의 희망을 앗아갔다. 운송의 지연으로 재고가 발생해 농산물 직거래 가격을 악화시켜 이윤의 가능성도 낮아졌다.

“운송 수단이 없다면 많은 재고량은 농부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며 캐나다에 본사를 둔 맥주맥 자문회사 RMI Analytics의 Darren Smith가 말했다.

“재고량은 이윤을 낮추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규모는 항구에서의 작물 가치에 비해 많은 농부들에게 제안하는 할인 가격에서 볼 수 있다.

CAN \$240/톤 정도로 사료용 보리가 밴쿠버에서 팔리면, 운송비를 감안했을 때 농장가는 CAN \$200/톤 또는 이상이 일반적 계산이라고 Smith씨는 Agrimoney.com에서 말했다. 그러나 Lethbridge의 내륙 터미널까지 운송된 기준 가격마저도 현재 CAN \$155/톤으로, 약 CAN\$50/톤이 할인되어 농무부가 2013/14 전망한 CAN \$180-210/톤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전체적인 캐나다산 보리 수확을 계산했을 때, 약 CAN\$5억 달러가 손실 위험에 처했으며, 카놀라와 밀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나, 이들이 갖는 수출 프로그램에 더 큰 중요성으로 인해 항구로 우선 운송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쌓인 초과정박 비용을 생각해보라,”라고 Smith씨가 말했고, 밴쿠버 대기 선박들이 현재 37척에 달하며, 이는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고 비용이 하루에 약 1만 달러로 예상된다.

이 운송 지체는 2014년 북미의 새해를 시작한 추운 날씨의 부분 영향을 받았고, 올해 캐나다의 수확된 농작물인 약 9,650만 톤 중 4,460만 톤이 2013~14 기간 내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백만 톤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량은 캐나다의 역청탄 추출 증가로 인한 추가 석유 중량과 열차 적재량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Canadian Pacific으로부터의 자료에 의하면 석유를 포함한 산업용 제품의 열차 운행 1화차적재량이, 작년 첫 9개월 동안 10% 증가해 386,000대, 이후 또 2% 증가해 317,000대가 곡물을 선적하였다.

“열차로 운송되는 석유의 중량이 크게 늘어나며 곡물 운송을 위해 남는 열차 수

량에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라고 Smith씨는 말했다. 이에 더하여, “밴쿠버(항구)에 이용 가능한 적재량 또한 수 년에 걸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같은 현상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은 시즌 말에 많은 재고량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 2013년에 수확된 보리를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면, 8월에는 서까래까지 차있을 것,”이라고 Smith씨는 말하며,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1년간 보관량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운송이 수월해지는 겨울 말부터 다음 수확 시기까지의 기간은 “모든 재료를 처리하고,” 농장 재고량을 서서히 줄이기에는 충분치 않다.

소비자 중에서도, “맥아 제조사와 사료 제조사들 중에도 올해 작물 말까지 재고가 꽉찬 이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재고량이 가격을 하락 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그 다음해에는 보리 파종의 빠른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초에는 높은 한 자리 수의 보리 파종 감소가 예상된다.”

■ 더 이상 미국 정부의 곡물 시장이 아니다

밀의 가격은 흑해 지역 국가들에 의해, 그리고 옥수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의해 좌우된다. 분석가들은 세계 곡물 가격이 쉽게 약세인 것은,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CBOT)에서의 하락이 전혀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흑해 지역의 가격 움직임은 선물 거래소에서 보이는 것과 정 반대의 동태를 보여 왔다. 미국의 농업 무역 주도제는 하락하고 있고, 다른 출처들이 발돋움하고 있다. 이것은 몇몇 사실들이 뒷받침 해 준다.

미국의 세계 밀 무역 점유율이 1990~2008년의 30~35%에서 20%로 감소했다. 최근에는 흑해 국가들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가장 큰 밀 수출 연합으로써 약 3,500만 톤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세계 총 수량인 1억 400만 톤 중 약 2,800~3000만 톤을 점유하고 있다.

세계의 가장 큰 밀 바이어인 이집트는(연 1,000~1,200만 톤) 다른 아프리카와 서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흑해산 밀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극동 아시아는 그들의 밀을 호주로부터 구매한다. 2011년 이래로 500~600만 톤의 인도산 밀 수출이 흑해와 호주산 밀과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의 선물 거래소들인 CBOT와 캔자스 상품 거래소(KBOT)는 더 이상 가격 대를 파악하는데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다. 헤지펀드의 높은 사수측이 선물

거래에서 가치 평가를 왜곡시킨다. 이러한 거래들로 인해 추측되는 가격 동향은 (상승세 또는 하락세) 다른 근원들에 의해 무시당한다.

2013년 마지막 4분기에는 인도산 밀과 비교할만하고 KBOT에 의해 표기되는 미국산 단단한 적색 겨울 밀이 45달러/톤(\$290fob)하락했으나, 흑해는 250달러에서 295달러까지 45달러/톤 상승했다.

인도의 수출 관점에 의하면 흑해의 가치가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들의 선물 거래소들 보다 더욱 관련성이 있다. 이에 더해, 인도 본선인도 수출가는 가장 가까운 근원인 흑해와 호주의 도착 가격(CIF)과 비교되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의 가장 큰 옥수수 생산국으로써 약 3억 5,000만 톤을 생산한다. 그들은 2000~08년까지 세계 조립 곡물 점유율의 60%를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40%로 감소했다. 최근 중국이 GMO 연관 이상으로 미국산 옥수수의 60만 톤을 “수입 거부”했으나, 중국은 연간 약 500만 톤의 옥수수를 필요로 한다.

미국이나 그들의 판매자들은 앞으로의 비즈니스 관계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중국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국제중재재판 또는 WTO에 고발할 용기를 낼 수 없다. 결국에는 중국이 그들의 6,500만 톤의 대두 수입 분량 대부분을 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폐기된 옥수수 화물들은 결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 할인된 가격으로 떠넘겨졌다. 어쩌면 CBOT 가격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는 이들의 2014년 1월10일자 월간 보고서에 옥수수 수확량을 감소시켜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우크라이나 각각 2,000만 톤씩 수출한 옥수수 또한 미국 가격에 완충 작용을 했다. CBOT보다는 이 세 국가 트리오가 오히려 세계 옥수수 가격들을 결정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이 현재 그들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 남미 국가들이 더 높은 GMO 옥수수 생산을 하도록 지원했었다는 것이다. 인도의 옥수수 수출 또한 미국이 아닌 이 트리오들을 바탕으로 눈금 매긴다.

■ 남아프리카 흰옥수수와 노란 옥수수 가격이 가뭄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다

작년 옥수수 주요 재배지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재고가 부족해 남아프리카의 흰옥수수와 노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였다. 요하네스버그 거래소 마감시장에서 3월 인도분 흰옥수수 선물가격은 0.3% 인상된 1톤당 3,004란드(277달러)를 기록하였

다. 이번 거래장동안 1톤당 3,039란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남아프리카 선물 거래소가 1996년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거래가격이다. 노란 옥수수 또한 2% 인상된 2,975란드에 거래되다가 0.6% 오른 1톤당 2,934란드로 장을 마감하였다.

“아주 소량의 이월 재고가 남았다.”라고 남아프리카의 Klerksdorp에 기반을 둔 Senwes Ltd.의 분석가 Thys Grobbelaar이 전화로 말했다. “이것은 작년의 가뭄과 약한 랜드 환율로 인해 초래된 것이며, 이로 인해 수입이 더욱 값 비싸졌다.”

기업농을 대표하는 Grain SA에 따르면 남아프리카는 새로운 옥수수 수확이 시작되는 4월까지 약 50만 톤이 부족할 것이다. 흰색과 노란색 옥수수의 생산량은 특히 북서쪽 지방의 2012년과 2013년 파종 시기에 기록한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감소할 전망이다.

■ 곡물에 불리함

농업은 아르헨티나의 원동력이나, 끊임없는 정부 개입으로 인하여 약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수출관세를 올리고 수출 할당을 정하여 2006년부터 밀 생산에 개입하였다. 정부가 아르헨티나 소비자들의 “식탁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행하는 이러한 개입은 농부들의 생산의지를 저하시켰다.

정부 개입은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예상밖의 흉작으로 인해 빵 가격이 두배 인상되자, 정부는 밀 수출을 보류하였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2월 달에 밀을 전혀 수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는 이제 약간 완화되었다. 1월 13일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인 Axel Kicillof는 정부가 50만 톤의 밀과 5만 톤의 밀가루 제품들의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덧붙여, 만약 올해 밀 수확이 증가한다면 정부는 추가적으로 1백만 톤을 방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농업단체로부터 정부의 결정에 만족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곧 실망했을 것이다. 주요 농업 협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은 오히려 생산성에 피해를 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정부가 농업 생산자들의 경비로 국내 시장에 밀을 대량 방출하여 28% 상승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추가로 그들은 11월부터 1월까지 진행되는 2013/2014년 밀 수확이 거의 끝났다고 지적했다.

농업 단체는 작물 재배면적을 주요 지표로 생각한다. 아르헨티나의 국립 농업 기술원(INTA)에 따르면 2006년 정부가 시장 개입을 시작한 이후로 평균 밀 재배 면적은 500만 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전 5년간 평균 재배면적은 620만 헥타르였다. INTA 엔지니어인 Reinaldo Muñoz는 2012/2013년 기록한 밀 재배면적 316만 헥타르가 “지난 100년간 최저”였다고 말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2005년 약 1,600만 톤에서 2013년 820만 톤으로 급감했다. 아르헨티나 농학자이자 농부인 Santiago del Solar는 정부가 개입했던 때 해마다 밀 작황이 나빴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높은 국제 가격은 농부들에게 장려금이 되어 예상 불가능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밀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2년 밀 수확량은 적절했다. 하지만 수출 제한이 점점 엄격해지자, del Solar씨는 밀 재배면적을 대폭 줄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농부들도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밀의 수출 제한은 수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미 농무부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6년 세계 4위 밀 수출국이였으나, 2013년에는 10위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역 파트너들을 잃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변국인 브라질로 2008~2012년까지 연간 400~500만 톤의 밀을 수출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 아르헨티나는 겨우 200만 톤만을 수출하였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미국과 우루과이로부터 밀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12월까지 수출 제한이 풀리지 않자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의 1월 계약 채무 불이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비슷한 정책이 아르헨티나의 육우 업계에 피해를 입혔다. 2005년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 육우 수출국이였으나, 2012년에는 11위로 파라과이와 벨라루스 뒤에 서있다. 비즈니스 신문인 Cronista에 따르면 2007년 5,700만 마리에서 2013년 중반에는 5,170만 마리로 생산이 하락했다.

“오직 정부만이 아르헨티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생산하고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농업 자문사인 CONFIAgro의 Leonardo Sarquis가 한탄한다. 만약 정부가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생산은 더욱 감소할 것이며, 이는 부족현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GM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은 역사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장관이 경고하다

만약 영국 농업이 “세계 농업 박물관”이 되지 않으려면 유럽연합이 유전자 변형 작물들을 승인해야한다고 환경부 장관은 말했다.

회원국들은 이달 말에 있을 투표에서 새로운 종자의 옥수수를 허용해야 한다고 Owen Paterson이 말했다. 그는 이전의 GM 작물 승인이 유럽 연합 집행 기관으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동결되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이것은 EU로부터 15년 만에 농사를 위해 허용되는 GM 작물이 될 것,”이라고 Paterson씨가 Oxford Farming Conference에 말했다. “혁신적인 업체들이 다른 시장에 새로운 기술들을 투자하고 개발하기로 할 때, 유럽은 세계 농업 박물관이 되어 버릴 위험에 처했다.”

안전은 곤충 저항력이 있는 옥수수 종자를 포함하며, 이는 조명충나방 저항력이 있는 다른 종자가 허용된 1998년 이후 유럽연합에서 재배할 수 있는 두 번째 작물이 될 수 있다. Paterson씨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언급했다.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자. GM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이 계속해 GM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외의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를 우회해 갈 것이다.”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은 유럽의 두 번째로 높은 법정이 Brussel을 승인 과정의 긴 지체로 질책한 이후, 투표를 제안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승인은 이전에 GM 작물 재배를 금지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과 스페인은 안전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GM 작물은 저항 또는 큰 수확 등의 자연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바람직한 특성들을 연구실에서 식물의 DNA를 조정해 제작한 종자이다. 그들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정책은 “예방책, 증거를 바탕으로 하며 대중의 관심에 예민하다.”이다.

정부는 이 기술을 “전적으로 좋거나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하며 개별적으로 작물 인허가를 고려하겠다고 말한다. 90년대 말, 그때 당시 노동당 수상이었던 Tony Blair가 GM식품을 홍보했지만 공공의 회의적인 태도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반대하는 캠페인들을 마주하고 후퇴했었다. 반대자들은 작물이 환경적 피해와 나아가 인간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결과는 영국의 적대감이 줄어들고 있고 정부 고위 관직자들은 이 기술이 미래의 식량 보유 보장과 수입 의존도를 피하기위해서는 필수이라고 은밀히 믿고 있다고 추측한다.

Paterson씨는 GM 작물 경작에 대한 영국 규제가 완화되기를 그는 원한다고 이전에 밝혔으며, 그들이 “환경적 혜택”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의 견해는 조심스럽게 David Cameron의 지지를 받고 있다. 6월의 연설에서 수상은 이 문제를 “다시 조명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과학계에서의 주장에 열린 자세가 되어야 한다.”

연합체는 이제까지 GM작물의 작은 범위 시행은 허용했으나 넓은 범위의 이용은 실질적으로 금지했었다. GM 작물로 만들어진 식품의 판매와 수입한 제품들에 몇몇 GM재료들이 포함된 것에는 금지사항이 없으나, 대부분의 슈퍼마켓들이 그들의 자사 브랜드 제품에서는 그러한 재료들을 금지했다. 10월에 Paterson씨는 GM 반대자들을 “절대 악”이라 부르며, 그 기술에 대한 “장해”로 인해 아이들 눈이 멀어져 간다고 주장해 비판을 불러왔다.

■ 나이지리아가 밀 수입을 20% 감소하여 1,270억 나이라를 절약할 것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밀 수입량을 20%까지 감소시켜, 2014년부터는 연간 밀 수입액을 1,270억 나이라 이상을 절약할 계획이라고 농무부 대표가 말했다. 농무부 장관인 Akinwumi Adesina를 대신해 참석한 Toyin Adetunji는 화요일 Lokoja에서 열린 북중양 지역 주 제빵사의 카사바 빵 연수 워크숍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워크숍에서 Akinwunmi씨를 대표하는 Adetunji씨는 정부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빵 생산에 밀가루 대신 카사바 가루로 대체하는 계획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정책이 나이지리아로 하여금 1,270억 나이라 이상을 절약해 줄 것으로 예상되며, 주 제빵사 연수는 카사바 업계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목표의 정책들 중 일부라고 말했다.

Adetunji씨는 또한 이 정책이 국가의 경제 기반을 석유 산출에서 석유 산출을 하지 않는 분야로 다양화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고 말했다. 그녀는 연간 4천만 톤을 생산하는 나이지리아가 가장 큰 카사바 생산국이며, 브라질,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세 번째로 카사바를 많이 생산하는 태국이 세계 카사바 녹말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두 생산국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Adetunji씨는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이 카사바 빵 개발 자금으로 100억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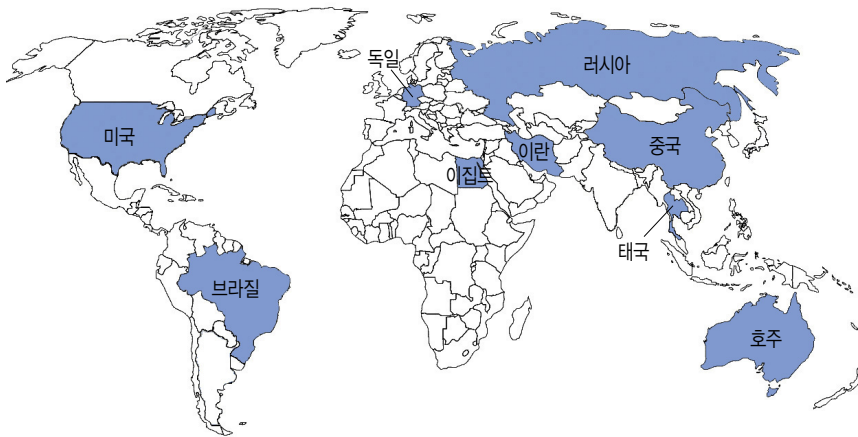
라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섯 개의 지정확정 지역에 걸쳐 770명의 주 제빵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각 지방 자치제에서 각각 최소 6명 이상의 제빵사들을 연수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문헌

US Farm Bill removes direct farm payments(2014년 1월 30일 ABC Rural)
 Egypt to France: Your wheat is too wet(2014년 1월 30일 Wall Street Journal)
 India's massive crop grown from poor government policies(2014년 1월 28일 Farms.com)
 China set to bar more US corn as GM ban drags on(2014년 1월 24일 CNBC)
 Rail glitches steal farmers' joy at record Canadian harvests(2014년 1월 23일 Agrimoney)
 No longer Uncle Sam's grain market(2014년 1월 21일 The Hindu Business Line)
 South African white, yellow corn prices reach record on drought(2014년 1월 20일 Bloomberg)
 Against the grain(2014년 1월 15일 The Economist)
 Approve GM or our farming will be history, warns minister(2014년 1월 7일 The Telegraph)
 Nigeria to reduce wheat importation by 20 percent, save N127 billion - Minister (2013년 12월 31일 All Africa)

해외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미국 수송 지연으로 미국 옥수수·대두 현물 프리미엄 인상 GMO문제로 미국산 옥수수, 중국에서 다른 수입국으로 수출전환 밀 가격, 미국의 한파로 인해 상승 밀에 대한 수입수요 및 동결 위협으로 인한 가격 상승	브라질 브라질 2월선박 라인업, 대두 기록적인 수출압시 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 2월 15일~28일 밀 선적을 위해 탐색 이집트산 밀 5월초까지 공급 지속 가능, 사일로 건축 계획
아시아	유럽
중국 중국, 주정박(DDG) 수입 더욱 거부 중국, GM금지자 지연됨에 따라 더 많은 미국옥수수 수입제한 신젠타, 중국이 금지한 GMO 옥수수형질 품절 2013년 중국 대두 수입량 8.6% 증가 신젠타, 중국이 수입제한한 GM옥수수 판매 예정 태국 태국 농민, 쌀 정책 시위로 정부불황 가중	독일 25만 톤 독일산 밀, 1월경 이란으로 선적 러시아 2013/14 공식 예측을 초과한 러시아 곡물 수출 중동 이란 이란 구매자들, 적어도 50,000톤의 브라질 옥수수 구입 오세아니아 호주 호주, 엘니뇨 날씨에 대한 우려

1. 미 국

■ 수송 지연으로 미국 옥수수 · 대두 현물 프리미엄 인상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폭풍우와 추운 겨울날씨가 수송을 지연시킨 후, 구매자들이 공급량을 앞 다투어 확보하려고 함에 따라 대두와 옥수수 선적을 위한 현물 프리미엄이 4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오일시드 수출수요는 견조한 반면, 미국 중서부의 강이 얼음으로 막혀, 걸프만의 대형곡물창고에 수송되는 대두의 선적 입찰가격 또한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번 주 초반 미국 중부에 최저치의 온도를 기록했던 한파는 다소 누그러들었으나 선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곡물상인은 “기온은 조금 완화되었지만 물류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파에 앞선 폭설은 일부 생산자들이 곡물저장창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눈으로 뒤덮인 도로는 트럭 수송을 지연시켰다. 또한 이번 시즌에 운항을 위해 개방된 중서부의 강이 얼면서 중앙팜 벨트에서 걸프 만으로의 선적이 지연되었다. 미국 옥수수, 대두 및 밀의 약 60%는 걸프만을 통해 다른 국가로 수출된다. Decatur, Indiana에 위치한 Bunge Ltd 대두 제조업체는 화요일 오전 정전으로 운전이 정지되었다가 수요일 오후 복원되었으며, 장비의 손상을 점검하고 있다. Sidney, Ohio지역의 Cargill Inc. 대두 공장은 이번 주 초, 장비의 동결로 인해 부분적으로 운전이 정지되었다. (2014.1.9)

■ GMO문제로 미국산 옥수수, 중국에서 다른 수입국으로 수출전환

미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곡물이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형질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 판매된 미국산 옥수수 100,000톤 이상이 주변 아시아 국가로 수출이 전환되었다. 미국 농무부(USDA) 주간 보고서에서 확인된 수출전환 물량은 중국에 의해 거부된 후 다른 구매국으로 재판매되어 최근 선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수입이 승인되지 않은 MIR 162 유전자 변형 형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11월 이후 미국산 옥수수 및 옥수수 부산물 600,000톤 이상을 거부했다. 중국에서는 MIR162의 수입 승인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반면, 다른 주요 구매국에서는 이미 승인이 되었다.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수입국들은 미국산 옥수수에 대해 비교적 공격적이지 않은 구매자이며, 최근 중국에 의해 거부된 화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최근 USDA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12월 5일 마감된 주의 수출량 51,400톤을 포함하여, 중국에 판매된 옥수수 63,900톤이 일본에 재판매되었으며, 다른 55,000톤은 1월 2일 마감된 주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재판매되었다. 그러나 미국 수출업체들은 중국에 더 많은 화물들을 계속해서 선적하고 있다. USDA자료에 의하면 지난주에 약 155,600톤이 출하되었다. 산업관계자는 수출업체들이 만약 화물이 거부당하면 아시아의 옥수수 수입국들 중에 다른 구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상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적을 계속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4.1.10)

■ 밀 가격, 미국의 한파로 인해 상승

미국 곡창지대의 추운 날씨가 작물 피해의 우려를 제기하여, 시카고 밀의 가격이 3년 반 만에 하락세를 꺾고 상승했다. 옥수수는 미국 중서부 주위의 몹시 추운 날씨로 인해 또한 상승하였고, 대두도 이전엔 미미하게 감소하던 가격이 상승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행의 상품 전략가 Luke Mathews에 의하면 “미국 북부 평야 및 상단 중서부에 걸친 차가운 온도가 동사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고 전했다. 덧붙여, 밤새 일부 대형 수입 입찰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밀의 가격은 0.5% 상승하였다. 밀의 가격은 2010년 7월 이후 계속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선회해왔다. 옥수수의 가격은 0.2% 상승하였으며 대두도 0.2% 상승하였다. 이번주에 미국 중서부 주위, 주로 미주리와 일리노이 지역의 한파로 인해 겨울밀의 약 15% 정도가 동결 피해에 대한 약간의 위험이 제기되었다. (2014.1.23.)

■ 밀에 대한 수입수요 및 동결 위협으로 인한 가격 상승

밀 선물 가격은 미국 곡창 지대의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우려 및 최근 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요 수입국들의 시장 복귀로 인해 8일간 상승하고 있다. 옥수수는 밀보다 더 상승하고 있으며 반면 대두는 약하게 마무리되었다. 시카고선물거래소의 3월 밀 선물가격은 1.6% 상승하여 1부셸 당 \$5.7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 가격은 밀의 많은 국제적 공급으로 인한 이번 달 초의 가격 \$5.6에 가까운 수치가

다. 이번 주에 한파가 미국 중서부와 동부 평원에 자리 잡았지만, 다음주 초에는 훨씬 더 찬 기후가 미국 적색연질 겨울밀의 일부를 위협할 것이다. MDA 날씨 안 내의 농업 기상학자 Don Keeney에 의하면 그 피해는 중서부 지대 밀의 약 25%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평원 밀의 약 10%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Gerlach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는 밀이 휴면기간, 심지어는 수확기 때까지는 명확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평원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에까지 확대되어 있는 한파는 가축들이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게 만들어, 옥수수과 대두박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의 가격약세로 인한 해외 구매자들의 수요증가 또한 밀 가격을 상승시켰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곡물 기관 GSFMO는 660,000톤의 밀을 사기 위해 국제 입찰을 발행하였다. 알제리는 제분용 밀 약 500,000톤을 구매하였고, 이라크는 경질밀 350,000톤을 구매하였다. 시카고선물거래소의 3월 옥수수 선물 가격은 0.7% 상승하여 1부셸 당 \$4.29이며, 이는 밀의 가격상승과 더불어 미국 중서부의 찬 기온으로 인한 사료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폭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대두박은 이전 세션의 할인 구매로 인해 두 달간 하락했던 가격을 움직이게 하였지만, 현물 시장의 약세로 인해 선물 가격을 하락 마감하게 하였다. 시카고선물거래소의 3월 대두박 가격은 0.2% 하락하여 1부셸 당 \$12.77이다. (2014.1.24.)

2. 브라질

■ 브라질 2월 선박 라인업, 대두 기록적인 수출 암시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선박들이 줄지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한 국제적 수요와 조기 수확으로 인해 2월, 새로이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산토스 기반 선박 중개상인 SA Commodities의 데이터에 의하면, 650,000톤 대두가 1월 말 선적 예정에 있으며, 2,500,000톤이 2월 선적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작년 1월에는 대두를 거의 수출하지 않아 280톤에 그쳤다. 그리고 2013년 2월, 959,000톤까지 증가하였다.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재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매년 수출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재배의 기간을 단축하고 옥수수나 면화와 같은 제2작물이나 더 많은 대두를 재배하기 위해 농부들이 더 짧은 생육주기의 대두 품종

을 선택하고 있다. 국가 수확의 42%가 2월말에 집계될 것이나,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Mato Grosso의 수확은 최근 강우로 인해 부진하다.

2월 선박 라인업은 선박을 배치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으나,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많은 구매자들이 나중에 긴 대기시간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브라질 대두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올해 9,000만 톤의 대두를 수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 기록의 약 12%를 초과한다. 작년 2월의 경우를 보면, 80개의 선박이 선적을 대기하였고 대기 시간도 두 달을 초과하였다고 한다. 금요일 현재, 브라질의 두 번째 수출항인 파라나과 항에서 이미 39개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으며, 최고 수출항인 산토스 항에서는 11개의 선박이 대기중이라고 한다. (2014.1.25.)

3. 중 국

■ 중국, 주정박(DDG) 수입 더욱 거부

중국 검역 당국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GMO)의 이유로, 미국산 옥수수의 부산물인 주정박(DDG)을 더욱 거부했다. 이는 지난 주 지방 자치단체가 많은 선적을 취소하고 난 후 주정박(DDG)에 대한 검사를 완화하고 있다는 일부 상인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었다. 검역당국은 선적에 MIR162(신젠타 AG)의 흔적이 포함된 것을 발견한 후, 이번주에 청도의 북부 항구에서 미정의 양의 미국산 주정박을 거부했다. MIR 162(신젠타 AG)는 2년 이상 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던 품종이었다. 최근의 거부는 12월에 거부되었던 주정박 2,000톤 외에 해당되는 것이고, MIR 162가 포함된 미국산 옥수수 50만 톤에 해당한다. 상해의 검역 당국 또한 더 많은 선적을 거부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해외 구매자들을 찾을 때까지 창고에 일시적으로 곡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뿐만 아니라, 광둥 남부 지방에 있는 황포 항구에서도 미국산 주정박(DDG)이 거부될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주정박(DDG)의 가격은 중국의 최고 수입자들에 의한 몇몇 선적의 거절의 여파로 지난 달 가파른 하락세에서 지난주 강하게 반등했다. 중국의 GMO 옥수수 조사는 국내 공급 과잉에 기인한다. 즉, 중국 정부는 값싼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옥수수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2014.1.15.)

■ 중국, GM금지가 지연됨에 따라 더 많은 미국옥수수 수입제한

중국은 워싱턴으로부터 신젠타 AG가 개발한 품종에 대한 신속한 승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품종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옥수수 선적에 대한 제한을 적어도 3월말까지 유지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품종 MIR 162에 대한 가장 이른 승인은 농업부 생물안전성 위원회의 연례회의가 있는 3월 하순이 될 것이다.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 검토는 6월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수입 제한을 연간 비축이 완료되는 4월 말까지 계속할 수도 있다고 한다. 중국은 시장가격 지지와 농민들에게 반환을 목적으로 면화부터 곡물까지 넓은 범위의 농산물을 비축하고 있다. 미국 옥수수 구매자들 중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작년 말 MIR 162를 확인하고 600,000톤 이상, 즉 2013년 중국의 총 수입에서 5번째인 수량을 돌려보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에게 신젠타 SYN. VX에 의해 개발된 Agrisure Viptera 품종을 신속히 승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옥수수를 수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로 MIR 162는 계속 다른 품종들과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작년 말 출하를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유전자 변형 품종은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곤충에 대한 향상된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승인되어 있다. 얼마나 더 많은 미국 옥수수가 제한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국 검역국은 엄격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영향을 받은 수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미국 옥수수 수입 제한은 작년에 약 40% 하락했던 옥수수 국제 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했고, 수출업자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화물을 재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2014.1.24.)

■ 신젠타, 중국이 금지한 GMO 옥수수형질 품절

미국 곡물수출업자들이 중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변형 옥수수종자 판매중단 압력을 가하자, 신젠타는 그 품목은 이미 품절되었다고 전했다. Agrisure Duracade형질은 해충의 작물감염에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신젠타의 품절발표 이후, 논쟁의 초점은 이 종자의 곡물을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곡물 상인들에게 돌아갔다. 한편, 미

국 최대 곡물 단체들은 중국이 Duracade와 Agrisure Viptera에 대한 수입허용을 할 때까지 이들의 상품화를 중단해 줄 것을 신젠타에게 요구했다.

올 봄 Duracade 파종은 국제 곡물 교역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잠재적인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공급업체가 이 형질의 수출 후 중국으로부터 또 다시 수입을 거부당한다면 새로운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신젠타는 Duracade의 부작용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두 형질의 판매중단에 대해 퇴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당국은 작년 Duracade에 대한 판매 및 재배를 취소한 이후로, 올해 처음으로 제한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신젠타는 2013년 3월 중국에게 그 형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론상으로는 270 일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신젠타는 유럽연합의 Duracade 수입허용 대기 중에 있으며, 멕시코와 한국으로부터는 9월에, 일본으로부터는 8월에 수입허용을 받았다. 그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대만으로부터의 수입허용이 있었다. Viptera는 2010년 미국 수입허용을 받았으며 중국으로부터는 현재 2년 이상 대기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으로부터는 2012년 이미 수입허용을 받은 상태이다. 미국은 8월마감 유통년도에 14억 5천 부셀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 수확량의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2014.2.6.)

■ 2013년 중국 대두 수입량 8.6% 증가

세계최대의 대두 소비국인 중국은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육류에 대한 국내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착유산업을 확장함에 따라 2013년 기록적으로 많은 양의 오일시드를 수입했다. 중국의 세관자료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6,338만 톤이다. 향상된 착유 마진이 수요를 촉발함으로써 12월의 대두 수입량은 최고 월 수입량인 740만 톤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중국의 착유업체들은 식용유뿐만 아니라 대두박, 사료를 만들기 위해 오일시드를 수입하는데, 중국은 생활수준의 향상 및 도시화로 인해 육류 및 유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수입량은 세계 교역량의 63%를 차지한다. 산업 포털 www.cofeed.com의 수석 애널리스트 Li Lifeng은 “착유산업의 성장속도는 둔화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Li는 중국의 착유량이 지난해 말 1억4,000만 톤에 이르렀으며 2012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중국의 국가 곡물 및 원유 정보센터에 따르면 약 20개

의 신규 착유업체가 건설 또는 계획되고 있으며 2014~2015년 운영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중국의 일간 착유량은 약 65,000톤 추가될 것이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올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상해에 위치한 JC Intelligence Co Ltd는 올해 9월까지의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11% 증가하여 6,65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많은 대두 수입량은 중국의 증가하는 식물성 오일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세관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전년대비 4.2% 감소한 810만 톤의 식물성 오일을 수입했으며, 12월 수입량은 810,000톤으로 11월보다 5.2% 증가했다. 중국은 주로 팜 오일과 유채기름을 수입한다. (2014.1.10.)

■ 신젠타, 중국이 수입제한한 GM옥수수 판매 예정

미국 농무부 장관에 의하면, 신젠타는 중국이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 품종 총 공급량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MIR 162 옥수수 품종을 승인할지 여부와는 상관없었다.

11월 이후, 중국 당국은 승인되지 않은 MIR 162 포함 이유로 60만 톤의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 제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주요 곡물 집단은 지난 달 신젠타에게 중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Viptera와 Duracade의 상업적 사용을 중단을 요청했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신젠타와 중국 간에 Viptera 사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중국은 최근에 다른 옥수수와 대두의 수입만을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더 많은 생명공학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명확화와 함께 규제의 과정을 수정하도록 장려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 이후 중국은 유전자 변형 형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였다. (2014.2.8.)

4. 태 국

■ 태국 농민, 쌀 정책 시위로 정부불황 가중

일부 태국 쌀 농가는 자신의 작물에 대해 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입장을 전환하여 시위대에 합류하겠다고 위협하여, 농촌 투표를 기반으로 지지된

Yingluck Shinawatra에게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3달째인 반정부 시위는 산발적인 발생으로 여겨지는 태국의 8년째 정치적 갈등의 일부로서, 자본의 일부를 폐쇄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징후로, 거대한 도요타 자동차 사 7203.T의 태국 직원에 의하면 계획된 6억달러의 투자는 재고할 수 있고 심지어 불안할 경우 생산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 농민들에게 시장가보다 높은 쌀 가격을 보장해주는 정책은 정부 정책의 중점사항이었지만, 금융 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지불받기 위해서 3-4개월을 기다리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다. 수판부리의 농민 집단의 지도자인 Prom Boonmachoe의 말에 의하면, 대표단은 화요일에 변호사를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수천명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Prom은 덧붙여 “태국 변호사 협회는 우리의 자문위원이며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전하며, 만약 그들이 지불을 받을 수 없다면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농민들은 쌀을 되돌려 보내 재판매할 것이라고 한다. (2014.1.21.)

5. 독 일

■ 25만 톤 독일산 밀, 1월경 이란으로 선적

약 25만 톤의 독일산 밀이 1월경 이란으로 선적될 예정이다. 이는 서부의 제재가 완화된 작년 이후 이란의 대형 식품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상인들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12월 초에 이란이 매수한 많은 양의 밀은 독일이 원산지일 것이다.” 그리고 한 상인에 의하면 그 매수량은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12월 5일 한 상인에 의하면, 이란의 곡물 구매자 GTC는 제재가 완화된 이후, 발트해 지역의 밀 약 180,000톤을 구입했다고 한다. 이란은 그 국가에서 논란이 되었던 핵 계획에 부과된 서부의 제재 하에서 식품 구매를 결코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과 미국의 금융 조치는 결제와 배송을 방해하여 지난 2년 동안 무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11월, 세계의 권력있는 국가들과 이란 간의 획기적인 거래는 이란의 가장 민감한 핵 활동을 중단하게 하고, 초기 6개월간 이란의 경제의 일부 부문에 부과되었던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완화하게 하

려는 것이다. 상인들에 의하면, 적어도 네 개의 벌크선이 1월에 독일의 항구에서 이란 행 밀을 선적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상인의 의하면, “지난 시즌, 독일의 밀 시장에서 이란은 백만 톤을 상회하는 양을 수입하는 선두적인 수입국이었다. 제재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발생할 새로운 판매시장에서 독일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처럼 보인다. 이란에 더 많은 독일산 밀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전해졌다. 1월 10일, 이란은 또한 카자흐스탄산 밀 약 50,000톤을 구매하였다. (2014.1.17.)

6. 러시아

■ 2013/14 공식 예측을 초과한 러시아 곡물 수출

농업 분석가 SovEcon에 의하면, 옥수수의 대량 공급 덕분에 러시아의 곡물 수출은 2013/14의 공식 예측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6월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옥수수 수출의 기록적 수준은 현재 러시아의 밀 수출 부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농무부는 러시아가 2013/14에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밀 수출국으로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SovEcon에 의하면, “12월의 옥수수의 기록적인 수출량은 밀과 보리의 낮은 수출을 크게 보상했다.” 고 한다. 러시아의 2013년 옥수수 작물은 전년대비 1/3상승하여 10.7만 톤의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기록적인 옥수수 공급 덕분에, 러시아는 2013/14에 콩과 밀가루를 포함한 곡물을 22만 톤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2012/13에 16.3만 톤을 수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수치이다. 러시아의 12월 옥수수 수출은 682,000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지만 EU 국가들로의 수출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SovEcon은 러시아의 2013/14 옥수수 수출은 350만 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50만톤은 1월에 수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2014.1.20.)

7. 이집트

■ 이집트, 2월 15일-28일 밀 선적을 위해 탐색

이집트의 주요 곡물 구매 기관인 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 (GASC)는 2월 15일-28일에 선적을 위해 세계적인 공급업체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금액의 밀을 구매하기 위해 수요일에 입찰을 설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밀 수입 체 중 하나인 GASC의 부회장, Mamdouh Abdel Fattah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폴란드, 아르헨티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로부터 연질 소맥이나 제분용 밀(milling wheat)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다. 입찰은 목요일 현지시간으로 정오에 GASC에 도달해야 하고 그 결과는 그 날 오후 3시 30분에 나온다. 밀 입찰가격은 본선적재가격(FOB)으로, 화물비는 별도로 한다. GASC는 다음과 같은 밀을 55,000톤-60,000톤을 구매하려고 한다: 미국 북태평양산 연질백맥, 미국산 적색 연질의 겨울밀, 러시아산 제분용 밀, 우크라이나산 제분용 밀, 호주산 표준 흰 밀. 그리고 캐나다산 연질 밀, 프랑스산 제분용 밀, 독일산 제분용 밀, 아르헨티나산 빵 밀, 폴란드산 제분용 밀, 카자흐스탄 제분용 밀, 루마니아산 제분용 밀을 60,000톤 구매하려고 한다. 1월 11일 마지막 국제 입찰에서 GASC는 2월 11일-20일 선적을 위해 미국산 적색 연질 겨울밀을 55,000톤을 구매하였고 이것은 11개월 만에 최초의 미국산 밀 구매였다. 미국산 밀 가격은 다른 원산지 곡물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급격히 떨어졌다. 그 할인은 미국으로부터 이집트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 운송 비용을 커버했다. 이집트는 일반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연간 약 10만 톤의 밀을 수입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이는 빵 보조 프로그램을 위해 국내산과 수입산 밀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GASC의 구매는 전체의 약 5,000,000톤-5,500,000톤을 차지한다. (2014.1.16.)

■ 이집트산 밀 5월초까지 공급 지속 가능, 사일로 건축 계획

이집트의 밀 공급은 5월 첫째주까지 지속하기에 충분하다. 공급 장관 모하메드 아부 샤디는 밀 저장 시설을 늘리고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장관은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550만 톤의 밀을 수용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108개의 저장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월, 이집트의 농업 장관의 말에 의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체 곡물의 적어도 20%는 저장 문제로 인해 낭비되었다고 한다. 이집트는 일반적으로 연간 10만 톤의 밀을 국제 시장으로부터 구매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조하는 빵 프로그램(bread programme)에 쓰기 위해 국내산과 수입산 밀의 혼합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집트는 연간 5,000,000톤-5,500,000톤의 밀을 수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집트의 새로운 건축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0,000톤 용량의 25개의 사일로를 건축할 것이고, 60,000톤 용량의 25개의 사일로가 아랍 에미리트에 의해 건축될 것이다. 또한, 이집트의 민간 부문은 58개의 사이로를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달 초, 아부 샤디는 이집트의 밀 공급이 4월 23일까지 지속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2014.1.19.)

8. 이 란

■ 이란 구매자들, 적어도 50,000톤의 브라질 옥수수 구입

이란 구매자들은 작년에 서부의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 이후 높은 식품 및 동물 사료 소비량이 계속 이어져, 적어도 50,000톤의 브라질 옥수수를 구매하게 됐다. 옥수수는 파라나과의 브라질 항구에서 1월말과 2월 초에 선적될 것이다. 한 상인은 이란은 높은 곡물 수입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이란에 대한 서부의 제재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란에서 논란이 되는 핵 계획에 대해 부과된 서부의 제재 하에서, 이란은 식품 구매를 금지 당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연합과 미국의 금융정책에 의해 지난 2년간 결제와 배송상에 문제가 생겨 교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 상인의 말에 따르면 브라질의 옥수수 구매가 사익 집단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었는데, 지난 2년간 제재로 인해 구매 결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에 불참하던 사익 집단들이 다시 돌아올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고위 행정부 관리의 말에 의하면, 이란은 전 세계에 외화 자산을 약 1,000억불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42억불은 작년의 서부 제재 완화에 대한 협상 이후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상인에 의하면 “이란은 앞으로 분명히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고 구매 과정도 진전될 것이다. 이미 많은 상인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 탐색하고 있다.” 고 한다. (2014.1.21.)

9. 호 주

■ 호주, 엘니뇨 날씨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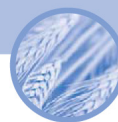
호주 기상청은 호주 기후 모델에 따르면 올해 말 일부 지역에 가뭄과 홍수 위험을 야기하는 엘니뇨 날씨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주 미국 기후예측센터가 2014년 봄 북반구에 중립적인 기후를 전망한 후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발표를 이을 전망이다. 호주 기상청에 따르면 엘니뇨 날씨 전망은 2분기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르면 7월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엘니뇨는 미국과 남미 지역에 홍수와 폭우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호주에는 가뭄을 유발할 것이다. 호주 동부해안의 많은 지역은 이미 가뭄으로 인해 퀸즐랜드의 작물과 가축이 피해를 입고 있다. (2014.2.11.)



part

04 세계 농업기상 정보

2014 World Grai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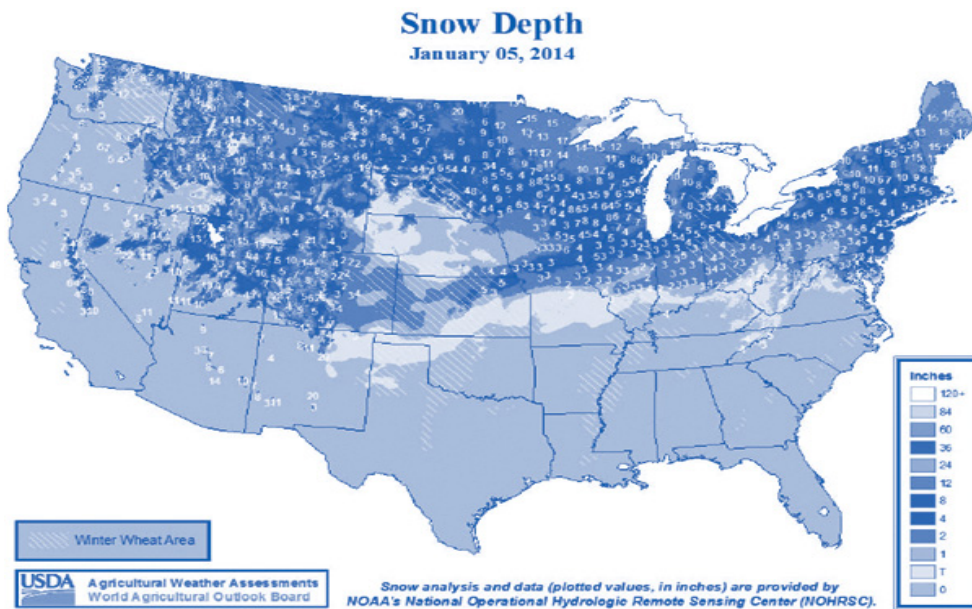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 151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미국

그림 1. 적설량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1(No. 1), Jan 7, 2014

■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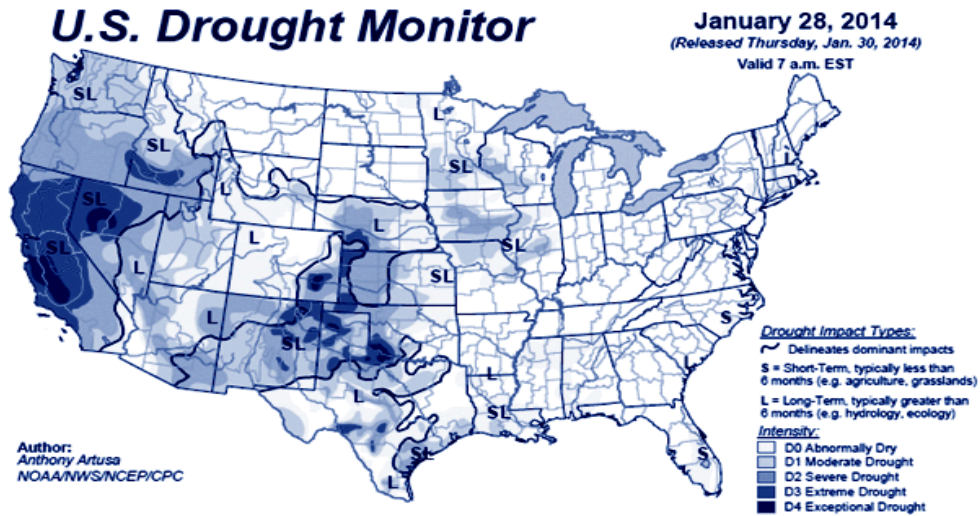
1월 초순, 겨울 혹한이 Dakotas에서부터 New England까지 확대되었으며, 주간 온도는 평년대비 10~20°F를 하회하였다. New England 북부와 Midwest 상단의 경우 영하 20°F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 Minnesota 지역의 경우 영하 30°F를 기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남부 Atlantic 지역과 대다수의 태평양 연

안 및 고원 평야 지대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였다. 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난 소나기와 눈이 내리는 기상조건을 제외하고 건조한 날씨는 서부의 온화한 날씨는 북부 태평양, 북서부와 북부 및 중부 Rockies 지역에 수반되어 나타났다. California 지역에서는 3년 연속 가뭄이 지속되어 방목장의 상태 유지 및 여름 물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말쯤 강한 한파로 인해 일부 밀재배 지역은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었으며, 중부 Mississippi 계곡과 Great Lakes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1월 중순, 월 초반과는 대조적으로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북부 평야지대에서 뉴잉글랜드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균 15~20°F로 평년보다 높았으며, California 지역에서는 몇 달간 높은 기온이 나타난 것으로 관측되었다. 남동부 아래 지역에서는 차가운 대기가 발생하여 평년대비 낮은 주간기온을 기록하였으며, 1월 17일, 플로리다 반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의 기온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서부 상단 지역에서는 1월 15일과 17~18일에는 영하의 기온을 기록하였다. 전국적으로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지는 않았으며, 주간 총 강수량은 뉴잉글랜드 연안과 테네시 계곡, 태평양 북서부, 남동부 하단과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1인치 정도로 집계되었다.

1월 하순, 한랭한 날씨가 반복해서 미국 동부지역에 발생하였으며, 서부 대평원 지역의 일부 지역으로도 이동하였다. 더욱 차가운 날씨는 북서부 지역에서도 형성되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남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날씨가 유지되었다. 중서부 상단 지역의 경우, 주간 기온은 평균 10°F로 나타나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2달간 지속된 추운 날씨로 인해 가축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남부지역에서는 차가운 날씨가 드물게 겨울 폭풍을 발생시켰다. 1월 28~29 일에는 동부 Texas부터 남부 Atlantic 연안 평야지대까지 눈, 진눈깨비, 결빙성의 비가 확대되어 내렸다. 플로리다 지역의 경우 차가운 비를 피할 수 있었으며, 효율적인 수분이 공급되었다. 북쪽지역의 콘벨트 지역은 전역에 걸쳐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춥고 건조한 상황이 마무리 되었다. 중서부 지역의 강수량은 비가 눈으로 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더욱 한랭한 대기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평원 지역에는 눈이 내려 토양을 덮었으며, 이로 인해 가을 밀의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막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주말에 중부 평야지대에 내린 눈으로 인해 1월 27~28일 기온은 0°F 아래로 하강하였다.

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1(No. 5), Feb 4, 2014

2. 유럽

■ 1월

1월 초순, 중부와 서부 유럽의 건조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동부 유럽에서는 비가 내리고 따뜻한 날씨가 유지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에 지속된 고기압은 폴란드, 발틱주, 발칸반도에 이르기 까지 건조함과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기온(평년대비 5°C 이상 높음)을 나타나게 하였다. 지속된 온난함으로 인해 더 추워진 동부 농업 지역의 경우에는 1월 초 작물들이 눈에 파묻혀 가을밀과 유지작물이 흑한에도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었다. 서부 유럽에서는 대서양의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넓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발생(2~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이 기록됨) 하였으며, 북부 농업지역의 밭아를 앞둔 겨울 곡물에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주었으며, 스페인 지역의 가을 밀과 보리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 수분 함량도 향상시켜 주었다. 불안정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부 유럽의 기온은 평년대비 3°C 이상 높았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작물에 영향을 끼치는 겨울 흑한을 피할 수 있었다

1월 중순, 계절에 맞지 않는 온난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유럽 전역에 나타나, 겨울 작물의 생육을 위한 발아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연속된 난기류로 인해 북부 유럽에서는 경량의 비(2-30 mm)가 내려, 가을 밀과 유채의 발아를 위한 충분한 수분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작물을 동해로부터 보호해 줄 눈이 없어지게 되었다. 주말에는 Poland와 Baltic주에는 더욱 한랭한 기온이 형성되었다. Balkans 반도에는 건조함이 지속되었으며, 지난 90일간 집계된 총 강수량이 평년대비 50%에 미치지 못하였다(국지적으로 25% 미만인 지역도 있음). 한편, Spain과 Italy의 경우에는 폭풍이 발생하는 날씨가 증가하여 국지적으로는 폭우가 내리거나 산악지역에 눈이 내려(10-50 mm) 가을 곡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고 여름 곡물에 필요한 관개 저장 수준을 증가시켰다. 중부와 남부 유럽의 기온은 2~5°C로 평년대비 높았으며, 북부 곡물 생산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관측되었다.

1월 하순, 서부 유럽에서는 폭풍우가 발생하였지만, 남부 유럽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대서양 폭풍과 이와 연계된 한랭 전선이 Ireland 와 United Kingdom에서부터 남부 지역의 France, 북부와 중부의 Iberian 반도까지 폭우(10-50 mm)를 발생시켰다. 강우로 인해 Spain의 단단한 밀의 수분을 증가시켰으며, 북부 작물 생산지역에서 봄철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 저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지중해에서 발생한 폭풍은 Italy 와 남동부 France에서 폭우와 산악지역에 눈이 내리게 하였고(10-10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 가을 밀을 위한 저수지의 물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더운 기간에 필요한 관개에 추가적인 수분을 제공하였다. 독일에서는 눈이 내려(2-10 cm) 강수량이 증가하였다. 지중해 폭풍은 Romania 와 Bulgaria에서 내린 폭설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동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 가을 밀이 발아할 수 있는 보호역할을 해 주었다. Danube River Valley의 강설량은 5~ 30 cm이며, Poland에서는 강설량이 2-15 cm로 나타나, 대체로 가을 밀과 유채의 발아를 보호해 주기에 충분하였으나, 기온은 영하 17°C를 기록하였다.

3. 구소련(서부)

■ 1월

1월 초순, 건조한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월동 밀의 생육 조건을 유리하게 하였다. 기온은 평년대비 2~6°C 정도 높았으며, 동해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하였으나, 눈으로 뒤덮인 들판을 침식시키기도 하였다. 주말 주요 남부 가을 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았으나, Belarus와 Ukraine 및 중부 Russia 지역의 경우 2~20 cm의 적설량이 기록되었다.

1월 중순, 봄과 같이 온난한 날씨가 지속되어 가을 밀의 생육조건에 적합하였으나 작물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눈은 녹아버린 상황이다. 기온은 2~6°C로 나타나 평년대비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남부 러시아 지역의 경우 낮 최고기온은 5~10°C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기온은 3월 중·후반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말에는 더욱 추운 날씨가 형성되어, 대부분의 가을 밀 생산 지대인 북부 지역에서 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되었다. 주요 남부 밀 생산지역의 경우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토양 수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하순, 겨울 내 가장 추운 날씨가 관측되었다. 이번 주 기온은 평균 10~20°C로 나타나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동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지역의 주요 가을 밀 재배지역의 밤 최저 기온은 영하 25°C(혹은 더 낮음)로 하강하였다. 러시아 남부와 중부의 경계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36°C까지 내려간 곳도 있었다. 북극의 돌풍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눈이 내려(5~30 cm) 대체로 많은 지역에서 작물의 겨울 동해에 따른 피해를 막기에 충분하였다.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평야는 노출된 밀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동해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의 강설량은 5~10 cm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4. 호주

■ 1월

1월 초순, Queensland와 북부 New South Wales 지역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여름 곡물에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잠재적으로 수확량 감소가 전망된다.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수와 같은 작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대량의 수분이 증발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 (일반적으로 5 mm 미만) 으로 해석된다. 면화와 같이 관개가 요구되는 작물들은 극도로 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물을 공급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여름 곡물 생산지역에서의 일일 최고 기온은 30°C 후반~40°C 중반을 기록하였다. 반면 밀 벨트 지역의 경우,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5-15 mm)가 남동부 호주지역의 최종 겨울 작물 수확을 지연시켰다. 서부 호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겨울 곡물과 유채의 수확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 지역의 수확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1월 중순, 북부 New South Wales와 남부 Queensland의 대다수 여름 작물 생산 지역은 극단적인 고온현상은 사라졌으나, 계절적으로 덥고 건조한 날씨는 높은 관개 수요를 발생시켰다. 북부 New South Wales와 남부 Queensland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30°C 초·중반으로 나타난다. 건조지대의 곡물에 대한 수확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일주일 동안 남부와 서부 호주 지역의 경우, 일 최고 기온이 40~45°C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주요 면화 생산 지역인 남부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발생하였으며, 수수 생산지역인 동부, 남부 New South Wales와 서부 Victoria지역의 경우 고온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의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월 하순, 건조한 날씨가 남부 Queensland와 북부 New South Wales 지역에 다시 발생하였다. 기온은 평균 1~2°C로 나타나 평년대비 낮았고, 비가 적게 내린 탓에 수수와 같은 여름 곡물들이 자라는 토양이 건조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면화의 관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의 강수량은 2013년 8월 1일 이래로 평년대비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생산량 예측은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

지역은 열대 싸이클론인 Dylan의 영향으로 중부 Queensland 대부분의 지역에 소나기(5-50 mm, 혹은 그 이상)가 내렸으며, 미성숙한 여름 작물에 도움이 되었다.

5. 아르헨티나

■ 1월

1월 초순, 소나기는(지난 주 남서부 아르헨티나 농업 지대에 내린)는 주요 중부 및 북부 농업 지역에 확대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량이 25~100 mm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남부지역에는(대부분의 La Pampa와 Buenos Aires 지역) 비가 내린 후 더욱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Santa Fe와 Entre Rios를 포함한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주간 기온은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북부 지역(Salta와 Santiago del Estero에서 Corrientes)의 경우에는 평년대비 1~2°C 높은 기온을 유지하였다. 계절에 맞지 않는 고온이 북부 아르헨티나 지역에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낮 최고 기온이 40°C에 육박하였다. 남부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은 비가 내리기 전에는 30°C 중·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온난한 날씨가 이어졌다. 강수량과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어야 옥수수와 같은 작물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2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은 각각 78%, 83%로 전년동기 대비 살짝 뒤쳐진 상황이다. 또한, 가을 밀의 수확은 97% (전년동기 대비 14%p앞섬)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1월 중순,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지역과 파종 시기에 따른 다양한 생육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여름 작물의 생장에 스트레스를 주었다. 사실상 중부 아르헨티나(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southern Santa Fe, Entre Rios)의 경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지난 주말 짧은 소나기가 내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과적으로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한 날씨(주간 기온이 평균 2-6°C로 나타나 평년보다 높음)가 지속되었으며, 주간 최고 기온은 30°C 후반에 육박하였다. 가장 더운 날씨는 전통적으로 남서부 농업지역에서 관측되는데 La Pampa, southern Cordoba, 남서부 Buenos Aires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40°C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지적으로 내린 폭우(10~50 mm)는 주초에 북부 농업지역에 발생하였으나, 중부 아르헨티나의 경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최고 기온은 30°C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은 평년과 유사한 패턴으로 회귀하였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1월 16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은 각각 88%, 92%로 전년 동기 대비 뒤쳐진 상황이다.

1월 하순, 전국의 주요 농업 생산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내린 비가 여름 곡물, 유지작물, 면화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고, 계절에 적합한 일반적인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여 생육상황에 도움을 주었다. 중부 아르헨티나(남부 Cordoba에서 북동부 Buenos Aires)의 총 강수량은 25~75 mm를 기록하였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1°C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최고 기온은 30°C 초·중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a Pampa 와 남서부 Buenos Aires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균 2°C로 평년보다 높았으며, 낮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30°C 중·후반에 이르렀다. 고온과 건조함은 남서부 Cordoba 지역에 발생하였지만,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25~10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은 곳도 있음)가 내려 다양한 생육상황에 놓인 여름 작물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주말쯤에는 더욱 건조한 날씨가 발생했고 기온은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수준(낮 최고 기온이 38~40°C)이었으며, 높은 수분증발률을 나타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1월 30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은 각각 96%, 98%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해바라기 수확은 현재까지 20% 진행되었으며, 작년에는 35% 수준이었다.

6. 브라질

■ 1월

1월 초순, 남부 브라질에는 비가 내려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으며, 대두와 옥수수와 같이 몇 주 동안 건조함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곡물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Sao Paulo에서 Rio Grande do Sul 지역의 총 강수량은 50~150 mm를 기록하였으며,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2°C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 기온은 30°C 초·중반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나기(25~100 mm)가 중부 브라질에 내렸으며, Mato Grosso에서 남부 Minas Gerais

지역의 대두, 면화, 커피와 같은 작물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계절에 맞지 않는 건조함이 북동부에서 서부 연안에 이르기까지 지배적이었다. Goias, Bahia, Minas Gerais 지역의 건조함은(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2°C 이상 높았으며, 난 최고 기온은 30°C 중·후반인 것으로 나타났음) 대두, 면화, 다른 수분이 필요한 여름 작물의 수분 함량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했다. 반면, 계절에 적합한 기온(최고 기온이 30°C 초반)일 경우에는 사탕수수, 코코아, 기타 관개 작업이 요구되는 작물의 생육을 도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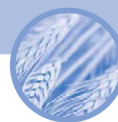
1월 중순, 남부 대두와 옥수수 생산 지역에서는 작물의 생육에 도움을 주는 비가 내렸으나,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때이른 건조한 날씨가 발생하였다. 일부 지역의 경우 평년대비 강수량이 낮은 지역도 있었으나, Mato Grosso do Sul과 Sao Paulo 남부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100 mm를 기록하여 미성숙한 여름 곡물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동반된 소나기가 내렸지만, 낮 최고 기온은 30°C 초반을 기록하였으며 주말에는 더욱 건조한 날씨로 변했다. 산발적인 소나기가 중부 지역(Mato Grosso, Goias, 북부 Mato Grosso do Sul)에 내렸으며, 총 강수량은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비는 동부지역에서 Tocantins으로 확장되었으나 서부 Bahia 인근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 대두와 면화의 일반적인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름처럼 따뜻한 날씨는 작물에 건조함을 배가시켰으며, 사탕수수와 코코아를 포함한 작물의 관개가 요구되었다.

1월 하순, 남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지만,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2주 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총 강수량은 25~50 mm가 기록되었으며, 대두와 옥수수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낮 최고 기온은 거의 매일 30°C 초·중반에 이르렀으며, 주간 기온은 평균 4°C 로 나타나 평년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더욱 건조한 날씨는 북부와 남부의 더 많은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동부 Mato Grosso do Sul에서 Esperito Santo 지역의 총 강수량은 10mm 이하로 집계되었다. 서부 Bahia와 Goias 인근 지역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대두, 면화, 다른 지역 작물들이 건조한 날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Mato Grosso와 Mato Grosso do Sul 지역에는 낮 최고 기온은 30°C 중반으로 높은 수분 함량을 요구하였으나 국지적으로 폭우(25~100 mm)가 내려, 대두, 옥수수, 기타 여름 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이 유지되었다. 북동부 연안에 내린 가벼운 소나기(10 mm 이상)는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의 관개 저장량을 증가시켰다.



part 05 [부록]

2014 World Grain Market



세계 곡물 통계 / 163

국가별 밀 통계 / 167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44,412	269,908	11,258	12,413	270,066	52,606	2.75
1981/1982	144,375	277,902	10,232	11,726	278,456	50,503	2.83
1982/1983	140,526	284,974	9,884	10,731	277,833	56,781	2.98
1983/1984	144,613	306,942	10,708	12,515	292,600	69,316	3.12
1984/1985	144,067	316,758	10,615	10,740	298,287	87,662	3.23
1985/1986	144,728	317,986	10,311	11,485	306,784	97,690	3.23
1986/1987	144,809	316,051	10,686	13,063	308,060	103,304	3.21
1987/1988	141,432	315,092	10,452	11,572	312,026	105,250	3.29
1988/1989	146,582	332,117	11,701	14,015	323,373	111,680	3.35
1989/1990	147,811	345,247	10,589	11,484	335,392	120,640	3.45
1990/1991	146,966	351,371	10,593	12,115	343,821	126,668	3.53
1991/1992	147,486	353,235	12,028	14,453	350,794	126,684	3.55
1992/1993	146,480	354,003	12,954	14,876	355,574	123,191	3.58
1993/1994	145,332	354,700	16,138	15,837	359,239	118,953	3.62
1994/1995	147,342	364,148	19,380	21,058	363,850	117,573	3.66
1995/1996	148,352	368,791	18,127	19,820	366,581	118,090	3.69
1996/1997	150,083	381,382	16,666	19,110	376,768	120,260	3.77
1997/1998	151,708	387,433	24,232	26,646	377,539	127,740	3.79
1998/1999	153,114	394,915	25,219	25,633	388,228	134,013	3.83
1999/2000	155,860	409,176	20,263	22,831	397,551	143,070	3.91
2000/2001	152,443	399,260	22,073	23,988	393,678	146,737	3.9
2001/2002	151,349	399,472	25,969	26,782	412,503	132,893	3.93
2002/2003	146,894	378,199	26,453	28,659	405,921	102,965	3.83
2003/2004	149,316	392,312	25,107	27,406	411,388	81,590	3.92
2004/2005	151,839	400,920	26,064	28,275	406,426	73,873	3.93
2005/2006	154,006	417,898	26,604	29,728	412,329	76,318	4.04
2006/2007	154,597	420,454	28,660	31,437	418,826	75,169	4.05
2007/2008	154,696	432,946	30,026	31,472	425,824	80,845	4.15
2008/2009	158,096	449,129	27,311	28,955	435,930	92,400	4.23
2009/2010	155,601	440,929	28,214	31,104	435,596	94,843	4.22
2010/2011	157,671	449,230	32,928	34,853	443,512	98,636	4.25
2011/2012	159,456	465,816	35,592	39,118	456,519	104,407	4.36
2012/2013	157,478	469,507	36,203	38,651	464,621	106,845	4.45
2013/2014	160,114	471,514	38,113	40,388	471,050	105,034	4.39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236,901	435,867	89,496	90,126	443,433	112,657	1.84
1981/1982	238,911	444,995	97,042	100,376	441,758	112,545	1.86
1982/1983	238,353	472,739	93,230	100,949	447,850	129,929	1.98
1983/1984	229,923	484,307	97,994	101,794	465,073	145,359	2.11
1984/1985	231,669	508,913	101,573	103,646	484,075	168,124	2.2
1985/1986	229,826	494,811	80,505	82,452	482,527	178,470	2.15
1986/1987	227,895	524,082	86,488	89,274	508,470	191,296	2.3
1987/1988	220,087	498,710	112,247	111,565	531,254	159,434	2.27
1988/1989	217,878	495,276	102,384	105,151	516,684	135,259	2.27
1989/1990	226,333	533,132	98,797	103,419	526,684	137,085	2.36
1990/1991	231,015	588,801	99,003	103,843	549,477	171,569	2.55
1991/1992	222,770	543,510	108,361	109,948	550,254	163,238	2.44
1992/1993	222,061	562,634	108,810	110,039	546,474	177,869	2.53
1993/1994	221,044	558,470	98,561	103,717	547,828	183,355	2.53
1994/1995	213,326	523,031	99,877	98,215	543,801	164,247	2.45
1995/1996	216,715	537,516	97,293	99,195	544,183	155,678	2.48
1996/1997	227,103	581,345	98,470	106,924	564,908	163,661	2.56
1997/1998	226,424	610,232	103,698	104,370	575,957	197,264	2.7
1998/1999	219,179	590,436	100,068	101,298	576,983	209,487	2.69
1999/2000	212,528	586,828	109,171	113,402	581,191	210,893	2.76
2000/2001	215,580	583,210	100,003	101,336	585,514	207,256	2.71
2001/2002	214,458	583,823	106,236	105,868	587,132	204,315	2.72
2002/2003	213,457	569,627	103,822	105,449	602,413	169,902	2.67
2003/2004	207,639	555,360	101,129	108,468	581,799	136,124	2.67
2004/2005	215,855	626,683	110,364	111,212	605,005	156,954	2.9
2005/2006	217,654	618,840	111,814	117,477	615,426	154,705	2.84
2006/2007	211,590	596,544	114,051	111,654	618,915	134,731	2.82
2007/2008	217,120	612,624	113,413	116,661	614,528	129,579	2.82
2008/2009	224,108	683,464	137,844	144,167	637,177	169,543	3.05
2009/2010	225,416	687,005	133,716	137,004	650,982	202,278	3.05
2010/2011	217,060	652,366	131,512	133,086	654,089	198,981	3.01
2011/2012	221,254	697,271	149,324	157,781	688,852	198,943	3.15
2012/2013	215,647	656,339	144,627	137,393	686,673	175,843	3.04
2013/2014	219,369	711,885	151,997	159,386	696,605	183,734	3.25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31,189	408,734	74,263	80,308	411,826	102,541	3.12
1981/1982	133,040	441,753	72,177	68,083	421,225	127,163	3.32
1982/1983	125,245	439,869	66,623	59,535	424,356	149,764	3.51
1983/1984	119,699	348,272	58,542	60,955	406,641	88,982	2.91
1984/1985	128,969	458,366	66,256	67,008	428,446	118,150	3.55
1985/1986	130,999	479,020	53,470	55,302	417,666	177,672	3.66
1986/1987	131,859	475,444	52,484	55,077	445,661	204,862	3.61
1987/1988	126,860	450,997	57,323	59,128	456,354	197,675	3.56
1988/1989	126,108	400,413	66,465	68,461	450,832	145,260	3.18
1989/1990	127,310	461,690	73,603	72,176	475,526	132,851	3.63
1990/1991	129,102	481,963	58,547	58,389	473,577	141,395	3.73
1991/1992	132,498	492,950	63,107	62,053	494,366	141,033	3.72
1992/1993	133,080	535,605	60,289	63,263	509,088	162,714	4.02
1993/1994	130,703	475,773	56,973	58,861	507,161	129,438	3.64
1994/1995	135,169	559,332	68,911	66,126	538,207	153,348	4.14
1995/1996	134,966	516,371	65,702	70,422	531,717	133,282	3.83
1996/1997	141,477	592,817	64,846	65,572	559,029	166,344	4.19
1997/1998	136,250	574,378	63,206	63,347	573,373	167,208	4.22
1998/1999	138,919	605,803	66,506	66,938	581,213	191,366	4.36
1999/2000	138,979	608,409	70,930	75,541	600,783	194,381	4.38
2000/2001	137,134	591,898	74,896	76,722	609,176	175,277	4.32
2001/2002	137,402	601,770	71,482	74,579	622,509	151,441	4.38
2002/2003	137,512	603,979	75,699	76,746	627,501	126,872	4.39
2003/2004	141,772	627,605	76,829	77,135	649,519	104,652	4.43
2004/2005	145,467	716,751	75,938	77,656	688,520	131,165	4.93
2005/2006	145,426	700,432	80,139	80,884	706,365	124,487	4.82
2006/2007	150,404	716,099	90,159	93,840	726,161	110,744	4.76
2007/2008	160,420	795,149	98,203	98,543	773,964	131,589	4.96
2008/2009	158,740	800,256	82,255	84,154	782,580	147,366	5.04
2009/2010	158,837	825,449	89,626	96,619	819,439	146,383	5.2
2010/2011	164,340	834,210	92,311	91,254	852,355	129,295	5.08
2011/2012	171,468	885,987	99,915	116,968	865,471	132,758	5.17
2012/2013	176,352	862,845	98,640	94,472	865,776	133,995	4.89
2013/2014	176,712	966,631	109,924	114,417	938,831	157,302	5.47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49,761	80,926	26,217	25,342	83,920	16,545	1.63
1981/1982	49,971	86,083	29,107	29,316	87,316	15,103	1.72
1982/1983	52,060	93,455	28,366	28,617	90,959	17,348	1.80
1983/1984	50,748	83,104	25,485	26,221	86,021	13,695	1.64
1984/1985	53,713	93,063	25,419	25,249	88,988	17,940	1.73
1985/1986	51,991	97,006	27,325	26,061	92,635	23,575	1.87
1986/1987	51,577	98,049	29,071	28,552	102,119	20,024	1.90
1987/1988	54,062	103,654	28,143	30,114	101,095	20,612	1.92
1988/1989	55,659	95,857	23,901	23,558	97,620	19,192	1.72
1989/1990	58,355	107,192	26,562	27,275	104,154	21,517	1.84
1990/1991	54,419	104,290	25,546	25,392	104,625	21,347	1.92
1991/1992	54,944	107,297	28,220	28,098	109,293	19,391	1.95
1992/1993	56,595	117,206	30,047	29,296	115,900	21,448	2.07
1993/1994	60,258	117,582	28,178	27,729	120,823	18,656	1.95
1994/1995	62,150	137,646	32,762	31,982	132,407	24,675	2.21
1995/1996	61,063	124,700	32,462	31,643	131,700	18,494	2.04
1996/1997	62,431	131,942	35,631	36,764	134,012	15,291	2.11
1997/1998	68,528	157,950	38,164	39,314	145,100	26,991	2.30
1998/1999	71,299	159,826	38,550	37,928	158,801	28,638	2.24
1999/2000	71,876	160,307	45,522	45,634	159,209	29,624	2.23
2000/2001	75,446	175,768	53,089	53,817	171,516	33,148	2.33
2001/2002	79,475	184,831	54,356	53,012	184,232	35,091	2.33
2002/2003	81,488	196,896	62,884	61,321	191,044	42,506	2.42
2003/2004	88,395	186,620	54,082	56,046	188,903	38,259	2.11
2004/2005	93,146	215,724	63,477	64,754	203,994	48,712	2.32
2005/2006	92,915	220,700	64,086	63,852	215,826	53,820	2.38
2006/2007	94,359	236,073	68,966	71,137	224,740	62,982	2.50
2007/2008	90,645	218,877	78,344	78,321	229,456	52,426	2.41
2008/2009	96,316	211,602	77,394	77,212	221,170	43,040	2.20
2009/2010	102,250	260,403	86,841	91,437	237,936	60,911	2.55
2010/2011	103,172	263,904	88,821	91,700	251,629	70,307	2.56
2011/2012	102,929	239,157	93,426	92,270	257,197	53,423	2.32
2012/2013	109,111	268,270	95,282	99,849	258,479	58,647	2.46
2013/2014	112,591	287,693	105,332	109,326	269,337	73,009	2.56



국가별 밀 통계

□ 한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28	92	2,095	0	2,069	260	3.29
1981/1982	20	57	1,868	0	1,983	202	2.85
1982/1983	20	66	1,880	0	1,980	168	3.3
1983/1984	26	112	2,351	0	2,356	275	4.31
1984/1985	6	17	3,111	0	2,988	415	2.83
1985/1986	3	11	3,032	0	3,145	313	3.67
1986/1987	2	5	3,895	4	3,844	365	2.5
1987/1988	1	4	4,459	5	4,282	541	4
1988/1989	1	2	2,822	5	3,283	77	2
1989/1990	1	1	2,009	8	1,992	87	1
1990/1991	1	1	4,206	25	3,525	744	1
1991/1992	1	1	4,396	27	4,846	268	1
1992/1993	1	1	3,994	38	3,481	744	1
1993/1994	1	1	5,647	32	5,619	741	1
1994/1995	2	2	4,293	50	4,245	741	1
1995/1996	2	10	2,554	59	2,496	750	5
1996/1997	3	11	3,465	65	3,351	810	3.67
1997/1998	1	5	3,917	82	3,850	800	5
1998/1999	1	5	4,689	96	4,548	850	5
1999/2000	2	6	3,811	124	3,493	1,050	3
2000/2001	1	2	3,127	128	3,001	1,050	2
2001/2002	1	3	3,979	122	3,810	1,100	3
2002/2003	2	6	4,052	123	4,050	985	3
2003/2004	3	10	3,434	131	3,340	958	3.33
2004/2005	4	13	3,591	126	3,500	936	3.25
2005/2006	2	8	3,884	94	3,900	834	4
2006/2007	2	6	3,439	87	3,300	892	3
2007/2008	2	7	3,092	92	3,000	899	3.5
2008/2009	3	10	3,371	94	3,050	1,136	3.33
2009/2010	5	26	4,470	105	4,402	1,125	5.2
2010/2011	13	39	4,761	125	4,327	1,473	3
2011/2012	13	44	5,188	131	5,181	1,393	3.38
2012/2013	9	37	5,439	144	5,196	1,529	4.11
2013/2014	7	30	4,500	125	4,544	1,390	4.29

□ 일본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91	583	5,840	138	6,095	1,690	3.05
1981/1982	224	587	5,577	160	6,069	1,625	2.62
1982/1983	228	742	5,795	254	6,092	1,816	3.25
1983/1984	229	695	5,857	305	6,210	1,853	3.03
1984/1985	232	741	5,603	269	6,267	1,661	3.19
1985/1986	234	874	5,532	281	6,192	1,594	3.74
1986/1987	246	876	5,577	391	6,100	1,556	3.56
1987/1988	271	864	5,497	393	5,994	1,530	3.19
1988/1989	282	1,021	5,111	404	5,742	1,516	3.62
1989/1990	284	985	5,413	398	5,919	1,597	3.47
1990/1991	260	952	5,552	435	6,047	1,619	3.66
1991/1992	239	759	5,873	448	6,235	1,568	3.18
1992/1993	215	759	5,958	453	6,418	1,414	3.53
1993/1994	184	638	5,993	443	6,350	1,252	3.47
1994/1995	152	565	6,310	472	6,380	1,275	3.72
1995/1996	151	444	6,101	576	6,380	864	2.94
1996/1997	159	478	6,418	408	6,300	1,052	3.01
1997/1998	158	573	6,082	385	6,150	1,172	3.63
1998/1999	162	570	5,945	417	6,150	1,120	3.52
1999/2000	169	583	5,929	490	6,200	942	3.45
2000/2001	183	688	5,885	453	6,150	912	3.76
2001/2002	197	700	5,836	465	6,100	883	3.55
2002/2003	207	828	5,579	460	6,000	830	4
2003/2004	212	855	5,751	463	5,950	1,023	4.03
2004/2005	213	860	5,744	423	6,030	1,174	4.04
2005/2006	214	875	5,469	423	6,020	1,075	4.09
2006/2007	218	837	5,747	417	6,000	1,242	3.84
2007/2008	210	910	5,700	338	6,000	1,514	4.33
2008/2009	209	882	5,156	272	5,950	1,330	4.22
2009/2010	208	675	5,502	296	5,900	1,311	3.25
2010/2011	207	568	5,869	292	6,400	1,056	2.74
2011/2012	212	742	6,354	296	6,400	1,456	3.5
2012/2013	209	855	6,598	275	6,900	1,734	4.09
2013/2014	208	743	6,200	300	6,800	1,577	3.57

□ 중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29,228	55,210	13,789	0	75,999	31,700	1.89
1981/1982	28,307	59,640	13,200	0	78,840	25,700	2.11
1982/1983	27,955	68,470	13,000	0	79,470	27,700	2.45
1983/1984	29,050	81,390	9,600	0	82,990	35,700	2.8
1984/1985	29,576	87,815	7,400	0	89,105	41,810	2.97
1985/1986	29,218	85,810	6,600	0	95,155	39,065	2.94
1986/1987	29,616	90,040	8,817	7	97,265	40,650	3.04
1987/1988	28,798	87,764	15,327	7	99,040	44,694	3.05
1988/1989	28,785	85,432	15,384	8	101,826	43,676	2.97
1989/1990	29,841	90,807	12,800	8	102,367	44,908	3.04
1990/1991	30,753	98,229	9,409	8	102,598	49,940	3.19
1991/1992	30,948	96,000	15,863	10	105,429	56,364	3.1
1992/1993	30,500	101,590	6,728	184	104,281	60,217	3.33
1993/1994	30,240	106,390	4,320	631	105,343	64,953	3.52
1994/1995	28,981	99,300	10,256	411	105,355	68,743	3.43
1995/1996	28,860	102,215	12,531	496	106,499	76,494	3.54
1996/1997	29,610	110,570	2,705	969	107,615	81,185	3.73
1997/1998	30,057	123,289	1,916	1,162	109,056	96,172	4.1
1998/1999	29,774	109,726	829	542	108,250	97,935	3.69
1999/2000	28,855	113,880	1,010	542	109,340	102,943	3.95
2000/2001	26,650	99,640	195	623	110,278	91,877	3.74
2001/2002	24,640	93,873	1,092	1,512	108,742	76,588	3.81
2002/2003	23,910	90,290	418	1,718	105,200	60,378	3.78
2003/2004	22,000	86,490	3,749	2,824	104,500	43,293	3.93
2004/2005	21,626	91,952	6,747	1,171	102,000	38,821	4.25
2005/2006	22,793	97,445	1,129	1,397	101,500	34,498	4.28
2006/2007	23,613	108,466	388	2,783	102,000	38,569	4.59
2007/2008	23,721	109,298	49	2,835	106,000	39,081	4.61
2008/2009	23,617	112,464	481	723	105,500	45,803	4.76
2009/2010	24,290	115,120	1,394	892	107,000	54,425	4.74
2010/2011	24,257	115,180	927	941	110,500	59,091	4.75
2011/2012	24,270	117,400	2,933	978	122,500	55,946	4.84
2012/2013	24,268	121,023	2,960	969	125,000	53,960	4.99
2013/2014	24,150	122,000	8,500	1,000	125,500	57,960	5.05

□ 미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28,773	64,798	68	41,200	21,295	26,919	2.25
1981/1982	32,618	75,805	76	48,191	23,056	31,553	2.32
1982/1983	31,525	75,250	207	41,058	24,719	41,233	2.39
1983/1984	24,848	65,857	105	38,820	30,310	38,065	2.65
1984/1985	27,085	70,618	257	38,685	31,466	38,789	2.61
1985/1986	26,185	65,974	443	24,742	28,619	51,845	2.52
1986/1987	24,560	56,896	578	27,175	32,587	49,557	2.32
1987/1988	22,640	57,362	438	43,215	29,827	34,315	2.53
1988/1989	21,525	49,320	617	38,506	26,651	19,095	2.29
1989/1990	25,167	55,428	611	33,528	27,006	14,600	2.2
1990/1991	27,965	74,292	991	29,106	37,150	23,627	2.66
1991/1992	23,392	53,891	1,108	34,899	30,799	12,928	2.3
1992/1993	25,399	67,135	1,905	36,838	30,688	14,442	2.64
1993/1994	25,379	65,220	2,962	33,414	33,738	15,472	2.57
1994/1995	24,998	63,167	2,502	32,340	35,014	13,787	2.53
1995/1996	24,668	59,404	1,849	33,778	31,028	10,234	2.41
1996/1997	25,422	61,980	2,513	27,257	35,397	12,073	2.44
1997/1998	25,431	67,534	2,583	28,315	34,212	19,663	2.66
1998/1999	23,877	69,327	2,803	28,460	37,589	25,744	2.9
1999/2000	21,761	62,475	2,572	29,570	35,373	25,848	2.87
2000/2001	21,474	60,641	2,445	28,904	36,184	23,846	2.82
2001/2002	19,616	53,001	2,927	26,190	32,434	21,150	2.7
2002/2003	18,544	43,705	2,106	23,139	30,448	13,374	2.36
2003/2004	21,474	63,805	1,715	31,524	32,498	14,872	2.97
2004/2005	20,222	58,698	1,921	29,009	31,783	14,699	2.9
2005/2006	20,276	57,243	2,214	27,291	31,320	15,545	2.82
2006/2007	18,939	49,217	3,317	24,725	30,940	12,414	2.6
2007/2008	20,639	55,821	3,065	34,363	28,614	8,323	2.7
2008/2009	22,541	68,016	3,456	27,635	34,293	17,867	3.02
2009/2010	20,191	60,366	3,227	23,931	30,977	26,552	2.99
2010/2011	19,271	60,062	2,638	35,147	30,639	23,466	3.12
2011/2012	18,496	54,413	3,050	28,606	32,112	20,211	2.94
2012/2013	19,798	61,671	3,341	27,416	38,269	19,538	3.12
2013/2014	18,274	57,961	4,627	31,978	34,959	15,189	3.17

□ 캐나다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1,098	19,291	0	16,262	5,240	8,510	1.74
1981/1982	12,427	24,802	0	18,447	5,152	9,713	2
1982/1983	12,554	26,715	0	21,368	5,087	9,973	2.13
1983/1984	13,697	26,465	0	21,765	5,483	9,190	1.93
1984/1985	13,158	21,188	2	17,543	5,239	7,598	1.61
1985/1986	13,729	24,252	14	17,697	5,598	8,569	1.77
1986/1987	14,229	31,359	38	20,783	6,452	12,731	2.2
1987/1988	13,458	25,945	34	23,518	7,887	7,305	1.93
1988/1989	12,944	15,913	46	12,429	5,803	5,032	1.23
1989/1990	13,718	24,796	36	16,885	6,537	6,442	1.81
1990/1991	14,098	32,098	52	21,731	6,576	10,285	2.28
1991/1992	14,160	31,946	95	24,481	7,779	10,066	2.26
1992/1993	13,830	29,871	113	19,709	8,148	12,193	2.16
1993/1994	12,375	27,226	151	19,100	9,352	11,118	2.2
1994/1995	10,773	22,920	136	20,851	7,643	5,680	2.13
1995/1996	11,123	24,989	158	16,342	7,758	6,727	2.25
1996/1997	12,263	29,801	241	19,501	8,222	9,046	2.43
1997/1998	11,410	24,280	132	20,134	7,315	6,009	2.13
1998/1999	10,678	24,082	152	14,705	8,113	7,425	2.26
1999/2000	10,375	26,941	190	19,165	8,092	7,299	2.6
2000/2001	10,855	26,536	199	17,316	7,060	9,658	2.44
2001/2002	10,606	20,630	341	16,272	7,808	6,549	1.95
2002/2003	8,711	15,961	382	9,432	7,735	5,725	1.83
2003/2004	10,215	23,049	233	15,843	7,179	5,985	2.26
2004/2005	9,389	24,796	253	14,872	8,240	7,922	2.64
2005/2006	9,404	25,748	285	16,020	8,237	9,698	2.74
2006/2007	9,682	25,265	320	19,434	8,984	6,865	2.61
2007/2008	8,616	20,090	396	16,116	6,869	4,366	2.33
2008/2009	10,016	28,619	383	18,876	7,847	6,645	2.86
2009/2010	9,660	26,950	403	19,042	7,213	7,743	2.79
2010/2011	8,296	23,300	444	16,575	7,552	7,360	2.81
2011/2012	8,553	25,288	488	17,352	9,852	5,932	2.96
2012/2013	9,497	27,205	483	18,976	9,590	5,054	2.86
2013/2014	10,440	37,500	490	23,000	10,200	9,844	3.59

□ 호주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1,283	10,856	0	9,577	3,503	2,044	0.96
1981/1982	11,885	16,360	0	11,008	2,620	4,776	1.38
1982/1983	11,520	8,876	0	8,041	3,326	2,285	0.77
1983/1984	12,931	22,016	0	13,640	3,143	7,518	1.7
1984/1985	12,078	18,666	0	14,032	3,568	8,584	1.55
1985/1986	11,736	16,167	0	16,022	2,864	5,865	1.38
1986/1987	11,135	16,119	7	15,562	2,657	3,772	1.45
1987/1988	9,063	12,369	11	9,850	3,552	2,750	1.36
1988/1989	8,903	14,060	14	11,295	2,929	2,600	1.58
1989/1990	9,004	14,214	11	10,767	3,023	3,035	1.58
1990/1991	9,218	15,066	18	11,760	3,536	2,823	1.63
1991/1992	7,183	10,557	22	7,103	3,429	2,870	1.47
1992/1993	9,101	16,184	28	9,853	4,212	5,017	1.78
1993/1994	8,383	16,479	29	13,707	4,108	3,710	1.97
1994/1995	8,003	8,903	53	6,354	3,907	2,405	1.11
1995/1996	9,221	16,504	46	13,311	3,669	1,975	1.79
1996/1997	10,936	22,925	52	19,225	3,332	2,395	2.1
1997/1998	10,439	19,224	45	15,343	4,001	2,320	1.84
1998/1999	11,543	21,465	56	16,473	4,530	2,838	1.86
1999/2000	12,168	24,757	61	17,844	5,227	4,585	2.03
2000/2001	12,141	22,108	72	15,930	5,328	5,507	1.82
2001/2002	11,592	24,299	72	16,409	5,427	8,042	2.1
2002/2003	11,070	10,132	282	9,146	6,125	3,185	0.92
2003/2004	13,067	26,132	75	18,031	5,950	5,411	2
2004/2005	13,399	21,905	78	14,722	6,000	6,672	1.63
2005/2006	12,456	25,173	82	16,012	6,550	9,365	2.02
2006/2007	11,798	10,822	94	8,728	7,400	4,153	0.92
2007/2008	12,578	13,569	116	7,487	6,615	3,736	1.08
2008/2009	13,531	21,420	115	14,747	7,415	3,109	1.58
2009/2010	13,881	21,834	121	14,827	5,170	5,067	1.57
2010/2011	13,502	27,410	121	18,600	5,815	8,183	2.03
2011/2012	13,902	29,905	123	24,661	6,505	7,045	2.15
2012/2013	12,773	22,461	135	18,657	6,740	4,244	1.76
2013/2014	13,500	26,500	120	19,500	6,550	4,814	1.96

□ 러시아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0	0	0	0	0	0	0
1981/1982	0	0	0	0	0	0	0
1982/1983	0	0	0	0	0	0	0
1983/1984	0	0	0	0	0	0	0
1984/1985	0	0	0	0	0	0	0
1985/1986	0	0	0	0	0	0	0
1986/1987	0	0	0	0	0	0	0
1987/1988	23,974	36,868	14,900	800	50,981	14,487	1.54
1988/1989	24,575	39,864	9,860	970	48,840	14,401	1.62
1989/1990	24,376	44,004	9,100	1,150	51,960	14,395	1.81
1990/1991	23,540	49,596	10,849	1,200	57,260	16,380	2.11
1991/1992	22,520	38,900	13,645	555	53,823	14,547	1.73
1992/1993	23,550	46,170	14,470	900	56,617	17,670	1.96
1993/1994	23,880	43,500	5,000	500	48,945	16,725	1.82
1994/1995	20,990	32,100	2,167	619	42,873	7,500	1.53
1995/1996	21,570	30,100	5,316	206	39,810	2,900	1.4
1996/1997	22,540	34,900	2,631	697	38,134	1,600	1.55
1997/1998	24,020	44,250	3,120	1,111	39,809	8,050	1.84
1998/1999	19,950	27,012	2,490	1,652	34,838	1,062	1.35
1999/2000	19,820	30,995	5,083	518	35,365	1,257	1.56
2000/2001	21,300	34,455	1,604	696	35,158	1,462	1.62
2001/2002	22,780	46,982	629	4,372	37,078	7,623	2.06
2002/2003	24,430	50,609	1,045	12,621	38,320	8,336	2.07
2003/2004	20,020	34,070	1,026	3,114	35,500	4,818	1.7
2004/2005	22,920	45,434	1,225	7,951	37,400	6,126	1.98
2005/2006	24,580	47,615	1,321	10,664	38,400	5,998	1.94
2006/2007	22,960	44,927	928	10,790	36,400	4,663	1.96
2007/2008	23,480	49,368	440	12,220	37,982	4,269	2.1
2008/2009	26,100	63,765	203	18,393	38,900	10,944	2.44
2009/2010	26,690	61,770	164	18,556	39,600	14,722	2.31
2010/2011	21,750	41,508	89	3,983	38,600	13,736	1.91
2011/2012	24,814	56,240	550	21,627	38,000	10,899	2.27
2012/2013	21,296	37,720	1,172	11,289	33,550	4,952	1.77
2013/2014	23,350	52,068	500	16,500	35,000	6,020	2.23

□ 우크라이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0	0	0	0	0	0	0
1981/1982	0	0	0	0	0	0	0
1982/1983	0	0	0	0	0	0	0
1983/1984	0	0	0	0	0	0	0
1984/1985	0	0	0	0	0	0	0
1985/1986	0	0	0	0	0	0	0
1986/1987	0	0	0	0	0	0	0
1987/1988	5,359	19,655	3,300	1,675	21,329	5,651	3.67
1988/1989	6,461	21,709	1,700	2,355	21,303	5,402	3.36
1989/1990	6,966	27,400	1,100	3,000	24,692	6,210	3.93
1990/1991	7,577	30,374	910	2,000	27,980	7,514	4.01
1991/1992	7,023	21,155	1,100	225	22,969	6,575	3.01
1992/1993	6,329	19,508	1,483	100	21,820	5,646	3.08
1993/1994	5,748	21,831	78	500	19,455	7,600	3.8
1994/1995	4,507	13,857	240	140	15,557	6,000	3.07
1995/1996	5,479	16,273	183	1,343	15,413	5,700	2.97
1996/1997	5,892	13,550	50	1,285	15,515	2,500	2.3
1997/1998	6,508	18,404	103	1,364	15,643	4,000	2.83
1998/1999	5,641	14,937	78	4,696	12,419	1,900	2.65
1999/2000	5,931	13,585	453	1,952	12,186	1,800	2.29
2000/2001	5,161	10,197	686	78	12,155	450	1.98
2001/2002	6,882	21,349	92	5,486	13,450	2,955	3.1
2002/2003	6,750	20,556	810	6,569	14,500	3,252	3.05
2003/2004	2,456	3,599	3,365	66	9,025	1,125	1.47
2004/2005	5,534	17,520	34	4,403	11,700	2,576	3.17
2005/2006	6,571	18,699	68	6,461	12,500	2,382	2.85
2006/2007	5,511	13,947	81	3,366	11,700	1,344	2.53
2007/2008	5,951	13,938	334	1,236	12,300	2,080	2.34
2008/2009	7,054	25,885	73	13,037	11,900	3,101	3.67
2009/2010	6,753	20,866	28	9,337	12,300	2,358	3.09
2010/2011	6,284	16,844	41	4,302	11,600	3,341	2.68
2011/2012	6,657	22,324	84	5,436	14,950	5,363	3.35
2012/2013	5,630	15,761	45	7,190	11,800	2,179	2.8
2013/2014	6,566	22,278	100	10,000	11,500	3,057	3.39

□ 아르헨티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5,023	7,780	0	3,845	3,950	413	1.55
1981/1982	5,926	8,300	0	3,638	4,300	775	1.4
1982/1983	7,320	15,000	0	9,870	4,849	1,056	2.05
1983/1984	6,880	12,750	0	7,847	4,700	1,259	1.85
1984/1985	5,950	13,200	0	9,408	4,600	451	2.22
1985/1986	5,270	8,500	0	4,300	4,400	251	1.61
1986/1987	4,982	8,930	13	4,435	4,539	220	1.79
1987/1988	4,789	9,000	0	3,705	4,500	1,015	1.88
1988/1989	4,651	8,540	0	4,034	4,700	821	1.84
1989/1990	5,285	10,000	0	6,060	4,540	221	1.89
1990/1991	5,798	10,992	13	5,592	4,530	1,104	1.9
1991/1992	4,547	9,884	1	5,780	4,578	631	2.17
1992/1993	4,255	9,874	15	5,850	4,265	405	2.32
1993/1994	4,777	9,659	11	5,009	4,298	768	2.02
1994/1995	5,221	11,306	33	7,318	4,314	475	2.17
1995/1996	4,500	8,600	48	4,483	4,165	475	1.91
1996/1997	7,100	15,914	43	10,198	4,895	1,339	2.24
1997/1998	5,702	15,740	27	11,151	4,796	1,159	2.76
1998/1999	5,399	13,300	25	8,573	5,150	761	2.46
1999/2000	6,153	16,400	12	11,608	5,050	515	2.67
2000/2001	6,540	16,300	7	11,325	5,100	397	2.49
2001/2002	7,010	15,700	12	10,284	5,150	675	2.24
2002/2003	6,230	12,700	7	6,798	5,300	1,284	2.04
2003/2004	5,960	15,100	37	9,466	5,350	1,605	2.53
2004/2005	6,430	16,900	2	11,898	5,350	1,259	2.63
2005/2006	5,470	13,800	3	9,635	5,075	352	2.52
2006/2007	6,210	16,300	6	10,721	5,350	587	2.62
2007/2008	6,580	18,600	23	11,208	5,650	2,352	2.83
2008/2009	5,250	11,000	26	6,794	5,325	1,259	2.1
2009/2010	4,000	12,000	3	5,099	5,825	2,338	3
2010/2011	4,845	17,200	13	9,495	5,950	4,106	3.55
2011/2012	5,170	15,500	5	12,926	5,950	735	3
2012/2013	3,600	9,300	5	3,550	6,200	290	2.58
2013/2014	3,500	10,500	5	3,000	6,050	1,745	3

□ 인도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22,172	31,830	50	55	34,325	4,000	1.44
1981/1982	22,279	36,313	2,000	0	36,313	6,000	1.63
1982/1983	22,144	37,452	2,486	100	37,838	8,000	1.69
1983/1984	23,567	42,794	3,270	35	42,029	12,000	1.82
1984/1985	24,672	45,476	700	100	43,076	15,000	1.84
1985/1986	23,564	44,069	50	400	43,719	15,000	1.87
1986/1987	22,997	47,052	15	500	45,567	16,000	2.05
1987/1988	23,131	44,323	10	500	56,492	3,341	1.92
1988/1989	23,063	46,169	2,100	20	48,929	2,661	2
1989/1990	24,109	54,110	100	20	53,201	3,650	2.24
1990/1991	23,502	49,850	100	200	47,595	5,805	2.12
1991/1992	24,167	55,134	100	680	58,009	2,350	2.28
1992/1993	23,260	55,690	2,500	50	57,515	2,975	2.39
1993/1994	24,589	57,210	500	28	53,377	7,280	2.33
1994/1995	25,100	59,840	30	100	58,330	8,720	2.38
1995/1996	25,600	65,470	50	1,500	64,978	7,762	2.56
1996/1997	25,011	62,097	1,445	2,000	66,064	3,240	2.48
1997/1998	25,887	69,350	1,731	0	69,246	5,075	2.68
1998/1999	26,700	66,350	2,203	0	63,707	9,921	2.49
1999/2000	27,400	70,780	1,372	200	68,793	13,080	2.58
2000/2001	27,486	76,369	441	1,569	66,821	21,500	2.78
2001/2002	25,700	69,680	32	3,087	65,125	23,000	2.71
2002/2003	25,900	72,770	34	4,850	75,254	15,700	2.81
2003/2004	24,860	65,760	8	5,650	68,918	6,900	2.65
2004/2005	26,620	72,150	8	2,120	72,838	4,100	2.71
2005/2006	26,500	68,640	41	801	69,980	2,000	2.59
2006/2007	26,400	69,350	6,721	94	73,477	4,500	2.63
2007/2008	28,000	75,810	1,962	49	76,423	5,800	2.71
2008/2009	28,150	78,570	7	23	70,924	13,430	2.79
2009/2010	27,750	80,680	218	58	78,150	16,120	2.91
2010/2011	28,460	80,800	272	72	81,760	15,360	2.84
2011/2012	29,070	86,870	15	891	81,404	19,950	2.99
2012/2013	29,860	94,880	16	6,824	83,822	24,200	3.18
2013/2014	29,400	92,460	20	6,500	89,980	20,200	3.14

□ 유럽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0	0	0	0	0	0	0
1981/1982	0	0	0	0	0	0	0
1982/1983	0	0	0	0	0	0	0
1983/1984	0	0	0	0	0	0	0
1984/1985	0	0	0	0	0	0	0
1985/1986	0	0	0	0	0	0	0
1986/1987	0	0	0	0	0	0	0
1987/1988	0	0	0	0	0	0	0
1988/1989	0	0	0	0	0	0	0
1989/1990	0	0	0	0	0	0	0
1990/1991	0	0	0	0	0	0	0
1991/1992	0	0	0	0	0	0	0
1992/1993	0	0	0	0	0	0	0
1993/1994	0	0	0	0	0	0	0
1994/1995	0	0	0	0	0	0	0
1995/1996	0	0	0	0	0	0	0
1996/1997	0	0	0	0	0	0	0
1997/1998	0	0	0	0	0	0	0
1998/1999	0	0	0	0	0	0	0
1999/2000	24,785	122,999	3,959	20,346	113,971	16,652	4.96
2000/2001	26,706	132,729	3,530	15,716	119,273	17,922	4.97
2001/2002	26,144	124,153	8,715	13,003	119,115	18,672	4.75
2002/2003	26,638	133,522	10,559	18,226	125,704	18,823	5.01
2003/2004	24,513	111,418	7,401	9,867	115,752	12,023	4.55
2004/2005	26,196	147,726	7,073	14,656	123,900	28,266	5.64
2005/2006	25,963	132,856	6,758	15,661	128,190	24,029	5.12
2006/2007	24,666	125,670	5,179	13,946	126,182	14,750	5.09
2007/2008	24,872	120,833	6,758	12,387	117,151	12,803	4.86
2008/2009	26,831	151,922	7,708	25,410	127,627	19,396	5.66
2009/2010	25,998	139,720	5,358	22,279	125,622	16,573	5.37
2010/2011	26,016	136,667	4,623	23,086	122,844	11,933	5.25
2011/2012	25,831	138,182	7,368	16,691	127,234	13,558	5.35
2012/2013	25,967	133,878	5,264	22,621	120,000	10,079	5.16
2013/2014	25,729	142,866	4,000	27,500	118,750	10,695	5.55

□ 멕시코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740	2,650	1,235	10	3,500	434	3.58
1981/1982	850	3,050	938	5	4,000	417	3.59
1982/1983	950	4,200	50	10	4,093	564	4.42
1983/1984	840	3,200	566	2	4,100	228	3.81
1984/1985	950	4,200	491	5	4,350	564	4.42
1985/1986	1,050	4,400	92	6	4,640	410	4.19
1986/1987	1,075	4,500	575	3	5,112	370	4.19
1987/1988	900	3,700	724	52	4,272	470	4.11
1988/1989	800	3,200	1,046	231	4,103	382	4
1989/1990	950	4,000	220	200	4,152	250	4.21
1990/1991	933	3,930	486	7	4,454	205	4.21
1991/1992	984	4,061	739	8	4,622	375	4.13
1992/1993	916	3,621	1,350	8	4,888	450	3.95
1993/1994	878	3,582	1,828	12	5,398	450	4.08
1994/1995	965	4,151	1,374	135	5,265	575	4.3
1995/1996	929	3,468	1,581	472	4,707	445	3.73
1996/1997	809	3,107	1,940	227	4,815	450	3.84
1997/1998	801	3,639	2,166	374	5,181	700	4.54
1998/1999	768	3,235	2,485	311	5,409	700	4.21
1999/2000	640	3,050	2,632	404	5,378	600	4.77
2000/2001	690	3,400	3,066	705	5,580	781	4.93
2001/2002	685	3,270	3,171	548	5,818	856	4.77
2002/2003	630	3,230	3,161	597	5,900	750	5.13
2003/2004	600	2,700	3,644	451	5,900	743	4.5
2004/2005	510	2,420	3,697	504	6,000	356	4.75
2005/2006	550	3,020	3,551	533	6,100	294	5.49
2006/2007	570	3,240	3,607	548	6,200	393	5.68
2007/2008	722	3,593	3,142	1,261	5,500	367	4.98
2008/2009	800	4,000	3,342	1,406	6,000	303	5
2009/2010	828	4,148	3,196	839	6,300	508	5.01
2010/2011	679	3,676	3,404	821	6,450	317	5.41
2011/2012	662	3,628	5,020	790	7,600	575	5.48
2012/2013	579	3,231	3,826	729	6,625	278	5.58
2013/2014	634	3,382	4,300	1,000	6,500	460	5.33

□ 이집트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557	1,796	5,423	0	7,469	250	3.22
1981/1982	588	1,938	5,878	0	7,670	396	3.3
1982/1983	576	2,017	5,503	0	7,576	340	3.5
1983/1984	570	1,996	5,857	0	7,950	243	3.5
1984/1985	491	1,815	6,302	0	8,150	210	3.7
1985/1986	498	1,873	6,236	0	8,169	150	3.76
1986/1987	507	1,929	7,022	0	8,601	500	3.8
1987/1988	577	2,443	7,473	0	9,616	800	4.23
1988/1989	597	2,839	7,408	0	10,247	800	4.76
1989/1990	630	3,183	7,258	0	10,441	800	5.05
1990/1991	740	4,286	5,680	0	10,266	500	5.79
1991/1992	760	4,482	5,807	0	10,289	500	5.9
1992/1993	878	4,617	6,004	0	10,421	700	5.26
1993/1994	894	4,780	5,866	2	10,514	830	5.35
1994/1995	730	4,100	5,856	3	10,383	400	5.62
1995/1996	1,055	5,700	5,932	10	11,300	722	5.4
1996/1997	1,016	5,735	6,893	3	11,600	1,747	5.64
1997/1998	1,044	5,850	7,134	1	12,100	2,630	5.6
1998/1999	1,017	6,104	7,454	0	13,000	3,188	6
1999/2000	1,035	6,350	5,872	0	13,300	2,110	6.14
2000/2001	1,190	6,350	6,050	0	12,800	1,710	5.34
2001/2002	1,002	6,130	6,944	11	12,900	1,873	6.12
2002/2003	1,008	6,300	6,327	10	13,300	1,190	6.25
2003/2004	1,029	6,443	7,295	10	13,600	1,318	6.26
2004/2005	1,094	7,177	8,150	10	14,000	2,635	6.56
2005/2006	1,260	8,184	7,771	10	14,700	3,880	6.5
2006/2007	1,286	8,274	7,300	12	15,300	4,142	6.43
2007/2008	1,287	8,275	7,700	43	15,800	4,274	6.43
2008/2009	1,226	7,977	9,900	94	17,200	4,857	6.51
2009/2010	1,322	8,523	10,500	175	18,100	5,605	6.45
2010/2011	1,260	7,200	10,600	225	17,700	5,480	5.71
2011/2012	1,280	8,400	11,650	232	18,600	6,698	6.56
2012/2013	1,350	8,500	8,300	190	18,700	4,608	6.3
2013/2014	1,400	8,800	10,500	200	19,100	4,608	6.29

발 행 일 2014. 2. 24.
발 행 인 최세균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인 쇠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